

제429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5년10월1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요청안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회
3.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4.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5. 현안 질의(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요청안 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회 2
5. 현안 질의(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101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62
3.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3
4.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63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하여 준법성·도덕성·책임성을 확인하고 해당 직책의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관리함으로써 우리 정치의 안정과 발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요청안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회

(10시11분)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그리고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가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1일

공직후보자 위철환

○위원장 **신정훈** 다음으로는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과 국정심의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임을 잘 알기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엄숙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질의에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9년 변호사 개업 이래 36여 년간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 아래 국가권력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재임 시에는 서민들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의 확대, 마을변호사 제도의 정착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간선제였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데 앞장서서 회원 모두가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과 평등·공정의

민주주의 원칙을 법조계 내부에서도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가 보장되는 가운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투표를 통해서 선거 결과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변호사로서 다져 온 전문적 법률지식과 일관되게 지켜 온 사회적 약자 보호 신념을 바탕으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 후에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거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투표관리가 있었고 여기에 각종 의혹이 덧붙여지면서 선거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인사 위주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 혁신안과 선거관리 개선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검증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서 오해가 있었다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 제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민 분열과 국력 소모가 계속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책무의 엄중함을 한층 더 무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흠 없는 선거관리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소중한 참정권을 안심하고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여기고 성심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올립니다. 오늘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과 충고는 국민의 뜻으로 여겨서 겸허한 자세로 마음 깊이 새기면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정훈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후보자님으로 나오셨는데, 후보자님의 인사청문회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뒤에 전부, 후보자가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된 것처럼 선관위의 국장들이 전부 다 나와 배석을 하세요?

저는 이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준비단이 들어오는 것은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준비단은

아예 안 나오고 지금 전부 뒤에 국장들이 다 배석을 하고 계세요. 벌써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 된 겁니까? 이것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나왔는데 왜 국장들이 다 지금 뒤에 배석하고 계세요? 준비단이 뒤에서, 혹시 필요하면 준비단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는 게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준비단이 들어와서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들이 지금 보면, 상임위원으로 벌써 된 걸로 지금 보시는 겁니까? 이 청문회를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 관련해서는 양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고……

○서범수 위원 협의 없었는데요.

○위원장 신정훈 또 지금까지의 관행, 과정을 제가 지금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까 올 3월 달에 있었던 김대웅 선관위원,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에도 전체 선관위 직원들이 배석을 했다……

○서범수 위원 그때는 이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제가 형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지금.

○위원장 신정훈 그것은 그러면 두 분이 상의를 하셔서 사전에 제기할 문제나,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서범수 위원 적어도 인사청문회라면, 대법원의 인사청문회든 모든 인사청문회라면 준비단이 들어와서 협조를 받는 것, 도움을 받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임위원이 된 것처럼 앉아서 국장들이 뒤에 배석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모양이 맞느냐는 거지요.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간사님, 우리 회의를 원만히 하겠다고 하신다면……

○서범수 위원 정리하시고 내보내시고 준비단이 들어와서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신정훈 사전에 제기해 주시든지 지금까지……

○서범수 위원 저는 몰랐어요. 누가 배석하는지 내가 어찌 압니까, 와서 보니까 그러는 데.

○위원장 신정훈 우리 행정실이 제 말 듣고 합니까? 두 분의 협의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그동안 관행을 기초로 하고 그래서 진행하는 거고……

○서범수 위원 협의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위원장 신정훈 제가 저쪽에 지금 배석해 있는 누구도 들어와라 마라 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권철승 위원 일단 정회하시고 간사님들 의견을……

○위원장 신정훈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할 내용이지……

○위성곤 위원 잠시 정회하시고 의견을 좀 정리해 보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행정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이번 3월 달에 선관위원 김대웅의 인사청문회 때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 인력이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배석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 그런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행정실에서 또 간사님들과 협의 내용을 거쳐서 나는 이 자리가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시면 앞으로는 사전에 좀 더 충분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회의도 제가 굳이 저 사람들, 뒤에 계신 분들을 배석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관행을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하니까 우선……

○박덕흠 위원 그런데요 위원장님 허락 없이 막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정훈 아니지요, 아니지요.

○박덕흠 위원 아니잖아. 그러면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윤건영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행적으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정훈 예.

○윤건영 위원 구로율의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 지적은 충분히 하실 만한 지적입니다. 다만 행정실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지난 3월에도 선관위 국장들이 배석을 했다는 겁니다. 즉 관행적으로 즉 배석을 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회의 진행 전에 간사인 저한테 사전에 지적을 하든지 양해 요구를 하시든지 했으면 회의가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위원장께서는 관행대로 선관위 국장들이 배석을 했고 질의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이니 이 상황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뒤에 앉아 계시는 배석자분들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잠깐 정회를 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새롭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거니까요. 잠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범수 간사님.

○서범수 위원 금방 양당 간사 간에 협의는 했는데요 합의는 안 됐습니다.

민주당 간사께서는 그대로 그냥 하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라는 지금 오신 분들을 빼고 새롭게 하자 이것보다는 다음 인사청문회부터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후보자님이? 아니, 뒤에 분명히……

제가 이야기한 지적이 얼토당토 않은 지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후보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님 같으면 당연히 ‘실국장들 빠지시고 준비단만 갖고 하겠습니다’라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후보자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해요.

그렇게 자신 없나 이거지요, 그렇게.

○위성곤 위원 아니, 말씀 기회도 안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서범수 위원 아니, 내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위성곤 위원 후보자에게 여쭙보셨어요? 후보자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까!

○서범수 위원 내가 그러면 여쭙볼까요?

○위성곤 위원 여쭙보시든지.

○서범수 위원 여쭙볼게요, 그러면요.

(「질의시간 때 여쭙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나중에 내가 그것 질의시간에……

이게 비본질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이다.

이게 관행, 관행 자꾸 하는데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런 국회 관행을 그렇게 존중해서 이 판을 만듭니까? 아니, 지적이 맞으면 지적이 맞는 대로 바로 고쳐 주시면 되는데 굳이 그걸 또 우기는 민주당의 입장도 내가 참 딱하다 말씀드립니다.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신정훈 1분만 좀 쓰십시오.

○윤건영 위원 1분 30초 쓰셨는데 같이 쓰겠습니다.

저는 서범수 간사님의 문제의식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 배석을 허용했던 관행은, 이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 선관위원들은 상근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즉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니 뒤에 배석을 했던 걸로 추론합니다. 그런 역사와 배경이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올 3월 인사청문회에서, 즉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선관위 간부들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범수 간사님한테 말씀드렸던 건 문제의식이 일견 타당할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그런 배석을 시키지 말고 준비단만 하자라고 말씀을 제안드렸던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박덕흠 위원 앞으로는 관행대로 죽 해 주시는 거예요?

○윤건영 위원 아니요, 다음부터 룰을 만들자는 거지요.

룰을 만들면 되니까 그 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시합이 시작됐는데 바로 룰을 고치자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된 룰도 아니었고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그렇고 야당이면 또 바뀌는 그런 룰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주시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일단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서울 영등포갑 채현일입니다.

후보자님,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잃는 순간에 선거의 공정성은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채현일 위원 그런데 최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 신뢰를 잃는, 가장 크게 잃는 기관 중의 하나가 바로 사법부, 대법원입니다. 한때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불렸던 사법부가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국민 다수는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는 응답 하는 실정까지 왔습니다.

후보자님께 제가 사법부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법부처럼 국민 신뢰를 잃는 기관의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 선관위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여러 차례 언론 칼럼을 통해 가지고 사법개혁, 사법정의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썼는데 위철환 칼럼이라고 낸 2018년도에 대법원은 국민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칼럼에서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정치권과 언론에 로비하고 언론에 홍보하며 대한변협을 압박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채현일 위원 그리고 또 신속한 재판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관의 수를 늘리는 대안도 그 글에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이런 글도 썼어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글을, 대법관 증원 반드시 필요하다는 글을 쓰신 것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사법부의 신뢰 회복, 구조적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채현일 위원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넘는 조사도 나왔고요.

후보자님, 사법부가 이렇게 불신을 받고 어떻게 보면 개혁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사실 저도 37년째 변호사 생활을 해 오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재판이 상당히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대법원 심리가 심리불속행이랄지 이런 기각제도가 있어서 판결 이유 같은 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불만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인력적인 문제랄지 한 가지 요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후보자로서 여기에서 사법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후보자님께서 총론적으로 말씀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계엄,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치러지는 대선에서 사법부가 정치 개입을 했다는 그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듣도 보도 못한 계산법으로 해 가지고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주자의 재판을 사건배당 당일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6만 쪽에 달

하는 사건 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또 한덕수 총리 회동 의혹까지 나와 가지고 청문회까지 열린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 그런 대법원이, 사법부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했을 때 중앙선관위는 어떠한 공식 입장이나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채현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치, 어떤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치현실에 조금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후보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특히 대선이라는 국민주권이 가장 침해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이 선거 며칠을 앞두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측면, 그러면 선거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선관위가 최소한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 표명을 내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혹시 선관위에서 그런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앞으로 선관위 위원이 되신다면, 만약 또 다시 이런 노골적인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위철환 후보자님께서 어떤 어떤 외부 압력이나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하여튼 후보자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대한변협 회장 하시면서 또 간접 선거제를 직선제로 바꿈으로써 대한변협의 민주적인 가치, 그런 가치를 제일 먼저 숭상 수범했고 그러한 생각과 의지가 중앙선관위에서 선관위원 되시면 분명히 그런 게 좀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선관위 위원으로서 가장 갖춰야 할 덕목, 역량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립성이 가

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박덕흠 위원 중립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또 그 절차도 투명하고……

○박덕흠 위원 됐습니다.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정치적 중립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법관 증원 또 사법개혁 이런 것이 지금 여당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선관위원이 된다면 정말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특히, 아마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전반적으로 중립적 의무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저는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는 선거에도 직접 참여를 하셨고 또 법률지원단에 윤리심판원까지 하셨고 또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민주당에서 활동을 한 경력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여러 가지 성향도 여당이 추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사전투표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지역구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이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당히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박덕흠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옛날에 활동했던 부분은 비당원으로서는, 당원 단계로 간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덕흠 위원 아니, 저는 당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거에도 참여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고문이라든가 심판원장이나 이렇게까지 선언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당원보다도 더한 지지 성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 다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 국민들이 이런 분이 공정하게 할 수 있겠냐, 편향적으로 하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바뀌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회생활 하시면서 즉 이런 성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의식구조가 바뀌겠냐. 저는 그것이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다시 화면 좀 봐 주세요.

윤리심판원장 재직 당시입니다. 코인 투자로 논란이 된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덕흠 위원 지금도 생각은 여전하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어떤 특정 행위에 관해서는 그쪽……

○박덕흠 위원 아니, 이 생각이 유효하냐, 안 하냐만 얘기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 말에는 지금도 잘했다고 봅니다.

○박덕흠 위원 유효하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행위가 잘못된 것에 관해서는요.

○박덕흠 위원 그런데 지금 김남국 전 의원이 지난 7월에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됐거든요. 이런 분이 비서관이 된 것은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인사권에 관한 문제라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박덕흠 위원 아니, 인사권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후보자가 아까 그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그러는데 더군다나 정부의 비서관이 된 것은 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소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소신이 있으셔야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후보님을 믿고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소신 있게 얘기를 못 하시면…… 왜냐?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서 그 부분이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는 게 유효한데 비서관이 됐다는 것은 이견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 당시 행위를 보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보니까 인정하시는 거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이 선관위원으로서 최종 임명하더라도 정말 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제가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후보자님이 지금 그런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립성을 갖고 중립적으로 선관위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시간이 없는데, 민주당의 ‘탄핵 반대는 내란죄 공범’ 현수막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이거든요. 이게 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번복한 것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보도를 언뜻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결정 경위 이런 건 확실히 잘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이걸 그때 상당히 뜨거웠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보도 내용을 언뜻 봤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 내용은 아시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덕흠 위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끊임없이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전체적인 사건, 문제가 되고 결정 과정은 확실히 제가 아직 살피지 못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아까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관위 법규에서, 과정에서 그 세부 기준이 모호하고 논의 과정도 공개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덕흠 위원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신다 하니까 공개도 하고 그래서 신청자가 선관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건영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우리 헌법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고동진 위원 아까 후보자님도 얘기했지만 선관위 핵심 가치가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상근하면서 사무처를 직접 감독할 권한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고동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 박덕흠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후보자님의 이력을 보면 과연 그럴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하고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 그런 것은 그렇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2017년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공명선거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으셨고,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고동진 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하던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으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랬습니다.

○고동진 위원 또 후보자가 대한변호사협회장 재직 당시의 대법관 인사 추천 내역을 보면 유명한 대장동 사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서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의 김형태

변호사, 통합진보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김선수 변호사, 이런 인사들을 책임자로 추천하
바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고동진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없다, 나는 그때는 굉장히
중립적이었다,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 부분은 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골고루 다른 분들, 상당히 세상에서 보기에……

○고동진 위원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그때 최종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하는 데 이름을
써 주셨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각계 골고루 추천을 하는 겁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이러한 이력 있는 후보자께서 과연, 본인도 중립성을 가장 강조
하셨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야 할 선거관리위원으로 자신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선거관리위원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정당·대법원장 3명씩 추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어느 정도 정치 성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동
안에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선관위 위원들조차도 대선캠프에 참여하는 정도에 그쳤지 후
보자처럼 대선캠프 참여에 더해 가지고 특정 정당을 위해서 직접 활동한 사례는 없어요.
본인이 유일합니다. 알고 계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고동진 위원 그동안 선관위는 단순한 선거관리를 넘어서 단속과 규제를 하고 상시적
으로 제도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에 큰 영향력을 끼쳐 온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
니까 일부에서는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 논란에, 항상 시비의 중심에 서 있고 이런 상황
에서 특정 정당, 특정 진영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해 온 이력 있는 후보자가 그것도
상임 선관위원을 맡게 되면 이게 또다시 국민의 불신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청문회를 지내봐야 되겠지만 관례대로라면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가능성이 높다라
고 저는 보는데 후보자 본인 스스로가 상임위원으로 호선된다 하더라도 저나 다른 위원
들이 제기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만약에 불식시키고 싶다면 국민들께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스스로 상임위원직을 거부할 생각은 없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명심을 해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렇게 편향성을 가진 인물이 상임위원을 맡은 후에 선관위에 대한 국
민들의 시각과 평가가 어떻게 될지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특보를 맡았던 이력으로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조해주
전 상임위원 임명 이후에 국민들이 선관위가 심판이 아닌 선수로 뛰다, 선거관리가 아니
라 민주당 선거 지원을 한다 이런 조롱과 비판이 있었어요.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실제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민주당 기호를
연상케 하는 TBS의 캠페인은 허가를 해 줬어요, 계속 달라고. 그런데 시민단체가 내건

보궐선거의 원인을 묻는 현수막에는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고 하는 이유로 불허한 사례가, 이게 선관위를 향한 조롱과 비판이 틀리지 않았더라는 걸 저는 보여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제가 과거 사례도 살펴보고 또 앞으로는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후보자님도 이런 결정이 한쪽에 치우쳤다고 보시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구체적인 사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여러 가지 비판 대상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저는 선관위가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명정대한 어떤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호선되더라도 상임위원을 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본 위원의 말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오늘 청문회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될지를 계속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고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일단 후보자님, 후보자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기억합니다.

○**모경종 위원** 후보자께서는 오랜 기간 법조계에 몸담으셨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 만큼 이번 그 사태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먼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헌법 제114조가 규정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고려해 볼 때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행위였는지 혹은 명백한 위법행위였다고 보시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12·3 비상계엄을 전 대통령이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탄핵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시비가 어느 정도 가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선거관리하면서도 만약에 위원이 된다면 비상계엄 선포 요건 이런 것에 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직분에 맞는 처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향후 이런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관의 독립성 수호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 망령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

각을 하는데요. 끊이지 않는 이런 부정선거 의혹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부정선거는 상당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회통합도 저해하고 또 선거의 정당성을 전부 송두리째 훼손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제도에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서 엄중하게 앞으로 그 부분 홍보도 하고 또 대응책을 한번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모경종 위원** 안타깝게도 이런 의혹들이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대답을 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선관위가 그동안에 스스로의 신뢰와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선관위에서 불거진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그리고 투표 관리가 부실한 지점, 아까 인사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 이런 심각한 내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최종적으로 선관위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이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걸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얼마 전에 발족을 해서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해서 좀 투명하게 운영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더 살펴보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일각에서는 이거 역시 요식행위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냥 보여 주기식 아니냐라는 의혹 또는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이 특위를 잘 활용하시고 특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를 좋은 계기 삼아서 환골탈태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흡수처, 비전관, 지방변호사회 출신 이런 쉽지 않은 환경을 딛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첫 직선 회장이라는 직을 맡으셨습니다. 지금 민주당 윤리심판원 이력을 가지고 공격들을 하시는,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신 적 있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가입한 적도 없고 활동한 바도 없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말 그대로 그동안에 법조인 경력을 갖고 본인의 법조인 역량을 활용한 것 또는 이용한 것이지 민주당원으로서의 당성을 가지고 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구체적으로 윤리심판원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만약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결정하는데, 거기에는 아홉 분의 법률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합의제로 당과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징계심판을 하는 것이고 지방 하급 징계위원회가 또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재심 처리도 해서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는 외부 위원장을 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서 확실하게 어떤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절대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투명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분에 맞게 열심히 명심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간 법조계에서 어떤 특별한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봐 왔습니다만 저는 특히 후보자께서는 특별한 정당을 위해서 일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정당 문화에 있어서 또는 정당 체계 안에서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이나 사적 충성 이런 게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과 공공성을 위한 전문가적인 사회 참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의견 어떠신지와 마지막으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상당히 제 속마음에 공감이 되고요. 앞으로 정말 어느 당이든지 봐도 공정하다, 중립적이다 이런 느낌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그걸 홍보를 하고 알리고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율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여야 위원님 공히 후보의 정당활동 경력에 대해서, 정당활동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어쨌든 윤리심판원장을 했던 것 그리고 대선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중히 지켜야 될 당연한 기준, 원칙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윤건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요, 제가 그래서 통계를 좀 봐 봤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2009년 11월에 이명박 대통령은 강경근 상임위원을 지명하는데 이 강경근 위원께서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한 나라선진화·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의 부의장을 하셨고 또 공개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바도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당시 한나라당이었지요—윤리강령기초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여러 건 있었어요.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윤희 선관위원을 지명하는데 또 한나라당 윤리위원을 역임하신 분이고요. 14년 2월에는 또 한나라당의 연구원의 이사직을 역임하셨던 김용호 위원을 선관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아마 법조계에 계신 분들을 지명하다 보니까 정당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선관위원으로 되시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야 위원들이 공히 이야기하셨던 내용은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하자 그리고 그걸 후보자가 잘 지켜 나가라라는 그런 당부의 뜻으로 알고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감사합니다.

○윤건영 위원 후보자에게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3·15부정선거가 있어서 4·19혁명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최근에 지난 대선 이후에 거리를 온통 뒤덮었던 부정선거 현수막 혹시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윤건영 위원 내용이 예컨대 ‘부정선거 주범을 고발한다’ 또 ‘중국 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들어 준 대통령이다’,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윤건영 위원 선관위가 대통령을 만드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 현수막을 보는 일반 국민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국민들께서는 정확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윤건영 위원 이곳 행안위 상임위장에서 선관위 사무총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될 수밖에 없다.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 대한 명백한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원칙을 선관위가 임의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해하면서까지 세울 게 아니라 공론을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도 그 부분 서면질의도 보고 지난 청문회 때 속기록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관위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철거한다거나 어떤 처벌을 한다는 그런 것을 딱히 결정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거기에 개입하면 또 정당 간의 편파 시비에 휘말릴 염려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내용 자체가 정말 국민 정서에 반하고 국민 통합을 해친다, 이런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정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것만으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선관위에서도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국민 공감대를 잘 수렴하셔서 입법으로 그걸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후보자님 말씀 맞습니다. 국회가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것이고요. 그 뒤편은 저희 행안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선관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비난과 혐오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지요. 막가자는 거지요. 나라 전체가 막가자는

것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을 중국 공산당이 임명을 했다니요. 말이 안 되는 게 버젓이 걸려 있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법하고 정당법이 충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정확하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얼마나 새로운 기준을 만들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 맞지요,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에서 직무감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윤건영 위원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감사원에서 감찰을 할 때 회계감사는 허용이 되고 직무감찰에 관해서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너무 쉽게 허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 강하게 버티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야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왜 직무감찰 하자고 덤볐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감사원이 마치 정권의 홍위병처럼 활동을 하면서 감사원이 나서서 대신 선관위를 털어 보겠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관위를 대신 털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작정하고 덤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관위가 그것은 나서서 버텨야지요. 그런데 너무 쉽게 허물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를 떠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보다 더 명심하셔서 만약에 위원으로 되신다면 그런 원칙들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현직 선관위원이나 사무총장이 아니고 인사청문회 후보자로서 실국장들이

배석해서 인사청문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그동안의 국회 관행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서범수 위원 국회 관행 이야기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후보자님도 그것은 아니라고 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제가 아직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임명이 안 됐는데, 상임위원 임명이 안 됐는데 그 뒤에 전부 실국장을 배석시키고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서범수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보내시고 준비단 배석시키시지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국회 위원회에서 처분하시면 처분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하시면 우리 후보자님 답변하는 데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번 여쭙볼게요.

후보자님, 본인이 어떤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선거로 인해서……

○서범수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선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 때문에 지방변호사회장이 됐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됐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래서 아마 선거의 중요성이나 그것을 잘 관리할 책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느낍니다, 제 생각으로는.

○서범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 동기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서범수 위원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가 아니라면 이렇게 지명이 됐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글썄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밥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의 문구가 어디에 있는 문구라고,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

○서범수 위원 이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미션과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면 우리 후

보자께서는 본인이 판단하실 때 과연 선거관리위원으로 자격이 있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명심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정파성이 매우 성향이 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어느 분 질문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한 것은 전문가적인 어떤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봤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초빙하면 오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어떤 사회와 국가의 공정성이나……

○서범수 위원 아니요, 국회의힘 윤리위원장으로 초빙하면 오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아, 국민의힘요?

○서범수 위원 예, 우리 당 윤리위원장으로 초빙하면 오시겠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윤리에 관한 문제라면 초대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검토한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그 직분은 큰 차이는 없다고……

○서범수 위원 후보자님, 프로야구 좋아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서범수 위원 어느 구단 팬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롯데도 좋아하고……

○서범수 위원 왜 롯데를 좋아하십니까? 고향이……

그런데 롯데 응원단장이, 지금 후보자님이 만약 선거관리위원으로 되면 롯데 응원단장이 심판을 보는 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서범수 위원 아니, 롯데 응원단장이 다른 팀하고 만약에 시합을 하는데 심판이 됐다, 팔이 안으로 굽지. 그래서 공정성……

○위성곤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말씀은 지역주의적으로 롯데라고 얘기해서 호남 출신인 것을 지역주의로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롯데를 좋아한다 하니……

○위성곤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한해 주십시오, 이 질의에 대해서.

○서범수 위원 잠시만요, 세워 주세요.

무슨 지역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위성곤 위원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서범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롯데를 이야기해서……

○위성곤 위원 왜 지역을 꺼내요?

○서범수 위원 아니, 어느 구단을 이야기했느냐고 물은 것 아닙니까. 내가 어느 구단을 좋아하는지……

○위성곤 위원 신성한 프로야구를 왜 여기다 갖다 대서……

- 서범수 위원 왜 갑자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 서범수 위원 뭐가 잘못됐는데?
- 위성곤 위원 잘못됐지 몰라요?
-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 서범수 위원 뭐가요?
- 위성곤 위원 왜 위철환 후보자에게 롯데를 질문해요?
- 서범수 위원 아니, 롯데를 말씀하셔서 그렇잖아요, 지금. 롯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 위성곤 위원 롯데를 얘기하셨잖아요.
- 서범수 위원 아니지, 먼저 롯데 이야기를 해서 그렇잖아요.
- 박정현 위원 먼저 하셨어요.
- 서범수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잠깐만요.
-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왜 이래 시간이……
- 윤건영 위원 멈춰 났어요.
- 서범수 위원 그래서 어느 구단을 좋아하시냐고요.
- 위성곤 위원 아니, 그걸 왜 물어보세요?
- 서범수 위원 한번 물어보는……
- 위성곤 위원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뭘니까, 도대체?
- 서범수 위원 아니, 청문회에서 자기 롯데…… 아니, 롯데가 아니고 구단에 대해서……
-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잠깐만요.
- 위성곤 위원 의도가 잡힌 것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 이달희 위원 위성곤 위원님, 아직 질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 위원장 신정훈 위원장이 관리할게요.
- 서범수 위원 왜 질문을 방해하세요!
- 위성곤 위원 지역주의에 대한 의도가 잡힌 것 아닙니까?
- 이달희 위원 아니, 그래도 질의하는데 왜 그러세요? 질의시간 존중해 주세요.
- 서범수 위원 뭐가 의도가요? 뭐가 의도요?
- 위원장 신정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서범수 위원 추후도 제가 지역하고 관계는 한 게 없어요.
- 위성곤 위원 합리적으로 질의하세요, 합리적으로.
- 이달희 위원 질의 중인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 서범수 위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응원단장 격이 심판을 보면 그 심판이 바로 공정하게 봐질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시지요? 그렇지요? 동기가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은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 분을 후보자께서 최순실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PT.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이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한 자리 주신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아마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서 업무의 적합성을 보고 추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개인 친분만 가지고 이 중요한……

○서범수 위원 다음 PT 보세요.

가까운 사람 챙길 거면 사업하지 정치했겠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 또 변호사들, 자기 변호했던 사람들 14명을 지금 고위직에 다 앉혔다 말입니다. 딱 저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최순실이 되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정치하시면 안 되고 사업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하여튼 저는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걸 잘 명심해서 어느 당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노자에 보면 지지불퇴(知止不退)라고 있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후보자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가치를 위해서도, 특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시중거리에서 최순실이 됐다는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될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독립적으로 처신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자기 거취를 판단하시는 게 안 낫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열심히 하시라는 소리가 아니지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선거의 가장 큰 핵심은 공정성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 공정성은 실질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 게 그 공정성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이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후보자께서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외견적으로는 저 양반은 옛날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장도 했다, 대선에 참여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공정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지는 신뢰를 하시겠느냐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위원님의 염려 잘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본인의 판단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임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국민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채용비리 등 내부의 문제도 있고 또 바깥으로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허위·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공정과 정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굳건히 지켜 내고 국민의 신뢰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우선 부정선거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묻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도 안 되는 차이로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했었는데 이때 부정선거가 있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는 정보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정보를 듣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당선은 어떻게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정당한 선거로 당선됐다고 봅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존경하는 많은 행안위 위원들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 다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분이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성희 위원 너무 당연한 말씀을 여쭙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반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데요. 올해 6월 26일 전한길 씨가 모스 탄 대사라는 사람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PPT 보시면 나오지만 6월 3일 대한민국 대선 부정선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언뜻 봤습니다.

○김성희 위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부정선거 신앙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걸 또

교리처럼 받아들이셔 활동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간의 통계 괴리가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6.4%를 얻었고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28.15%를 얻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제선거감시단은 사전투표에 보수적 표가 더 많은데 이 사전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표를 많이 얻지 못한 자체가 부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거였던 2년 전에 펼쳐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대결에서도 같은 양상이 벌어졌었는데 그때와는 또 상이한 주장인데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성희 위원 미국 같은 경우는 우편투표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이나 선거를 꼼꼼하게 하고 싶은 어른들이 집에서 우편투표를 부쳐서 사전투표에서 보수 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통념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직장 출근했다가 선거 날 놀려고 출근하는 길에, 점심 때 잠깐 시간 내서 하는 등 사전투표에 젊은 층들의 참여가 많고 진보적인 인사들의 참여가 많기 때문에 또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는 신앙촌 활동 때문에 보수적인 분들이 선거 당일 투표를 선호해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김성희 위원 그다음에 전자개표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모스 탄 대사의 주장을 보면요, 제가 웃지 않고 읽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북한은 해커부대를 통해 NFC 서버를 해킹했고 언론과 금융 시스템에 침투했으며 선거 개표망을 교란시켰다, 이 정황은 대한민국 국정보고서에도 이미 기록돼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성희 위원 무슨 말인지 어질어질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김성희 위원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하면 해커부대가 NFC 서버를 해킹하고 언론과 금융 시스템에 침투한 것은 윤석열 정부 집권 당시일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하나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전투표 통신망, 인터넷망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존재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 폐쇄망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폐쇄망이라는 것은 인터넷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투가 불가능하고 국정원이 선관위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도 이메일에 들어간 것이지 본투표함은 못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개표망에 수집되는 사전선거의 개표 결과는 각 투표구마다 표로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김성희 위원 이 표에 차이가 없는 건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김성희 위원** 그런 상태인데 북한이 해커부대로 대한민국 선거를 흔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가 현재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벌하고 그런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실태를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국회의 입법청원 등을 돕는 이런 조력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책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다음은 박주현 변호사라는 분이 수백 명의 시민 감시자들이 접하지 않는 투표지, 이상한 봉인 테이프, 부정한 양식 등을 직접 목격했는데 감시자들이 오히려 체포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선거, 대선 기간, 총선 기간도 좋습니다. 시민들의 투개표 감시 활동을 방해하고 그들을 체포한 적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런 일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이 있을 텐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김성희 위원** 선관위원이 감시원들을 체포하는 게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성희 위원** 저도 가급적이면 웃지 않고 질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백 명의 시민 감시자들이 목격을 했는데 감시자들이 체포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전국에 투개표 사무원과 참관인들 숫자가 59만 명에 달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김성희 위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지금 시민 감시자의 체포, 은폐 주장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놔두시면 됩니까, 선관위가? 고발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밋밋하게 대응하고 계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제도적 불신으로 투표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무르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거기에 대한 각오를 좀 밝혀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저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후보자 신분 이전에 국민으로서 부정 선거·투표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분들은 정확하게 그 근거를 들어 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서로 할 기회를 한번 갖고 그래도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처벌조항 이런 것을 대책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도 그렇고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후보자님,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님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감사합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수원지검 차장검사 할 때 후보자님이 수원지방 변협회장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반갑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기억납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경력들 중에서 대선후보 법률지원단의 근무 건,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했던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윤리심판원.

○양부남 위원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러한 선거, 정당에 관여했던 후보자 경력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후보자로 임명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떻게 불식시키려고 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우선 구체적인 정책이나 해석에 있어서, 거기에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향이 다양하게 국회, 대법원 또 행정부—대통령—해서 3인씩 추천을 해서 각기 다른 의견들을 피력한 다음에 합의제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사를 모두 존중해서 완전히 합의 일체로 의견이 된 것만,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또 민주주의 선거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정책을 펴 나가고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합의제기구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합의제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시면 그러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청문회장에서 제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게 혹여 앞으로 후보자가 우리 민주당이 아니면 현 정권에서 또 다른 뭔가 직책 제의가 왔을 때 이것을 수용을 거절한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란지 출마하지 않는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도 정치적 중립을 해소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현재 후보자 신분으로서 정식으로 위원으로 임명된 것도 아니고 이것 준비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른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양부남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권에서, 민주당 안에서 어떤 자리를 염탐하고 그런 생각은 없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후보자께서 MBC 모 방송에 가서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문제가 된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이 질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박덕흠 위원님께서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디지털비서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그런 질의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이 되는 자격하고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이 되는 자격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명확히 의사를 표시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또 하나,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 PPT가, 작년 12월 6일 날 게재된 것입니다—게엄 이후지요—‘그래도 이재명 안 됩니다’. 제가 현안질의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허용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허용입니까, 불허입니까, 후보자님이 보실 때? 법률가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12월 6일 날 ‘그래도 이재명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이게 게재 허용, 불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여기에 북한의 인공기까지 표시되고……

○양부남 위원 제가 퀴즈를 내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표시되고 이런 것 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아무튼 선관위로 봤을 때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제가 직접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니까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얼른 봐서 저런 것은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양부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처음 게재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방식과 대상을 봤을 때 특정인의 낙선과 관련된 거다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허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국힘에서 왜 이게 불허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선관위에서 ‘그래 맞네, 이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고 허용을 해줬어요.

선관위가 이렇게 갈 지(之) 자로 왔다 갔다 하면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런 부분은 앞으로 표현의 자유와 정치행위와 구체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사례나 또 국민들, 특히 의원님들께서 양당에서 생각하시는 그 기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생각도 해 보고 기준도 정해서 어느 당에도 섭섭함이 없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취지는 선관위 업무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이런 데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한 번 결정을 내렸을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고 결정했을 때는 조변식개하는 것처럼 바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양부남 위원 또 하나, 다음 PPT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이 PPT는 6·3 대선이 끝난 후에 게첩된 겁니다. 지금도 시내에 많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 플래카드 공해로 인해서 매우 시달리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예.

○양부남 위원 여기에 보면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됐다는 취지입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그런데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플래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지금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이러한 허위사실입니다. 이 플래카드 게첩 내용이 허위사실이잖아요. 허위사실, 혐오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법상으로는 이것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둘 것인가. 선관위가 허위로 만들어 준 대통령, 선관위가 대통령 허위로 만들어 줬습니까? 선관위가 허위로 만들어 줬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건 아닙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양부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까, 훼손하지 않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 자체로 훼손이 된 걸로 보입니다.

○양부남 위원 선관위 자존심 상하잖아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건 아닙니다.

○양부남 위원 선관위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왜 선관위 가만히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건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답변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하여튼 정당법이나 관계법에서는 그것을 임의로 철거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제가—계속 확인했는데—들었습니다. 그걸 앞으로 국회에서도 입법적으로 같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후보자, 국회의 입법적인 역할은 국회가 알아서 할 것이고 후보자로서

의 소신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예, 알겠어요’가 아니라 지금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질문하는데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선관위원으로서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방금……

○위원장 신정훈 방금 양부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윤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성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계속 선관위는 그렇게 하고 있다더라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 국회의 입법적인 어떤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한마디 정도는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위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수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이자소득 신고를 해서 금액을 좀 역산해 보니까 2021년에 이자소득 4200만원, 2024년에 이자소득 5500여만 원 신고하셨고요. 이걸 역산해 보면 예금이 한 20억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대략. 그런데 예금 신고는 한 9억 4000~9억 5000이예요. 이 차이를 어떻게, 소명 좀 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좀 노후화가 돼 가지고 임차인이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최근에 수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제가 임차 주택에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을 해 줘 버리니까 그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는 거래내역서하고 예금잔액증명이라든지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의원실로 좀 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살펴보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지금 말씀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다 보니까 예금 금액이 비었고 그래서 이자소득과 차액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한민국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현수막서부터 선관위원이 해야 되는 임무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제가 테스트 겸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탄핵 반대는 내란죄 공범이다’ 동의하십니까, 이 문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

○박수민 위원 제가 약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 문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너무 추상적이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게 법률적으로나 그냥 팩트적으로는 잘못된 얘기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이 된 겁니다. 탄핵은 헌법상의 대통령 파면 절차고 내란은 형법상의 형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탄핵심판 할 때는, 당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요건에 내란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2차 탄핵소추안에서 그게 들어갔다가 탄핵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 요건이 빠졌어요. 그래서 탄핵과 내란은 무관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헌법적 요건에 맞춰서 계엄을 선포했느냐에 대한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헌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발효했고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이 된 것이고.

그리고 내란죄라는 것은 12월 4일 새벽에 종료가 됐어요. 진행형일 때 형벌상…… 법률가시니까 아실 겁니다. 진행 중인 내란에 동조가 가능한 거지 진행이 완료된 것에 공범이라는 말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저 현수막이 인정이 됐어요. 왜 인정이 됐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내란죄에 관해서는 아마 형사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결정이 됐지만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 가지고, 제가 후보자 신분으로 지금 재판 중인데 말씀드리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박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가적으로 충실히 해 주셔서 그것은 제가 감사한데, 법률가적으로 딱 현수막만 쓰면 저것은 못 써요. 그런데 허용이 됐단 말입니다, 정치적 주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저것은 내란죄 공범이라는 법적인 주장이 아니라 탄핵을 반대하게 되면 내란범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극단화된 정치적 표현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선관위원이라는 것은 일단 법률적 판단은 명확히 하셔야 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수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현수막은 어떻게, 저것 납득이 되십니까? ‘이재명은 안 됩니다’ 저것은 본인 생각에 어떠세요? 민주당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저 문구에 동의는 안 되실 거예요, 정치적 자아에서 유권자로서. 저는 그렇게 추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정당은, 정파는, 우리는 저쪽 후보만큼은 이러이러한 문제로 안 됩니다라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저것도 허용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수민 위원 이게 이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판단하시고…… 또 어떤 특정 주장에 대해서 개인적 자아로는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선거 결과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중립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저쪽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수민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팩트의 문제와 유권자의 자아로서의 내가 인정하는 사실 주장의 문제와, 이게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박수민 위원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후보자가 지원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매일 하시는 일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한번 고민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그동안의 관례 이런 것을 봐서 치우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제가 오늘 이 테스트 시험문제를 낸 것은 그동안의 자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법률가로서의 자아.

저는 과거에 정당활동을 했다고 해서 선관위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가 헌법 구조에서 갖고 있는 것은 배역의 문제이고 롤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하나의 자아를 하나 다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원은 정치적 주장과 법률적 팩트와,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정파적으로 어디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중립이나 이것을 찾아가셔야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위철환 후보님, 후보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인사청문 요청 자료에 보니까 본인을 흠수저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의 굉장히 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살아오신 궤적을 보면 사회정의 실현이나 공정성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현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시면 이 가치들이 선거관리 과정에서 잘 피력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 9월 4일 뉴스타파가 2024년 1월 31일 김정재 의원과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 간의 대화 녹취를 공개를 했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서범수 위원 통화 녹취는 협의해 가지고 트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녹취는 서로 협의해서 트는 건데 이거 바로 틀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서범수 위원 스톱!

녹취는 서로 합의하에 틀도록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틀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까지 해 왔어요.

○서범수 위원 아니, 뉴스의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 신정훈 지금까지 다 해 와 놓고 또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건영 위원 방송은 협의 없이 다 하셨잖아요. 이것 뉴스타파 방송이에요.

○박정현 위원 예, 방송을 트는 거예요.

○윤건영 위원 사적인 녹취나 이런 부분들은 간사 간 협의를 했지만……

일단 멈춰 주시고.

○서범수 위원 이게 뉴스타파 방송이에요?

○박정현 위원 예.

○윤건영 위원 우리가 잘못 알 수 있으니까 행정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맞지요? 방송은 협의한 적이 없어요.

○박정현 위원 맞지요? 틀어도 되지요?

○위원장 신정훈 그렇게 하세요. 우선 틀고……

○박정현 위원 틀어 주세요.

○서범수 위원 일단 방송은 트는 걸로 합시다.

○박정현 위원 시간은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김정재 의원은 경선을 하면 상대 경선후보의 지지 선언을 끌어내는 데 3억에서 5억 정도를 주고받는다, 포항에서는 이게 일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정재 의원 얘기로 보면 포항에서는 후보자 매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고백을 한 것인데 이것은 포항 시민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범죄지요, 이거는. 김정재 의원도 지금 녹취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만약에 이게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범죄임을 충분히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후보자 매수도 문제고요 불공정 경선을 또 청탁하는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3배까지 차이 나면 단수로 좀 잘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선거 후에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조사할 문제는 아니긴 한데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녹취로 보면 부정부패·금권선거가 지금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해야 되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런 사실이 있다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실이 있으면 그 당시의 선관위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이거나 다른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이야말로 부정선거지요, 이것이야말로. 김정재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 대화는 금권선거, 후보자 매수행위 의혹이 있고 공천 관련 부정청탁 의혹도 있고 그리고 선거문화를 심대하게 타락시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정선거는 내버려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지금 판을 치는데,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김용빈 전 사무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지요, 그래서 윤석열이 선관위에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라고 보냈는데 본인이 일을 해 보니까 ‘우리 선거제도를 알면 알수록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퇴임 전에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허철훈 현 사무총장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PT 넘겨 보시면 저런 식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도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넘겨 보세요.

저런 내용들은 충분히 보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정현 위원** 넘겨 보세요.

저분은 공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인데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하는 플래카드를 그렇게 당당하게 거셨네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흔드는 현수막, 이것 내버려두는 게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또 이것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제한하는 규제와의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완 입법이 좀 필요하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정현 위원** 본 의원도 선거에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유포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개정안을 냈고 우리 당의 채현일 의원도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서 위법 여부를 다뤄서 게시 여부를 결정하는, 정당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는 정당의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논의할 때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박정현 위원** 부정선거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선거 결과를 흔드는 것이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번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누구는 부정선거니까 이것은 선거가 안 된다,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잖아요.

보니까 대선불복 시도가 현수막뿐만 아니라 장외집회에서 유력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개탄할 일인데요. 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일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가를 혼드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에 대한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공감합니다.

○박정현 위원 가짜 허위·날조 뉴스를 나르는 사람들이 내놓는 증거가 없어요. 가짜 증거, 가짜 뉴스를 제외해 놓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고 이것은 엄단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후보자님, 우리 국민들의 민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의, 아주 민주화된 국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수막 하나에 좌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승인하셨지요?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대통령 이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붙여도, 정치적인 구호를 각 정당에서 해도 국민들은 다 판단하십니다. 국민적인 시각에서 인사 검증은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언제 ‘선거관리위원 맡아 주십시오’ 하고 신청받았습니까? 언제였지요? 발표는 9월 9일에 났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달희 위원 그런데 후보자께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이,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합니다. 평소에는 국민들께서 선거관리위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정확하게 모릅니다. 비서실장이 발표하면 ‘아주 고위직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의 선거관리위원들도 많으니까요. 비슷하게 칭해지는 칭호도 많잖아요. 어느 수준입니까, 급역로 보면 어느 수준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글썽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국무위원급입니다. 장관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일까’ 국민들이 뉴스 보고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변호사협회 회장 했고 또 쳐 보면 흙수저고 대단한 분이고 괜찮은 사람, ‘이번에 인사 검증 잘했네. 저

분이 일을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계속 찾아보면 ‘저 사람 민주당 쪽의 사람이네?’. 정당 가입 안 한, 정당 문서 가입 안 한 하나 가지고 ‘저는 민주당 편향이 아닙니까’라고 국민들께서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PPT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할 때—오늘 이 자료는 안 나온 것 같은데—지지 선언 하셨지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선언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정현 위원 당원은 당연히 당의 후보를 뽑으니까 지지하는 것 당연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지지 선언 해 줄 때 대선 국면에서 얼마나 마중물, 샘물 같은지 아십니까? 중요한 이런 위치에서 순간에 지지 선언을 하면 정말 민주당다운 인사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후보자께서 아까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 세밀히 살펴 오해가 있었다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 제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국민 분열과 국력 소모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아주 확실하게 하셔야 될 일인데 후보자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 하셨고 대통령 만드는 데 일등공신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도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처벌에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뽑지 않은 50% 넘는 국민들께서는 중립적인 인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단호한 처벌 여기에다가 밑줄을 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위원님께서……

○이달희 위원 저는 국민적인 시각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보자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선거관리위원은 매일 출근하는 자리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달희 위원 9명이 다 매일 출근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렇지 않다고……

○이달희 위원 후보자님만 매일 출근하시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중에 가장 중요한 보직입니다, 상근하시고. 선거관리위원장도 상근 안 하시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대법관 하시면서 가끔 와서 사무총장님이나 상임선거관리위원의 보고를 받는 걸로 다 판단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후보자께서 이런 우리 국민적인 불신에, 특히 이렇게 부정선거론자들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사회적 갈등 비용을 너무나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급 지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 많은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살아오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소신 있고 우리 사회에도 참 어른이 있구나…… 민주당 쪽에도 그래서 윤리심판위원장으로 불러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저렇게 중요한 위치에, 사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 몇 번이고 국가발전 얘기하시고 반듯한 국가 얘기하시고 애국심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직에, 다른 장관급에 가서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후보자께서 아무리 '나는 위법한 것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첫 출발에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단추는 끝까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채워야 됩니다.

후보자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적 갈등 비용 지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락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다른 좋은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잠시만 의사진행을 간단하게 하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본인 질의에 다른 위원님께서 중간에 개입하면서 감 나라 대추 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임을 표하고 아울러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지 안한 부분도 유감이다. 그리고 특히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왜곡해서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 '프로야구 좋아하시냐?' '좋아한다', '어느 구단 팬이냐?' '롯데도 좋아하고요'라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후보자께서 선관위원으로 만약 된다면 롯데 구단의 응원단장이 심판하는 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의 위원님께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다'라고 이렇게 뒤집어씌우는 게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남의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그 발언에 대해서 왜곡해서 전파를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스럽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반론에 대해서 제가 전면적으로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제가 몇 차례 제지의 발언을 했었고 또 제가 적절하게 위원장으로서 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각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1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지명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이력이 남다르시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중동고를 졸업하셨는데 야간을 졸업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야간을 다니게 됐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사실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작정 상경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 다닐 상황이 안 돼 가지고요 한 2년 정도 서울에서 험한 직업 전선에서 전전하다가 2년 후에 밤에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낮에는 직업 전선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이제 서울교대에 들어가셔서 또 선생님이 되셨고 선생님이 되셨다가……

학교 선생님이 돼서 선생님 하는 과정 안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 당시에 서울교대가 2년제였습니다. 2년제인데 거기를 졸업하고 학교 발령이 나서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에서 교직을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2년제였기 때문에 성대 법대 야간부에 편입을 해서 3년 과정을 마치고 그 과정에 우리 제자 중의 한 분이 억울한 일로 이겨야 될 사건을 졌다, 이렇게 세상의 법이 정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 사법시험 공부를 준비해서 밤에 좀 했는데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이력을 보면 누구보다 남다른 신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실 것 같은데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적어도 누구든지 어떤 뜻이 있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된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신념이면 약한 자들 곁에서 약한 자들을 지켜 주고 또 세상을 공정하게 만드는 일에 누구보다 헌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PPT 좀 준비해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정당 현수막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중에 ‘중국 유학생 100% 잠재적 간첩’, 이거는 혐오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현수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혐오적 표현이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혐오적 범죄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을 떠나서 정당이 이러한 행태를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엄벌에 처해지고 이런 행위는 없도록 해 지는 게 정당한 사회의 민주사회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위성곤 위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런 혐오적 표현과 그리고 혐오 범죄가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정당이라는 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

가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역할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런 부적절한 현수막이 법에 위반되고 특히 선거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한번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혹시 조금 법이 미흡하다 그러면 그 부분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서 또 입법하는 국회나 또는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습니다. 정당법에 의하더라도 사실은 현수막 설치하는 특정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허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당법 뒤에 숨어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보자께서 선관위 위원이 되시면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구체적인 현안이 발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발이나 또 우리가 발견한 경우가 있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정당 이런 것을 떠나서 국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할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시면 이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의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들어가 보시지요. 들어가서 밑으로 쪽 내리셔셔요 애국현수막 문구, 실제 이 정당의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국민들께 깨워 주세요. 동참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이것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건 정당이 아니라 이런 현수막 팔이를 하고 있는 불법적인 세력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내용 안에 들어가 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후보께서 위원이 되시면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이것이 정당한 활동인지, 정당의 활동인지 아니면 정당을 사칭한 불법활동인지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특히 정당을 빙자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노리는 그런 단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관위 차원에서 위원이 된다면 한번 살펴보고요. 특히 그런 문제는 또 정부에서 위헌정당해산 제안도 할 수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용인갑 이상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청문요청사유서를 읽어 봤는데요. 후보자님 가난한 서민을 위해서 무료 법률상담 이것도 하시고 약자를 위해서 활동하신 훌륭한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을 좀 질의하려 그러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위성곤 위원님도 그렇고 현수막하고 표현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MBC 뉴스에 보니까 또 현수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현수막을 처음에는 불허하다가 나중에는 또 승인하기도 하고, 선관위도 입장이 좀 곤란스러운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는 제 느낌은 선관위는 그래도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보호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맞는 거지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렇다면 후보자님, 허위사실 유포 있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라면 허위사실, 지금 정치 현수막에서 표현의 자유를 넓게 허용하고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에 있어서 그 구성요건,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를 넓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보면 현실에 따라서 이게 허위의 사실인지 아니면 가치 판단인지 아니면 의견의 제시인지 이런 게 모호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판사님들이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결과가 극과 극을 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 지역의 어떤 한 의원님의 경우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잘못 표현해서 가지고 이게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3심 가서 결국에는 의원직 박탈 형까지 가는 그런 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내용이 그렇게 공공에 끼치는 해악이 큰가, 현명한 유권자라면 다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전에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현수막의 내용 같은 걸 보면 정말로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재계의 경제활동의 자유 이런 측면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려고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상식 위원 저는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이게 형법상의 배임죄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임죄도 구성요건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검사나 판사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유무죄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이 허위사실 유포죄도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고 판사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너무 극과 극으로 갈린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처벌하는 경우와 처벌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처벌하는 경우에도 그 구성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조금,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도 해서 가지고 뭔가…… 물론 이걸 일시에, 일거에 폐지하자 이런 말은 아닌데 대체적인 여러 가지 법조항을 좀 정비하시든지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표현의 자유하고 그다음에 그게 법에 저촉되는가의 문제는 워낙 복잡다단하게 현상이 벌어지는데, 구체적 적용하는 데는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의견의 제시, 가치 판단, 사실의 적시 이것하고는 완전히, 이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관사님들의 주관적인 판단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정확하게 해석해 줄 그런 사람들도 없고 관례도 전부 다 각각 관사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곧 객관적이어야 할 판결이 관사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또 좌우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식 위원** 하여튼 후보자님이 위원이 되시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전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니까 후보자님한테 여쭙 사안은 아닌데 혹시 가서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대충이라도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보지는 못했구요. 지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상식 위원** 좀 걱정은 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관위는 재해복구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식 위원** 그러면 과천에 있는 청사 전산시스템이 혹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곳에 백업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상식 위원** 아, 그런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특히 자료가 사전투표 관련된 통합전산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산 자료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별도로 재해복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백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식 위원** 후보자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화재 같은 물리적인 위협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 전산시스템은 또 다른 각도에서 조금 대비가 필요한 게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이 계속 어떤 해커들에 의한, 중국 해커들이 선관위 서버를 침탈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국정원에서 선관위 서버를 합동점검하는 과정에서 또 혹시 어떤 바이러스나 불순한 그런 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 선관위원이 되시면…… 이제까지 선관위가 사실은 헌법기관이고 아무도, 이거버너스가 굉장히 충분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인 문제가 끓아 가지고 자녀 부정 채용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는 위철환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해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위상 때문에 거버너스 또는 외부의 감시나 통제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참고로 조금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지난번에 국정원하고 KISA하고 합동으로 살펴봤는데 국정원 자체 자료에도 보고가 다른 해킹이나 이런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최종 결론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우선 후보자에게 축하드리고요.

저도 같은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옥외광고물에 의한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옥외광고물……

○이광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현수막 말씀드리는 거고요. 불법 현수막 문제를 오시기 전에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정당에서 옥외건물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는 상당히 선관위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국민들 보기에 좀 부적절한 경우가 꽤 있는데 그것을 선관위 자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철거까지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처음에 지난 대선 시기 앞두고 12·3 내란 이후에 이런 현수막이 허용되기 시작한 게, 그 이전에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거부감이 있다가 허용된 게 선관위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하면서부터 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그때 만약에 혐오표현이나 허위사실 유포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인신 모욕이거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당이 건다 그래도 걸 수 없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현수막 정당도 생기지 않았을 거고요.

저는 정말 여쭙보고 싶은데 중국 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들어 준 가짜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정부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그것 허위사실이지요? 가짜뉴스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중국 공산당이 선거 개입해서 대한민국 90%를 점령했다는 말을 믿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믿지 않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한다면서 대통령 사진을 옆에 걸어 놓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모든 책임이 선관위에 있었다. 선관위가 처음부터 이 사실에 대해서 엄정하게 선을 그었으면 이렇게 못 합니다.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선관위는 지금 빠져 있고 오로지 불

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뒷짐 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이번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믿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들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면밀히 내부 사정을 잘 검토해 보고 위원이 된다면 대처하는 방안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지난 12·3 내란 이후에 선관위에 정말 아쉬운 지점이 잘못된 판단 한 번이 이렇게 사회를 혐오적인 문구와 선동하는 이런 가짜뉴스로 도배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하셔서 이에 대한 선관위 차원의 대응을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구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광희 위원 두 번째는 지난 4년 전에 6·1 지방선거 때 무효표로 당선된 사람들이 508명입니다, 비례대표 포함해서. 비례대표를 빼놓고 나면 494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는데 요.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인데 이렇게 무투표 당선이 빈번하게 발생한 원인이 뭔지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보를 많이 구체적으로……

○이광희 위원 무투표 당선이 이렇게 508명이나 되면 선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영남과 호남에서는 그냥 정당 공천 하면 당선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광희 위원 또 무투표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관련 비용 보전이 다 허용되고 있어요, 10%만 받으면.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무투표 당선되고 돈도 벌고, 이게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무투표 당선에 관해서도 한번 혹시……

○이광희 위원 이걸 그전의 4년 전에 비해서 6배나 증가된 겁니다. 뭔가 제도가 잘못된 거지요. 잘못 설계가 된 겁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쭙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선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을 비롯한 각종 투표표 관계자들 수당이 현행법상 정액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 사무원 등은 선관위 시행규칙 별표를 통해서 수당이 측정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미달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력 모집이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령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더 심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실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 제도는 선관위 별표 규정을 통해서 수당을 조정하

고 있는데 그 권한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산 범위 이런 걸 좀 고려해서요 저희들이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민주주의의 꽃이 뭐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선거라고 봅니다.

○이성권 위원 선거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성권 위원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무래도 주권을 실현해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선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데 선거는 정당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게 되는데 선관위가 거기에 대한 심판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성권 위원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가 중립성이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우려들이 존재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성권 위원 그래서 외풍을 막기 위해서 헌법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도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성권 위원 첫 번째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혹시 지명을 받고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선관위 50년사’라는 책자 한번 읽어 보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아직 그건 못 봤습니다.

○이성권 위원 아직 안 읽어 봤습니까? 제가 중요한 대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뒤에 선관위 계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보면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출범 초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의 각 부처 연두 순시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순시하려 하자 행정부의 장이 헌법상 독립기관을 방문할 수 없다며 위원회 방문을 거절하여 독립성을 지키고자 했다’. 이게 선관위의 공정성과 그리고 중립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

때 당시에 사광옥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취했던 태도입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그 서슬 퍼런 군부독재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선관위가 이런 정신과 가치를 지켰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성권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그 서슬 퍼런 권력 속에서도 선관위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사람이, 절대 권력의 사람이 위원으로 가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선관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이력, 아까 너무나 좋은 이력이라고 소개해 준 부분도 있지만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변협 시절에 세월호특위 관련해서 수사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지요?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고……

○이성권 위원 그래서 역대 변협 회장들이 찾아와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방문하셨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성권 위원 그러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들을 대한변협의 역대 회장들이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윤리심판위원장을 맡으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이게 특정 정당의 사법기관에 해당되는 직책을 맡으셨어요. 편향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그때 캠프의 법률지원단장도 맡으셨고요. 그다음에 염태영 민주당 수원시장 선거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으셨습니다. 가장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행동으로 보여 주신 분인데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될 선관위 상임위원을 하신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예전 50년 책자에 나온 선관위와 오늘의 선관위가 왜 이렇게 변질됐지요,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이렇게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도와 주신 것 저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은으로서 다른 기관 가도 돼요. 한수원 가서도 되고 정부기관 많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선관위로 오지요? 후보자 스스로가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조해주 사태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들었습니다.

○이성권 위원 ‘들었습니다’가 아니고 선관위의 위원으로 오시려면 그 정도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의 임기가 상임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비상임으로 하려고 할 때, 관례적으로는 상임 임기 끝나고 나면 다 사퇴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려고 하자 선관위 직원들 그때 숫자가, 290여 명 직원들이 집단 반발 성명을 내고, 그래서 스스로 사퇴하셨어요, 조해주 사태. 이게 의미하는 게 뭘겠습니까? 그 정도로 선관위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태예요.

후보자님, 지금 이 정도의 현실을 보면 저는 후보자님이 스스로 대통령한테 ‘저 댄 데 좀 보내 주십시오’ 하고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소명을 드릴까요?

○이성권 위원 짧게 10초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해야 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여태까지 스스로 생각해서 특정 당원의 자격을 가진 일이 없었고요. 특정 당을 위해서 일한 바는 없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 얘기는 후보자에 대한 서면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당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편향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공정성……

○이성권 위원 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거리에 나가 보세요. 특정 정당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걸 핑계라고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신 걸 잘 알아듣고요. 제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지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선관위원들이 몇 명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9명입니다.

○이성권 위원 9명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성권 위원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이승택·정은숙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2시간 정도밖에 청문회 하지 않고 졸속으로 심사해서 되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박순영 위원 이분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조성대 위원 같은 경우는 새정치연합, 저는 정당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연구소의 준비위원도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경남도당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을 하고 조국 드루킹 사건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던 분이 지금 선관위 안에 계세요.

저 1분만 주면 추가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더 하세요.

○이성권 위원 8명 중에서 5명이 특정 정당과 연루성이 아주 높는데 거기에 다시 우리 후보자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맞을까요? 특정 정당을 위한 특정 정당의

산하기관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위험하다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본인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선관위 위상은 달라요. 스스로 그만둬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제가 소신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잘 반영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마지막 PPT 하나 좀 보시지요.

아까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칸 더 넘겨 보세요.

원조 부정선거 음모론자 누군지 압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성남시장 시절에 지난 대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던 그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와는 무관하게 되실 거지만 철저하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도 중립성을 가지고 음모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리고 이 정권에서도 이 정권을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꼭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엄정중립하고 공정하게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관리 할 수 있다고 저는 후보자님의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감사합니다.

○정춘생 위원 그리고 신뢰하는 만큼 더 공정하게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감사합니다.

○정춘생 위원 후보자님, 혹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몇 년 된 지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여 년.....

○정춘생 위원 예, 30년 됐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최초로 된 게 1995년이구요.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구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당시 야당 시절에 단식을 하면서 지켜낸 제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의 발현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만들어 낸 제도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방선거제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 계시다면 현재 선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던질까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저는 앞서 이광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선관위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선거제도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2년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 현황입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해서 약간 수치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483명, 비율로 보면 12.5%입니다. 이게 유권자들이 투표로 선출해야 되는데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정당에서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로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대표자라기보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나의 대표라기보다는 정당의 대표, 정당이 임명한 기초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현행 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보니까 저도 무투표 당선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정춘생 위원 몰랐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정춘생 위원 현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래서 국민의 대표성보다는 어떤 임명직 비슷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춘생 위원 지역별로 보면요 광주, 전북, 대구의 경우 전체 당선자의 절반 이상이 무투표 당선이고요.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런 수준이다 말씀을 드리고.

2022년 지방선거 기초 비례를 보면 대구에서 6명, 경북에서 15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특별하게 경북 군위군의 경우 2006~2022년 비례대표는 모두 무투표 당선입니다. 이것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개선 연구를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춘생 위원 제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면요 지방자치가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게 돼요. 지역 유권자들도 인정 못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중대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는 한 이 판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심각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를 다 독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점점점점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다양성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엄청 달라지고 있고 그런데 양당의 당선인 비율은 점점점점, 이 독식 구조가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2006년 77.9%였던 게 2022년 94.3%입니다. 중대선거

구제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소선거구제가 더 비용이 적게 들고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보다 개편해서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올해 정기국회를 넘기지 않고 개선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공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선관위원으로 임명되시면 이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런 문제점은 의견서를 다양하게 수렴해서 입법하는 데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물론 이런 견해를 밝히는 의원님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많습니다. 임미애 의원께서도 그렇고 이광희 의원님도 관련 법을 냈고 저도 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어요. 해당 기관인 선관위에서 ‘이 법이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좀 나서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지켜 낸 지방자치가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로 깨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중앙 단위에서는 정치적이슈로 크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로 가면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정책 이슈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을 살리는 이런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중앙 단위의 진영 논리가 지방까지 다 뻗쳐 나가요. 정당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도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이 되시면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각 정당에 어필을 하시고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올리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감사합니다.

○**이해식 위원** 지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 특히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 윤건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통령 지지단체의 부의장을 지낸 강경근 상임위원이 임명된 적이 있고 또 나라선진화·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의 부의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BBK 특검 반대 촛불집회도 하고 이명박 지지 선언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박근혜정부 때도 한나라당 윤리위원 출신인 최윤희 위원이 선관위 위원에 임명이 됐고 그리고 2014년 2월 달에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원 이사를 지낸 김용호라는 분이 또 선관위원으로 임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가 삼부 추천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입법 사법 행정에서 각각 3명씩 추천을 하는데 이때 국회는 선출한다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국회는 선출한다고 그러고 대통령은 임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국회는 선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국회는 또 여야가 공히 추천을 하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선관위원이 민주당 성향의 사람을 추천할 리는 없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국민의힘 의원 성향의 사람을 추천할 리는 없잖아요.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결국은 자당과 가까운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다. 하는데 다만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본회의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 것이지요. 선출되는 순간 사실은 그 중립성은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전혀 동떨어진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닮아 있는 사람 그리고 국정철학, 국정철학이라기보다도 선관위원으로서 정말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임무를 잘 수행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 그것도 중립성이 확보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공무원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공무원으로서 중립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헌법이 그렇게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다만 위원으로 되신 이후에 그야말로 선관위원으로서 독립성 중립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야당 위원님들의 다소 좀 지나친 그런 요구나 주장에 대해서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100% 순수한 중립성 독립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서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어떤 사안 사안마다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의결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는 과거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정당활동을 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당원도 아니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한 번도……

○이해식 위원 윤리심판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헌에도 있지만 완전 독립기구이고 비당원이 하는 것이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자격과 능력 관련해서 추호의 의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으로 선임되는 과정 이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고 또 선임되고 나면 부여받는 어떤 책임이랄까, 공정성 중립성의 책임 이런 것을 위원으로서는 엄중하게 지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이해식 위원** 다른 것을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가 지난 2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 내용의 결론에 대해서는 들은 바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해식 위원** 주로 채용비리 이런 것에 집중이 됐지만 그 외 분야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특히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관련해서, 시도선관위에 상임위원이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해식 위원** 시도선관위에 상임위원은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시도선관위가 몇 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총 18개라고 합니다.

○**이해식 위원** 18개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해식 위원** 광역 단위가 17개인데? 17개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17개.

○**이해식 위원** 그런데 지금 1급은 몇 자리입니까? 상임위원 17명 포함해서 20명으로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맞아요?

뒤에 있는 분, 국장님들 몰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21명이라고 합니다.

○**이해식 위원** 21명입니까? 그 뒤로 또 1명이 는 모양이네요.

하여튼 이것은 한번…… 아, 4명이라고 하니까, 상임위원 아닌 자리가 네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21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원은 모두 내부 출신 인사로만 돼 있는데 원래 이게 선관위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내부 인사로만 하게 돼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 구체적인 규정은 자세히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법조 경력, 예를 들어서 검사·판사·변호사 5년 이상 그리고 학교에서 예를 들면 행정학·법학 이런 걸 전공한 그런 교수 출신 그리고 선관위에서 4급 이상입니까, 4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선거 및 정당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원의 임기가 몇 년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보통 비상임은 6년이고 상임은 3년으로 통상 이렇게 중앙선거관리.....

○이해식 위원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6년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6년인데 관행으로 상임은 3년을 한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의 경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해식 위원 중앙선관위는 상임위원은 3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상임위원이 중책이니까 아마 잘라서 연임할 수 있어서, 한 번 연임하면 6년이 되잖아요.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대리 윤건영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연임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관행상 3년 하던 거의 물러나는 경우가 관행이라고 합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헌법에도 위원 임기는 6년으로 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게 헌법에 돼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다만 상임위원을 이렇게 임기를 잘라서 3년으로 하고 또 시·도 선관위원도 상임위원은 3년으로 하다가 22년도에 이것을 2년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일괄적으로. 2년으로 축소한 이유가 내부 직원들,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인사 적체.

○이해식 위원 지금 이 17개 자리 포함해서 21명의 상임위원을 전부 내부 직원으로 하는 것 이것 정말 온당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법적 취지하고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조직에 비해서, 물론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가지고 전체 직원 숫자 대 너무 많습니다, 고위직이.

그리고 2급·3급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감사원 결과보고서에도 나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급·3급을 보하도록 돼 있으면 2급만 몽창 보하고 3급·4급 같이 보할 수 있는 자리를 3급으로만 다 몽창 보했어요. 그래서 고위직군을 많이 늘려 봤거든요. 이게 어떤 구조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찾으려면 내부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이렇게 마치 특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개선책을 찾아 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후보자님, 위원으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먼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 중립성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하도 많이 나와서, 청문회 전부터 누구와 친하다더라, 누구와 사시 동기라더라, 누구와 밥친구라더라 이런 친소관계로 후보자를 평가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돼 있고요. 선관위법은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 정치에 관여할 때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원으로 임명되시면 정치활동 안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안 하실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한병도 위원** 그래서 경력을 근거로 후보자를 재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안위가 단호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 좀 특이하기도 하고요.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요. 보니까 16살에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셔서 생계를 이어 가고 구두닦이도 하시고 신문배달도 하시고 고등학교도 야간 다니셨고 편입한 대학교에서 야간으로 다니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이렇게 법조인이 되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재이셨던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삶의 과정을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공정한 경쟁 시스템의 중요성을 삶을 통해서 더 많이 몸으로 체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후보자님이시기 때문에 선관위 고위직 채용비리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명되면서 이 과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염려 또 다른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지 제가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관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거기 직분에 맞는 그런 행위를 하고요. 그전에도 제가 살아오면서 편향되게 어떤 양심이나 정의나 가치에 반해서 특정 단체를 지지한다거나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치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수원지방변호사 경기도 회장 할 때도 그 당시에 보수정권의 지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무한돌봄사업도 하고 또 무료법률상담, 수원역이랄지 경기도 내에서 같이 하셨고요.

또 아까 세월호 사건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때도 사실은 제가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진상도 규명하고 도와준다 이런 의미로 한 1000여 명 위원들 변호사님들 전부 경내 모시면서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고요. 그때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보수정권 대통령님으로부터 그 당시에 국민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하다 보면 또 그쪽만 뺏으면 제가 어떻게 보면 보수정권하고 친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병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립을 잘 지켜 주시고요.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고위직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채용비리 사건 이후에 개방형 감사관도 임용을 했고 면접위원 100% 외부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또 시험위원 회피제도 도입 등 대책도 마련을 했고요. 지난 달부터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출범을 시켜서 선관위 내부적으로 선관위 고위직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관위 자체적으로 이만 하면 됐다라는 평가는 저는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비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대책 외에도 선관위원이 되시면 각별히 관심 가지고 계속 대응을 해야 된다. 특별히 관심 가지시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채용비리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국민들이 정말, 특히 청년들은 취업에 관해서 민감합니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지 입사를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절대 채용비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 명심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리고 저도 선관위 국정감사할 때도 그렇고 현안질의할 때도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부정선거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회를 아주 극단화하고 이성이 통하지 않고 과학과 증거가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면서 사회를 갈등으로 불어넣고 있고 지금 소송도 또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 비용으로만 2억 8600만 원 혈세가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사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보니까 250만 표의 어둠의 몰표가 나왔다,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한 개표 조작이 있었다, 중앙선관위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유포했다는 사유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구요. 전부 패했습니다.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고 각하됐구요. 남은 41건도 저는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핵심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게 핵심인데 이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선관위에서 좀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2025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 투표지 반출 사례 같은 선거사무 미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에 대해서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무에 대해서도 완벽한 선거사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걸 살펴봤는데 여태까지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전부 다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이미 법원에서 판결한 걸 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래도 사소한 거라도 조직에 조그마한 실수가 있으면 이게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또 의심스러워 하니까 그 부분이 없도록 불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정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철승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으로서 중립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측면으로 봐서 위원으로서 첫째 조건은 역시 선거업무 수행에 있어서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권철승 위원 그다음이 업무 능력이나 조직 장악력, 장기적인 안목 등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양심이라고 하는 게 직업적 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권철승 위원 인성이 좀 안 좋은 사람이라도 양심이라고 부르지요, 그때는. 정치적 소신과는 분리되는 직업적 양심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심에 있는 정치적 소신이라든가 철학, 세계관 이게 진짜 중립인 사람이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권철승 위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이고, 선관위원으로서 선관위 업무를 함에 있어 중립이라는 것을 요구한다 그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중립적으로 하라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주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권철승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중립적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앞으로 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립성을 의심받는 그런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런 문제 제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야당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쿨하게 수용하십시오. 향후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립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다지는 자리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교사 출신이시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래서 여쭙보는데요, 교원의 정당 가입 문제에 대해서 혹시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신문기사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나라에서는 또 일부분에 관해서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그런 게 논의가 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선 국민들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입법적으로 아마 해결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거지 ‘교사 당신들은 정치활동을 하지 마라’ 그렇게 제어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은 조금씩 더 넓게 포용하는 방식으로 선관위도 입장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근 선거현장에서 부정선거 감시를 명분으로 해서 일부 단체들이 폭력적, 불법적 행위들이 있습니다.

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투표를 하고 나온 여성을 뒤쫓아 가면서 ‘띠가 어떻게 되느냐’, ‘손으로 숫자 한번 세어봐라’ 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뭔지 혹시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것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권철승 위원 저게 중국인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거랍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것을 얘기를, 보도는 들었습니다만 저 화면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권철승 위원 또 ‘사전투표’ ‘부정선거’ ‘중국인’ 이런 해시태그를 붙여서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한국어 테스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권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을 강요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자가 경찰까지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 명백한 선거 업무방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보니까 선거의 자유 방해다 해서 입법 발의한 것도 봤습니다.

○권철승 위원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괜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행위를 해하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권철승 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권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좀 단호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행위들이 개인의 돌출적 행동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게 더 심각한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올려 주실 수 있나요.

자유대학, YFF 이런 단체들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감시단을 모집하고 이런저런 불법 지침들을 공유하는 사실들이 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인 투표 개입설 이런 음모론이 있는 것도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권철승 위원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중국인을 고용한다 이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 있는데 그것 기억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권철승 위원 이게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헌재가 왜 중국인을 고용하느냐. 정신 차려라’ 이런 식의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헌재 공보관이 중국인이라고 하는 루머도 엄청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출범 이후에 단 한 번도 중국인을 고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적인 선거 방해 행위 또 의도적인 부정선거론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철환 내정자에게 저도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돈 없는 후보도 선거에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비용의 일부, 전부를 보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공영제는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선거운동의 방식을 법에서 하나하나 세세한 규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원은 몇 명, 인쇄물·소품의 규격까지 센티 단위로 다 규정하고 있어요. 그 틀 안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오늘날 홍보 수단과 방식이 크게 다양해졌지만 수십 년 전에 규정된 선거운동 방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공영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런 방식이 지금 시대에 맞는지 근본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제가 그동안에 청문 준비하면서 공부하기로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관련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옛날보다는 지금 돈이 조금 덜 들어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돈 없는 분들은 선거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누구나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정직하고 훌륭한 분들이 국가의, 정치의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하되 그 범위 내에서는 좀 더 개방적으로 규제를 운영하자 이런 뜻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후보자가 창의적인 선거운동 아이디어가 있어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어떤 후보자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현수막 쓰고 싶지 않다 또 이웃에게 굉장히 폐를 끼치는 방송시설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이를테면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실용적인 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세세한 꼬리표까지 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외에는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선거공영제가 굉장히 형식 논리에 많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거비용과 한도는 철저히 규제하되 정해진 비용 안에서 후보자들이 좀 더 다양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후 보고는 정확하게 하고 초과지출을 처벌을 정확하게 하면서도 선관위가 늘 이야기하듯이 돈은 묶고 입은 열고 이런 취지에 맞게 선거공영제를 좀 더 운영해 달라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말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선거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공영제와…… 위낙 요즘 기술적으로 디지털시대가 돼 가지고 허위 사실이랄지 딥페이크 이런 것이 아주 난무하다 보니까 아마도 규제 중심으로 점점 강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하면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출마도 할 수 있고 훌륭한 분이 입후보해서 당선이 되고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우리도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전문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도 들어서 선관위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이상으로 본질의의를 마치고요.

보충질의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후보자님,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그것하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를 억지로 연결을 시키면서 가짜뉴스로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 한복판에서는 무비자 입국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반중 집회가 열렸고요. 또 SNS에는 중국인이 학교 앞에서 칼부림을 할 거라고 해 가지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까지 갔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화재나 중국…… 들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현수막 때문에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괴담과 혐오 선동 이게 좀 심각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일부 당 일각에서 제기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인데 이게 자가발전해 가지고 계속 재생산·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 하면 예비후보자 하고

그러면 한 12월, 1월부터 아마 120일 규정이 적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선거법상 여러 가지 제한이나 규제가 있을 텐데, 지난번 대선 때도 그런 걸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때 이런 부분을, 혐오 선동이나 가짜뉴스, 부정선거 괴담이 진짜 선관위 선거 업무의 공정성, 신뢰성 또 우리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는 선거제도—헌법질서의 가장 핵심이 선거제도잖아요—그것을 형해화할 수 있는 그러한 위협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선관위원이 되시면 이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해법이나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후보자 위철환 부정선거 선동이나 혐오, 가짜 뉴스 퍼뜨리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또 그분들의 배후에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로 그분들도 과연 그 내용을 믿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절대 우리나라 사회에서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선관위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원인 분석도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관해서는 아직 제가 완전히 조직이나 업무 파악이 다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여러 다른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나 사무 공무원들을 전부 모시고 제가 잘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하여튼 후보자님께서 단호하게, 법률가시니까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해법이 있는지…… 이게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선거 이후로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 피해입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 신뢰 회복, 공정성입니다. 지난 자녀 채용 비리, 투표 관리 부실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있었고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에 의해서 선거사무 정당성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관위 내부에서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가지고 인사 감사, 이런 선거 절차에서 혁신을 한 점에 있어서는 다행이지만……

그런데 선관위 위원들, 그러니까 시·도선관위나 중앙선관위에 있는 선관위 위원들 또 광역이나 시군구 위원들도 국민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강릉 지역의 선관위원 아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추천으로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실 아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후보자 위철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 특혜 시비와 공정성 논란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위원이 지역 정치인과 친분이 돼 가지고 그게 권력이 돼서 사적 이익을 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중앙선관위원과 시·도선관……

1분만 좀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채현일 위원 중앙선관위원과 시·도선관위원 임기에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시·도선관위 위원 임기는 6년인데, 선관위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임 규정이 없고요. 다만 구·시·군 선관위원 임기는 3년이 되는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입법의 흠결인데, 그런데 시·도선관위원 중 2회 이상 연임한 위원이 전체 인원 102명 중에 24명으로 23.5%입니다. 울산의 선관위원은 네 번 연임한 사람도 있고 전국에서 3회 이상 연임한 사람이 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관위 내부적으로도 법 개정이 필요한데 선관위원의 연임 이런 제한 문제 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위원이 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후보자님께서 대통령과 같이 같은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데 대해서 ‘맞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헌법에 명기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치에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답은 안 들겠습니다.

PT, 오전 중에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기세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가 몇 분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희가 수료할 때 한 280~29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200명 정도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난 뒤에 일곱 분을 고위직에 임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님도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 가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다음에 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입니다, 일곱 분. 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판에 이렇게 많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려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셔야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변호를 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후보자님이 변호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다른 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범수 위원 예, 통상적으로 저렇게 많은 재판에 저렇게 호화로운 변호인단을 고용했으면 변호사 비용은 많이 안 들었겠느냐……

다음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줄어들기는커녕 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 업무도 아니고 관여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변호사 비용을 대신 줬든지 아니면 ‘내 변호사 해 줘. 내가 대통령 되면 한 자리 줄게’ 해서 한 자리 준 것 아니냐. 지금 완장 차고 칼춤 추고 있는 특검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건 딱 부러지는 매관매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일체 그런 것은 선을 긋고 여태까지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서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오직 거기 우리 간사님께서 써 준 것……

○서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보듯이 정약용…… 썼습니다.

○서범수 위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틀어 보시지요.

어제 우리 국민의힘 진중오 의원께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제보된 내용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후보자님, 이것 들으시면서 정당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법하면 형사적으로나……

○서범수 위원 바람직한 게 아니고 수사를 해야 될,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위법성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해야지요, 여당·야당 가릴 것 없이. 선관위도 조사해야 되고요.

○서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시고 난 뒤에 네 분이 낙마를 했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그다음에 강준욱 통합비서관 한 분, 이진숙 교육부장관,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네 분이 낙마를 하셨거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네 분들이 다 그 부처 내지는 부서의 핵심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 사람들이 다. 예를 들면 여가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됴데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셨다든지, 이진숙 교육부장관님은 연구윤리 제고라든지 공교육을 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예.

○서범수 위원 제고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오히려 사교육을 시켜서 조기유학 보냈고 논문 표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후보자님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 선관위의 선거관리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지만 외견상으로 보이는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과연 우리 후보자께서 정치적 중립, 가장 중요시되는 정치적 중립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판단하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본인의 거취를 잘 판단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제가 중립성·공정성을 위해서 열심히 염려 안 되게 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마음속에 잘 새기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방금 다시 한번 선언하신 것이지요? 정치적 중립성에 일체 의심이 가지 않도록 확실히 중립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확고합니다.

○한병도 위원 확고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여론조사 관련된 것 한번, 요즘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보니까 갈수록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증가가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기 위한 과정보다도 어떤 선거운동 방법 중의 하나로 부각이 되면서 여론조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선거 여론조사 결과 등록 건수가 제7회 지방선거는 1427건, 8회 지선은 1886건, 21대 총선 1122건, 22대 총선 1994건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 대선은 탄핵으로 인해서 선거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는데요 498건이나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공표가 되면서 여론조사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또 건수도 늘면서 선거 여론조사 심의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선관위의 역할도 저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 이런 제도적 허점을 노린 여론조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횡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김건희 내외와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여심위에 신고도 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수행해서 조사 결과를 임의로 조작을 했습니다. 후보자 지지율이 엇가락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민심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제공받은 후에는 조사비용을 납부하는 대신 국회의원 공천권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일명 명태균 게이트 이런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저는 부정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 위원으로 취임이 되시면, 이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두텁게 좀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교묘하게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를 공표는 하지 않지만 교묘한 문항을 이용해서 조사만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고 대상의 예외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여론조사 신고 자체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어서 가령 정당이나 아주 공인된 여론조사기관만 신고 예외규정을 뒤야지 모든 사람들을 다, 영리 목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하는 분들까지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하는 폭이 너무 넓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선관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외부 전문가들도 논의하는 데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이게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안심번호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질의 내용을 첫 번째에 넣는지 가운데에 넣는지 후에 넣는지의 데이터값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지지자들은 불리한 내용을 여론조사 앞에서 물으면 반대하는 내용만 나오니까 전화를 끊어 버리는 겁니다. 뒤에 결괏값을 내면 그러면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괏값이 나오고, 이런 어떤 부정의 방식이 아주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관위 내부 논의에 이런 경험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참여를 해서 그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아침에 이자소득에 비해서 예금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답변이 ‘오늘 인사청문회 기간이라서 오늘 자료제출이 어렵고 추후에 하겠다’ 이렇게 저희 의원실로 연락이 왔는데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는 오전에 요청하면 오후에 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등록 준비를 다 하셨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다 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서류가 있으실 거고 보증금 반환 영수증이라든지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서 준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인사청문회 기간이라 오늘 중에 못한다 그것은, 원래 인사청문회 그렇게 안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자료를 확보하는데, 제가 은행을 가야 되거든요. 그게 금액이 좀 큰 단위라서 이런 걸로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직접 가야 되는데, 본인 아니면 그것은 발급이 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런 사정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오면, 인사청문회는 지나가면 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면 오후에라도

성실히 내셔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아시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저녁까지라도 되면 저희들이 의원실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PPT 다시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제가 테스트로 말씀드렸던 건데 저 2개 현수막이 2개 다 허용이 된 건데 저 2개가 다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상식으로는 진실이 아닙니다. 허구예요, 둘 다. 허구인데도 허용한 이유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제가 그걸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음에 조금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아는 지식은 저런 게시물이 그때 시기하고 또 선관위에서도 중앙선관위에서만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지방에서도 하고 그것이 중앙으로 올라오면 해석이 또 시기하고 맞물려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선거 시기, 대선 전이나 또 탄핵 전이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래요.

○박수민 위원 그래서 요점은 중앙에서 많이 중심을 잡으셔야 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탄핵과 내란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안 되지만…… 대통령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 현수막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실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둘 다 허구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주장 표현의 자유로는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수민 위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택해야 되실 게 중립성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엄격하면 같이 엄격해야 되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시려면 같이 하셔야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또 전문가들이, 아홉 분의 위원들이 모든 분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니까요 합의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예, 상의하셔서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인사청문회 날이라서 제가 평가를 드려 보면 지금 준비되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 보면. 그런데 아슬아슬해요. 왜냐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저런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부정하셨으면 아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진실 관계나 정과 관계를 중립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아슬아슬해요. 제가 보니까 법률가로서 법률적인 것을 다루는 것, 유권자로서 정치적 자아의 문제 이런 것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립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는냐의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오신 흔적은 제가 못 느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답변에 있어서 수용성을 좀 보이셨기 때문에 아슬아슬하지만 제가 좀 관찰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법적 잣대를 떠나서 정치적 잣대나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도 제가 좀 더 공부도 하고 또 많은 토론도 하고 책도 보고 해서 옛날 사례 같은 걸 연구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부정선거의 문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데, 부정선거 오늘 많이 말씀 주시는데 선의의 믿는 사람이 있고 악의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악의적으로 부정선거를 믿고 활용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악의이기 때문에 그건 또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의의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진보에서 시작돼 가지고 보수로 넘어오는 음모론인데 이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렇지요.

○박수민 위원 그래서 선의로 믿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잘못하신 부분이 꽤 많아요. 제가 보면 선관위의 설명이나 이런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짝박하고 오해 유발도 이미 몇 차례 했고 또 동시에 설명 자체에 대해서 자기 업무라고 안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후보자는 이 선의로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답변 좀 줘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일부 정치적 목적이나 또는 자기의 영리 목적으로 선동하는 분들이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꽤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의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라고 보고요. 진짜 선량한 많은 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그것을 믿고서 선거운동하는 데 모금하는 데도 응하고 적극적인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제가 취임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청문 준비하면서. 아니, 도대체 아니면 그것을 언론 또는 홍보 수단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 다 부정선거 없고……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냐. 진실하다고 ‘나는 깨끗하다. 부정선거 없다’, 선관위가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문제다. 적극적인 홍보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제가 후보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이걸 중대한 문제 아니냐, 국력 낭비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게 되니까 이걸 문제다 그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국민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홍보책을 많이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한 분만 더 하고……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정책질의를 후보자님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요즘 IT 기술이 발달하고 또 AI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딥페이크를 활

용한 선거 영상 또는 일종의 상대를 음해하기 위한 영상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보고받으셨거나 아니면 스터디가 된 내용이 있으실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게 우리 선관위의 3대 해결 과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용비리랄지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 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디지털시대에 딥페이크랄지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랄지 여러 가지 음모론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척결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큰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작년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게시물도 단속 대상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선관위에서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SNS 운영사에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삭제율이 대단히 낮아요. 어떤 경우는 50~70 내외의 삭제율이 되는데 좀 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 관리에 대한 주무기관으로서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것은 정말 똑같이 보이는 거고 한번 돌아 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 텐데요.

혹시 세부적인 내용이라 모르시면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바로 답을 주셔도 되는데, 지금 선관위 청사 주변 관리에 있어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직원에 대한 협박이라든지 무단 침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거기에 대해서 자체 경비대 이런 것을 준비를 한다 이런 정도만 들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누구 한번……

○**윤건영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준비는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체 경비에 대해서.

○**윤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투표사무에 대한 방해행위입니다. 광의로 보면 선관위에 대한 물리적 위협도 투표사무에 대한 방해행위이고요.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예를 들어서 투표함을 훼손한다든지 투표 진행을 방해하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투표함 훼손이 1411건이고, 투표 진행 방해가 846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한 것은 각각 4건, 28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1411건 중에 4건, 846건 중에 28건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사무를 방해하는 것은 선거, 즉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봅니다. 이런 데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선관위의 권위가 무너지고 선거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표사무 방해행위뿐만이 아니라 선관위에 대한 물리적 위협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경

비에 관한 문제 또 투표사무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살펴보고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게 건강 상태나 소란 정도, 고의성 유무 등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수사의뢰, 고발의 건수가 적다고 하는데요 그럴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 구성요건입니다. 선거에 도전하는 것,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단호함의 근거에는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해서 잘하셔야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기본이고요. 그래서 선관위가 보다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원칙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허물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이달희 위원** 계속하시지요. 저 좀 하고……

○**위원장 신정훈** 이왕…… 지금 바쁘십니까?

○**이달희 위원** 예, 바쁩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후보자님, 여러 질의를 들으시면서 또 생각하시게 되는 지점들이 많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경험도 많으시고 법조 경험도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공부하셔야 될 것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 관리, 선관위. 선관위의 역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뭘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선관위라고 그래서 선거라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되고 114조 1항에 보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선거나 방금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정당에 관한 사무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뤘던 것 같은데요 국민투표 관련된 내용도 선관위에서, 특히 중앙선관위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공감합니다. 지금 국민투표에 관해서도 재외투표나 이런 문제가 조금 공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시야 자체를 절대 스스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원래 주어진 임무,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겨 주시는 위원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모경종 위원** 언론 보도를 하나 제가 보고 왔는데요. 지난 대선, 이번 대선에서 선관

위가 관계기관에 삭제 요청을 한 딥페이크 영상이 96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총선에는 388건이었는데 불과 한 1년 만에 25배 가까이 폭증을 했습니다. 이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요즘은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 역시 마치 제 목소리처럼 만들 수도 있고 후보자 다른 후보자처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고도화된 AI 기술에 과연 우리 선관위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가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선관위 자체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런 조직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양하고 미묘하게 복잡하게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래서 선관위는 과거에 얽매어 있어서도 안 되고 현재에만 안주해도 안 되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대응 못 하면 또 어쭙잖은 기술들을 언급하면서 부정선거 운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폐쇄되어 있는 망에 접속을 했다느니, 누가 들으면 기술이 엄청 발전했으니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선관위가 앞서 나가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선관위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선관위원후보자께서 위원이 되신다면 꼭 그 지점을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다들 정당 현수막 이야기들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현수막 장사,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장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선관위의 업무 분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의 업무분장 또는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현수막에 관해서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 정말 내용상 문제가 있는 현수막이 걸렸을 때 중앙선관위 위원님께서 직접 가서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결국은 신고나 문제 제기가 각급 선관위로 들어갈 텐데 그 지점에 있어서 어느 시도에 있는 선관위는 이렇게 판단하고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선관위 전체 조직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지 어떤 지역은 이렇다, 저쪽 지역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우선 일차적으로 지방의 시도선관위에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한쪽 민원인이 불복을 하게 되면 또 중앙에서 판단을 한다고 그러니까.

○모경종 위원 그게 이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중앙선관위에서 관련된 규정을 정확하게 내려주면 17개 시도에서 똑같이 할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런 것 기존에 결정이 된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뒷북치는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앞서나가는 중앙선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감사합니다.

○모경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후보자님, 저는 두 번째로 국민적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국민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우리가 홍보가 쉽지 않다는 이 자체가 너무 선입관 같아요. 저는 부정선거는, 그동안 제가 정당 선거사무를 많이 종사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부실선거의 단초가 주어져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모경종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런 신기술, 데이터 서버 시스템 이런 신기술을 충분하게 우리가 홍보를 하지 못해서 작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을 영리 목적으로 누가 던져도 국민들께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적인 이해를 홍보가 부족해서 충분하게 득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확산이 됐다면 그 원인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겁니다.

후보께서는 우리 선거인명부 시스템에 몇 명이 등록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선거인단 수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몇 명이었을까요? 4439만 1871명이 우리 선거인단 수고 그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지 않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달희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우리 개인정보, 이달희는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

○이달희 위원 모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보세요. 상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되실 분이, 후보자도 그 서버에 뭐가 있고 선거시스템은 어떤 경우에, 사전투표할 때는 어떤 자료는 어디서 와서 우리는 어떻게

인지해서 경찰청의 지문하고 어떻게 대조해서 어떻게 하고 누가 물어도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전 국민이 봤거든요,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 서버에 캐비닛처럼 짝 있는데 저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딱 한 명이 관리한다고 하니, 그리고 이번에 국자원의 이런 사태를 보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작은 영리 목적으로 기술적인 얘기를 탁 던졌을 때 우리가 상임 선거관리위원도 그 안에 이달희라는 사람의 서버 안에 어떤 정보까지 들었는지 그것도 나오셔서 설명 못 하는데 어떻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공부 다 하고 오셨다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 부분까지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민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쉽지 않다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적 시각에서 거꾸로 봐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사전투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채용비리라든가 부정선거 음모론, 딥페이크 이런 3대 과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음모론을 제공하고 이런 분들 시각에서 거꾸로 올라가서…… 여당 위원님들은 한 명, 한 명 그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걸 왜 다 해야 되느냐 하는데 사실은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지금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세 가지 정도 범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술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도용에 대해서 국민적 불식을 시키 시려면 이 시스템에 대한 도식을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께서 저렇게 저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안전하구나 그리고 얘기하는 그 서버는 아주 안전하구나.

그리고 제가 법을 낼 건데요. 1년에 한 번쯤은 우리 모든 시스템과 서버가 오염되지 않더라는 걸 예산을 확보하셔서 점검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어떠 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좋은 고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검증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좋습니다.

○이달희 위원 30초만……

저희들이 검증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서버가 4400만 명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 해외에서 우리 서버 가지고 우리 한국인들 채용해서 보이스포싱, 스미싱 정말 많은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런 부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데이터가 전혀 청정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PPT 자료 한번 띄워 보면 1년에 매년 2만 건 이상의 사이버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만.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PPT 자료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에서 25년까지 사이버공격 시도 현황을 보면 매년 2만 건 이상의 사이버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국정원에서 지난번에도 선관위가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받았고 저는 봤습니다. 국정원에서도 발견되지 못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번 다시 검증하고 난 뒤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더 철저히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법제화를 하시자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법제화 의견을 저희들도 적극 연구해서 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좋은 의견을, 법안을 내주시면 저희들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시 회의장 정비를 위해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PPT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졌어요? ‘중국 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들어 준 가짜 대통령’, 우측에는 ‘선관위가 만들어 준 대통령’, 이게 허위입니까, 진실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허위라고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허위라고 생각합니까? 허위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제가 아는 한 허위입니다.

○**양부남 위원** 허위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양부남 위원** 그러면 이런 허위사실의 내용이 플래카드를 통해서 현재도 이게 다 게

침이 돼 있어요. 제 지역구인 광주 서구율에도 이런 플래카드가 많이 게침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안질의 할 때도 여러 번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선관위 답변은 이래요. 이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다, 그래서 현 법체계에서는 어떻게 선관위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유권적 해석과 어떠한 가치 판단이 부여되는 것은 몰라도 이건 명백하게 허위사실인데도 이러한 허위사실이 시내 곳곳에 나붙은 것에 대해서 과연 선관위가 그런 답변으로 속수무책으로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당사자인 선관위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당사자인 선관위가. 이렇게 되고 있는 데도 선관위가 입법 불비를 주장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플래카드를 붙인 정당을 보면 별로 제가 들어 보지 못한 정당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정당 등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 장에 얼마인데 몇 명씩 할 거라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 이러한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침하고 싶은데 그게 정당의 표현의 자유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가지고 희한한 당의 이름으로 이렇게 게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걸 두고 봐야 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제 생각은 저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나 사회 전체, 선관위, 국회 또 각 정당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척결하도록 시정하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국회에서도 입법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런 걸 이용해서 모금을 하고 정당 현수막 장사를 하는 내일로미래로라는 가짜 비슷한 정당이 있다고 합니다.

○양부남 위원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러한 게 백번 천번 양보해서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 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뭐든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범죄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공직선거법을 저희들이,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입법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지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방금 말하는 그러한 당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철저한 수사를 하셔서 개인이 이러한 허위 사실 플래카드를 게침하는 데 처벌받는 걸 피하기 위한 그러한 탈법적 행위를 끊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건 정당활동을 형해화하는 행위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님께서서는 대한변협회장도 하였고 수원변협회장도 하였고 법조인으로서 훌륭하게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후보자가 되셨어요. 선관위 위원이 되시면 선관위 가서서 뭘 하고 싶습니까? 뭘 하고 싶어서 선관위원후보자가 되셨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현재 국민적으로 부정선거 때문에 상당히 피로감이 있습니다. 또 일부 국민들은 분개하고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관위 책임인지 정치권에서 소임을 다 못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아무튼 평소에 그런 부분에서는 선관위 자체 내의 직원 비리 보도도 분개하지만 선거 부정 관리가 왜 저런 오해를 받는지, 진실이 일부 있는지, 사실상 저로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고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68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변협 협회장까지 한 사람이 무슨 미련이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그래도 일익이라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척결에 도움이 된다면 뭔가 국민들한테 의심을 불식시켜 주고……

저는 여당 야당 편들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심정이. 누가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편들고 싶지도 않아요. 뭔가 도움이 돼서, 지금 야당이 여당 될 수도 있고 여당이 야당 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을 항상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정한 뉘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봉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이루고 싶은 게 솔직히 제 심정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 간사님께서서는 저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투명성·중립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양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좋습니다. 후보자님, 그러한 소신이 꼭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후보자님,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법조인으로 생활을 바꾸신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고동진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굉장히 자수성가형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36년간 법조인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다양한 사건을 맡아 오셨는데 변호한 사건 중에 가장 후회가 되는 그런 사건들 있어요, 변호한 사건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사실은 아무리 억울해도 또 열심히 변론을 해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또는 법리적 견해가 달라서 아쉽고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상 말씀은 전부 다 못 드립니다마는……

○**고동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인사청문요청 사유에 ‘변호사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법조계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

다. 그 부분을 제가 부정을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실제로 수임하신 사건에서 부정 채용, 횡령, 성비위, 음주·무면허 운전,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과는 좀 거리가 먼 사건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요. 이걸 다 기억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고동진 위원 기억이 안 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전부 다……

○고동진 위원 PPT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부정 채용 같은 경우에 원고 측 변호를 보셨는데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됐고, 두 번째 그 횡령 사건은 피고 측 변호를 맡았는데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 성비위에 대해서는 원고 측 변호를 맡았는데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특히 부정 채용 문제는 채용비리 사건 판결문을 보면 2022년도 선관위를 뒤흔들었던 아빠 찬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이것마저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후보님을 개인적으로 흠집을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는 무슨 사건이든지 어떤 청구인의 의뢰가 있으면 다 말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 채용, 횡령, 성비위 이런 사건들이 딱 눈에 들어오니깐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어떤 정치적 중립성과 이것은 기본이고 도덕성·청렴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관리를 수행하는 헌법기관 구성원인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님도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후보자가 선관위원, 특히 상임위원후보자로 나오신 만큼 이러한 변호사 시절의 수임 이력은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 측면에서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한번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근본적으로 변호사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피고인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피고인 죄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런 죄인들을 왜 변호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협회장 하고 나서도 서울의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사실은 시골에서 민초들과 변호를 했는데 그 죄명에 관해서는, 지금 청주 그런 사건도 제 아주 가까운 친구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동진 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 제가 또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말씀하십시오.

○고동진 위원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에 다양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위공직자시니까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의 여부는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고동진 위원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이런 분이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되실 수 있지?’라고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문의를 한다면, 저는 국민을 대변해서 여쭙보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말씀……

○고동진 위원 짧게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는 내부 도덕성이라든가 직업윤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고 특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비평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선관위의 어떤 도덕 불감증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해 스스로 어떤 해명을 좀 확실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러한 기준이 높은 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관위원으로 임명되는 게 옳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은 잘 아꼈습니다. 그러나 또 스스로 생각건대 제가 어떤 변호를 아주 양심에 저버리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 누가 봐도. 저는 지방회장이거나 대한변협 회장 할 때,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그래도 여러 가지로 못났고 살아온 역정도 별로 엘리트 코스도 아니고 인물도 못났고 스펙도 없는데 그래도 선거에서 지방선거 하고 대한변협에서 선거로 뽑아 준 것은 그 사람들의 저에 대한 평가입니다. 도덕성이나 청렴성이나 공정성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해 왔습니다.

제가 완벽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법조인이라는 분들은 한 분 한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이고 자기 독자적인 기준이, 판단 능력이 상당히 높은 분들입니다, 말도 않고. 그러나 그분들이 선거로 인해서 다 이렇게 해 줄 때는 상대적으로는 더 그래도 공정하고 청렴하게, 깨끗하게 살았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동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입니다.

후보님, 고생 많으십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확실한 자기주장을 하셔서 좋습니다.

후보님, 헌법에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직종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정현 위원 어딘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공무원……

○박정현 위원 공무원하고 교사들은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공무원의 선거·정치 참여, 정치기본권 보장의 유무나 정도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나 여러 가지 전통 또 수준 이런 것을 고려한 헌법적·법률적인 정책의 입법적인 문제라고 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많이 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박정현 위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과 정치 중립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문제인데 이걸 섞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대덕구청장을 했어요. 대전 대덕구청장을 했는데 그때 제 SNS에 우리 구의 중요한 정책, 그것도 그 해당 공무원이 입안한 정책을 제가 주민들에게 홍보했는데 그 해당하는 공무원이 거기다 ‘좋아요’를 눌렀다고 경고를 받았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

○박정현 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나라가 어떻게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독일·스웨덴·덴마크·프랑스는 다 기본적으로 국민과 똑같이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제한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조금 유연하게 제한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 대만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당의 직책만은 못 맡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도 하위직들은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놔줍니다. 경직되게 제한하고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정당 가입은 할 수 있고 당비만 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못 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정현 위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과 우리가 똑같은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 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정현 위원 특히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음성적으로 정치계에 줄을 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특히 지난 내란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잘 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공무원들이 내란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도 다 풀기가 어려우면 대상을 조금 한정해서, 이를테면 노조활동을 고위직들은 못 하는 것처럼 우리

나라 공무원 중에도 고위직 공무원들은 정치기본권을 좀 제한하고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 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 생각이 어떠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국민적인 공감대는 많이 형성해 가지고요 그것을…… 옛날보다는 우리나라 민도가 많이 높아졌고 정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가 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논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한번에 많이 하면 부작용이 날 테니까 점진적으로 한번 논의해서 입법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사실은 정치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정치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강제로 못 하게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기본권에도 맞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정치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 1분만 조금 더 추가해서 주시면……

○**위원장 신정훈** 예.

○**박정현 위원**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되게 무서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아, 그렇습니까?

○**박정현 위원** 예, 그렇지요. 여기 위원님들 다 선관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희들이 공정한 잣대로, 중립적으로 견제하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게 고무줄 잣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슨 행위를 할 때, 선거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무슨 행위를 할 때 선관위의 검토를 받드시 받습니다,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왜냐하면 검토를 안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검토를 받는데요. 이게 선관위마다 그 검토 내용이 다른 게 지금 문제입니다. 구 선관위의 검토 내용이 다르고 시 선관위 검토 내용이 다르고 중앙선관위의 검토 내용이 다르고요. 어떤 경우는 이런 건 되는데 이런 건……

그러니까 2022년도에 대전시가 그때 코로나 시기니까 마스크를 주민들에게 배부해 줬어요. 그것은 기부행위가 안 되는데 자가진단키트를—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배부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오히려 기부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잣대는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공직선거법이 이백칠십……

저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추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마무리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예.

279개 조항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0자 원고지 한 1500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선거법은 ‘뭘뭘뭘는 되는데 나머지는 안 돼’ 이렇게 되니까 더 많은 혼란을 가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뭘뭘뭘는 안 되고 나머지는 돼’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의식이나 국민 민도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것 아니가요? 그래서 돈과 권력만 정확하게 묶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박정현 위원 그래서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관위가 평가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입법활동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후보자님, 아까 1차 질의 때는 너무 선한 모습만 보여서 때로는 단호하게, 매섭게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제 2차 질의 때 제 모습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감사합니다.

○정춘생 위원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된 현수막 질의를 했는데요. 직을 걸고 이것을 철폐하십시오. 지금 정당법상 5개 시도당을 창당해야 되고 그 해당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이 등록되어야 됩니다. 물론 등록할 때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로미래로 그리고 황교안이 이끄는 혁신과…… 이게 실제 정당 역할은 안 하고 그냥 현수막 정당입니다, 현수막 정당. 오히려 민주당, 국민의힘이 거는 현수막보다 더 많아요. 민주주의를 아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실제로 QR코드를 하면 찍혀진 주소의 정당사무소가 맞는지, 실제 거기 정당사무소에서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현수막 외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정선거 이것 외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는 집회 외에 무슨 정당활동을 하는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만약에 취입하시면 이것을 제일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두고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선거 결과를 믿지 않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부정선거는 실체가 없는데 부정선거를 설파하는 세력들은 굉장한 조직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무시했지만 지금 이게 정말 세계로 뻗으면서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긴장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꼭 철폐를 가해야 됩니다.

애니 찬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정춘생 위원 이분이 막강한 자금줄을 갖고 부정선거 음모론 그리고 혐증시위·집회에

자금을 대듯이 대는 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괴하고도 굉장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대통령 당시에 이분을 민주평통 해외 직능운영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관계도를 보시면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부정선거 집회에 거액의 자금을 후원했어요. 그리고 김용현을 통해서 윤석열을 소개받고, 또 모스탄 들어 보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모스탄, 미국……

○정춘생 위원 부정선거 설파론,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 부정선거론과 혐중시위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극우 혐중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대학이 있어요. 이게 모스탄과도 연결돼 있고 황교안과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찰리 커크의 대를 잇겠다는 김민아하고도 연결돼 있고, 어떤 데에서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 그리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후원을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이틀에 끝날 조직이 아니고 끝날 흐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명동 안산 대림 이어 가면서 혐중시위, 부정선거를 설파하는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냥 놔두서는 안 됩니다. 이 집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고요. 그 현수막은 특히 전수조사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정춘생 위원 실제로 당원들이 있는지, 그 현수막 자금은 어디서 오는지,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현수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정춘생 위원 그런데 이런 부정선거를 아무리 설파해도 현행법에 그 처벌 근거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선관위에서 고발조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5년간, 다음 PPT 보여 주세요. 고발했으나 모두 불기소 기각 무죄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처벌 근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이러한 부정선거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저도 발의했고요. 그리고 제가 발의한 법안에 옥외광고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는 옥외광고물 포함해서, 반드시 해서 처벌 근거조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정춘생 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지 맙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정 사실은 대통령실로부터 발표 직전 전달받은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인사혁신처 관계자라고 들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혁신처도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당당하는 공무원 중의 한 분이라고……

○박덕흠 위원 아니, 신분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전화만 받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거기 인사혁신처 관계자라고 하니까요.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요새 보이스포싱도 많고 또 사기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상대방 확인도 안 했다는 것은 변호사협회 회장님도 하시고 했는데 좀 경솔한 것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얘기 들어 보니까, 인사혁신처 관계자로 저는 믿었습니다.

○박덕흠 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한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사기 전화인지 이런 건 저는 대강 알지요.

○박덕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임위원까지 이렇게 내정을 받으신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현재 상임위원은 확정이 된 거…… 호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박덕흠 위원 그전에 얘기를 못 들으신 거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덕흠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일단 위원으로서 청문회가 통과되면 위원회 아홉 분이 회의를 해서 호선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덕흠 위원 글썄, 그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임위원이라고 하시니까, 대답을 상임위원이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속기록을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렇습니까?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피고인은 다 죄인이다’ 이 말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범죄자가 아니지요, 위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것은 아마 속기록에서 좀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농촌지역들 이렇게 보면 인구소멸지역들이 많이 있

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덕흠 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네 군데인데 총선이나 지선이나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은 자꾸만 지역구가 하나씩 더 늘어나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덕흠 위원 그것은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꼭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구획 정리가 아니라 면적도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런데 관계 선거인 수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골에, 저도 고향이 보면……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시는데 그걸 동의를 하시냐고 여쭙보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런데 인구 기준 상한 범위 내여야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같이 합해서 하는 헌법소원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워낙 넓어가지고요.

○박덕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지선 선거가 있잖아요. 보면 기초단체장들은 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군 단위에 보면 도의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인구 얼마로 기준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지금 보면 5만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도의원 2명을 둘 수 있는 군이 5만 이상이어야만 2명 도의원을 둘 수가 있고 4만이 되면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계속적으로 농촌지역은 인구감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성을 대표하는 도의원도 그 기준을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도의원 정수가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도의원이 도시로 배치가 되고, 할당이 돼서.

그래서 이걸 좀 폐단이 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 저는 봤을 때 선거를 할 때 인구만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면적도 좀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군수가 출마하는데 도의원도 1명, 군수도 1명 이렇게 하다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예.

○박덕흠 위원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왜? 너무 넓어요, 도의원이 관리하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예전에는 영동·보은·옥천 선거구가 있고 괴산은 또 다른 선거구인 줄 알았더니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하나의

선거구로 됐더라고요, 괴산이. 괴산은 북쪽에 있는데.

○박덕흠 위원 괴산이 따로 됐지요.

그런데 총선인데 지선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넓은지.

○박덕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아마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시골·농촌지역은. 위원장님도, 아마 그쪽도 인구소멸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의원 기준을 5만을 보고 있는데 3~4만으로 이렇게 돼서 도의원 선거구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가 여쭙보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도 제 친구 중에 영동에 심재철 국회의원이 한 번 했어요. 그때는 그 지역이 좁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괴산까지 한다고 그래서 ‘이야, 선거운동 하기 힘들겠구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심재철. 그런데 요즘에는 국회의원도 못 되고 안타까운데 지금 제가 보기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도시는 밀집해 있으니까 인구가 많더라도 조금 인구수를 많이 한다든지 또 시골은 넓으니까 좀 인구가 적더라도 여러 명을 뽑는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지역대표성이 있으니까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한번 합의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박덕흠 위원 대답은 시원하게 잘하시네, 후보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상당히 영동에 감 먹으려 여러 번 가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워요. 아주 친한 친구거든요, 심재철 국회의원 옛날에 하셨는데.

○박덕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말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인구수 3 대 1 비중으로 하도록 헌법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이미 수도권의 국회의원 숫자가 비수도권의 숫자에 비해서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헌법에서 보면 사람도 중요하지만 면적도 매우 중요하다고 국토의 균형발전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판결이 다시 한번 저는 재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인 수와 면적을 함께 혼합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없게 된다면 지역 소멸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권자가 많아지고 지역은 소멸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적어지면 그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정치적 의사결정이 그러한 형태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정한 투표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아주 공감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공감하시지요. 그러면 국회에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법안을 바꿔달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선관위가 직접 나서서 저는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의사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연구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 선관위 개혁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선관위의 여러 문제 사건에 대한 그 결과로 하나는 위원장이 상임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지휘체계가 사실상 상근인 사무총장에 의해서 휘둘러졌다, 그래서 위원장을 상임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게 일부 그런 주장을 한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아직 거기서 일을 안 해 봐 가지고 정확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지금 단정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는 있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위성곤 위원 저는 법안을 냈는데요. 상임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그리고 사무총장을 선관위원 중의 한 분이 하는 방식으로 해야 사실상 선관위원 중심의 선관위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법안을 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때 선관위 청사 점거의 정당성 여부를 헌법 법률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12월 6일, 비상계엄 이후 선관위 점거 이후에 중앙선관위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입장을 냈냐면 침탈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검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법적조치가 됐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선관위, 아직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중앙선관위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법적조치를 취했어야지요. 피해 기관이잖아요. 피해 기관이면 그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선거 행위를 지키는 그리고 민주주의의 투표를 지키는 선관위가 자기 시설이 계엄군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점거되어지고 행위 제한을 받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것, 의사표현이라는 것은 기자회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검토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후보께서 위원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고발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위성곤 위원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선관위를 침탈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위헌·위법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위성곤 위원 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 없이 그런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앞으로 후보자께서 위원이 되신다면 선관위가 선관위로서 정확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후보자님, 오후 들어서 답변이 솔직해지고 시원시원해지고 있어 가지고요 저도 이 분위기에 편승해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선거 직전에 출마자들이 후보자들이 재산등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냥 접수되는 대로 받아 주는지 아니면 기초조사나 몇 가지, 현장조사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면 전년도하고 비교해 어떻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대차대조표 정도,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액 집값이 오르고 무엇이 오르고 하는 이런 거는 당연히겠지만 어떤 큰돈이, 가령 90억이라는 돈이 대차대조표에서 완전히 사라져 가지고 청산이 돼 버렸다 이런 거 정도는 선관위 재산등록 과정에서 좀 해 가지고 고발조치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아,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이상식 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방송에 많이 나와서 아실 겁니다. 이름까지 거명하지 않겠고요.

그런데 제가 선관위 사무총장님한테 작년에 질의를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 90억이라는 돈이 중간에 증발해 버리고 없다. 그런데 그때 선관위 사무총장님은 아무 답변이 없고 그냥 적의하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적의하게 처리하고 있으면 왜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90억이라는 금액의 자금이 사라져 가지고, 그것이 김건희 측에 공천 대가나 이런 걸로 건내졌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아마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서 등록도 하고 증감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공직 출신이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하고 선관위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접수 단계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직접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기본적으로 뭔가 해 보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든가 그리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특검이 수사를 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 말이지요.

저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으나 하면 그 사람의 개별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제도적으로.

○이상식 위원 선관위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서 저는 이게 선관위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공정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여기에 덧붙여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께서 ‘계엄 당시에 군인들이 선관위를 침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지금은 후보자께서 뚜렷하게 소신을 말씀하셨고. 내란과 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이 있고 나니까 그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잘못이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김용빈 사무총장인가요, 나중에 그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러셨는데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야,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될 때가 있었습니까.

후보자님, 감사원도 헌법기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느니 못 받느니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감사원도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의 이중대라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상식 위원 그런 반면에 그래도 감사원에서는 무슨 의결이나 이런 것 할 때 아주 소수의 감사위원이 반대의견도 내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작년에 총선 즈음해 가지고 윤석열이 지방 출장을 지역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스물네 번인가 잤었어요. 저희 선거구에는 두 번을 왔습니다. 꼭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가 보지요.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드는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그 간담회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되풀이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말씀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즉흥적이고 말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탄핵소추를 당했잖아요. 그 정도 같으면 윤석열의 그런 행위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예요, 며칠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중에서, 선관위원 중에 누구라도—헌법기관 아닙니까—문제 제기를 하고 그만둬야 된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는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의견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후보자님, 혹시 나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잘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처럼 시원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했냐면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아무 말도 못 해 놓고, 자기들이 그 서슬에 눌려 가지고 말 못 해 놓고 그 사건을 누가 고발하니까 경찰에 슬쩍 넘겨 버려요. 경찰이 얼마나 권력의 그것을 집중적으로 받는 기관입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선관위가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감사도 받지 않고 완전히 그냥 내부, 자기들끼리 하니까 그 많은 여러 가지, 자녀 직접 채용 같은 그런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국회에서 잘 감독을 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제가 보니까 후보자님 성격도 팔팔하시고 솔직하시니까 어디 가서도 자기 하실 말 하실 분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중립성에 맞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처럼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상식 위원 그리고 내부 단단히 좀 잘하시고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좀 높여 달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철저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그런 철저한 집행의 대상이 모두에게 공히 다 적용되도록 독립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 이광희입니다.

후보자님께 여쭙보겠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와 선거운동 참여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런 현행 법령상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공무원에 관한 선거 관련 규정은 상당히 오래 전에 정해져서 계속 유지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화되어 있고 또 국민 의식도 높아졌고 살기도 좋아졌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정을 다 고려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여야 간에 합의점을 맞춰서 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광희 위원** ILO협약 등 정치활동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기준과 괴리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국내 제도와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선관위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식의 입장이든 계속적으로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희들이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그걸 제가 연구를,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을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중요한 연구과제로 삼아서 저희들의 의견을 한번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청년이나 신규 교원이나 이런 공무원 세대가 새로운 세대의 경우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 점차 커져 나가고 있고 왜 이 정치적 표현을 못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입막음을 한 지가 꽤 오래돼 있는 상황이라 다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컨대 같은 공무원인 교수는 정치활동 참여가 가능한데 같은 공무원인 교사는 정치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페이스북에 좋아요 한 번 눌렀다고 징계를 받는 일이 있는 게 민주사회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두 번째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선관위에서 민주시민교육 하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광희 위원** 그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으십니까? 얼마나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홍보활동을 그런 기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 공부는 했고요. 그 외의 구체적인 실행이나 경과,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은 학습을 못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선관위가 민주시민교육을 처음에 가져갈 때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사회단체가 중립적인 지대에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굳이 선관위가 해야 된다고 우겨서 이것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가져가고 나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선관위가 함께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와 국민들 일부가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 이 정도 되면 뭔가 민주시민교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2·3 내란이 터지고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뭔가 민주시민교육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저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한번 살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시정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선관위에서 지금 하는 교육은 사실상 민주시민교육이라기보다도 선거나 투표나 정치제도 중에서 선거법과 관련된 얘기인데 한번 들어 보셨어요, 혹시? 저희들은, 선출직들은 늘 그걸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렇습니까? 아직 저는 구체적으로……

○**이광희 위원** 5분만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서 듣기가 싫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아, 그렇습니까? 그 내용, 콘텐츠도 한번 살펴보고 시정을 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육은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립적 위치의 다른 기관에서, 시민사회든 어떤 다른 기관에서 맡아서 이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살펴보시기만 해서 안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아직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처음 차원에서의 논의를 다시 시작해 주셨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 되서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철승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법조인 출신이니까 선거법 관련된 것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좀 여쭙보겠습니다.

벌금 11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90만 원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돈의 액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철승 위원** 물론이지요.

그런데 그 판결을 하는 차이, 어떤 차이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것은 법적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철승 위원** 아닙니다. 법적 효과는 그것은 법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요.

이렇게 다른 벌금을, 벌금형을 다르게 적용하는 그 법리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법조인도 구별하기 힘들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도 확실히 모르고, 한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1만 원 차이로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고 그러면 조금……

○**권철승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어떤 법적 효과를 하든가 아니면 실형이 나왔을 때 어떤 법적 효과를 부여하든가 당락에 관련…… 당락이 아니지요. 국회의원 자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자격상실의 형이나 아니냐……

○권철승 위원 예, 그렇게 명확한 구분을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평상시에 합니다. 견해가 어떠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런데 구체적인 안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철승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판사 복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권철승 위원 그다음에요 선거법 자체가, 선거법 자체는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선거법에 보면 선거기간 위반의 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있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 기간 이내밖에 못 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포지티브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시기별 행위제한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120일 전에 못 하는 것, 90일 전부터 못 하는 것, 60일, 30일 다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93조 같은 것은 위헌심판 단골손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원 모집이 안 되잖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이 가장 활발하게…… 정당은 의사표시를 하는 기관인데 왜 당원 모집을 못 하게 하지요? 그다음에 당원 집회는 선거일 30일 전부터 못 해요. 정당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당원 집회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권철승 위원 아니,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아직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거나 이런 데 출마를 안 해 봐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는데요. 만약에 그게 정당 활동이나 너무 심히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만약 불합리한 것은 조금 시정을 하고, 폐지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한번 입법적으로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국회에서 입법 발의해 달라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아니, 저희 의견 내겠습니다. 먼저 세미나도 할 수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선관위의 아주 전가의 보도인데요. 원래 그리하시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당생활을 좀 오래 해 갖고. 하시는데, 이게 고양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방울 달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내 주시는 것이 맞겠다 싶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다음에 본투표 당일 날 선거운동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전투표일 이틀 동안 선거운동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투표일 날은 못 해요.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런 것도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도 사실은 대한변협회장 선거할 때 거기 선거 규정이 선거 당일도 투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새벽에 부산까지 갔다 온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합리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권철승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60일 전부터 SNS,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은 의정 활동 전송·게시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은 위 선적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예.

○권철승 위원 선거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시기별 행위제한과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전 선거운동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기별 행위제한을 120일 전부터, 90일 전부터 이것 저는 논리적인 정합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단계 정도로 줄이는 방식을 찾아 주시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원 모집을 못 하게 하거나 당원 집회를 막는 것, 이것 선거운동 기간 중에 사람 모이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다 옛날 군사정권 때 유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제가 체감적으로 현재 느끼지는 못하는데요. 그 부분 말씀 명심해 듣고 또 앞으로 위원이 된다면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먼저 개진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뭐라고 딱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철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존경하는 권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가짜뉴스 현수막 한번 PPT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매우 엄중한 주제다, 이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일종의 명백한 가짜뉴스—허위·조작 정보에 입각한—그리고 특히 선거가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저런 현수막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것은 사실 그냥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넘어서 가지고 결국 여론을 왜곡시키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일종의 헌정질서라 그럴까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선거를 부정하면 2022년도 윤석열 당선된 선거와 2022년도 그해에 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 다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가당착의,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는 부정선거이고 그렇지 않은 선거는 그냥 지는 선거이고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명백하게 저것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후보자님, 헌법 8조 4항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해식 위원 어떤 내용인지, 헌법 8조 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알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해식 위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에는 정부의 제소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을 해산심판할 수 있지요? 해산할 수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해식 위원 정당 해산 조항이거든요, 헌법.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당을 해산시켜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도 일정 정도는 그런 위험 정당이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마는 내일로미래로당이라고 하는 당이 말이지요, 실체가 없는 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정당 사무실이 아예 없던데요. 그리고 전화번호만 있어요. 그 전화번호에 연락하면, 돈을 넣어 주면 현수막을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현수막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이 설립되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이해식 위원 최소한 1000명 이상에 시도당 5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도의 관할 내에 주소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앙당도 지금 주소가 불분명인데 그런 당이 시도당이 있습니까? 선관위가 그것 한번 실태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춘생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저런 정도의 정당은 당연히 선관위가 어떤 방침을 정해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제소를 해서 현재에서 빨리 심판해 가지고 아예 해산을 시켜버려야지 저런 정당들이 계속 가짜뉴스에 기반한 그런 정치 현수막을 통해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이건 두고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과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상임위원 되시면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공감합니다.

○이해식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아까 전현희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시도선관위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시도선관위의 선관위원이 장기근속하는 문제, 선관위원은 헌법에도 나와 있지요, 임기가 6년이라고 딱 나와 있고. 그리고 시도선관위원

도 마찬가지로지요. 따로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6년인데.

시군구선관위원의 경우에는 3년이고 한 차례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 연임하면 6년이 되는 것이지요. 선관위법에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헌법의 임기 6년이라고 하는 것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의 규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연임하면 이걸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 온당하지 않다. 그리고 시도선관위원회 상임위원들이 1급 자리를 계속 그렇게 유지하는 것, 내부 직원들로 하는 것, 일종의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검사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잖아요. 아니, 국가공무원법에 다 징계 규정이 있고 그런데 왜 검사는 검사징계법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검사는 보니까 보수에 관한 법도 있더라고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검사는 못 해 봤습니다.

○이해식 위원 검사의 보수는 매월 20일 날 지급을 하는데 그날이 일요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검사가 왜 그런 법을 가져야 되냐는 말이지요. 특권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선관위는 다른 부처와는 다르게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이유로 1급직이 그렇게 많고 그것도 내부 직원들로만..... 명백하게 범조인 출신이나 교수 출신들도 선관위 상임위원을 할 수 있는데 다 왜 내부 직원들을 임기를 잘라 가지고 2년씩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종의 인사 순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편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로부터 선관위가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자기 노력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위원장대리 윤건영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위 후보자님 오랜만입니다. 평소에 아는 사람 청문하려고 하니까 조금 민망하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반갑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내가 좀 세계 물어야 될 입장인데.....

교편 잡으시면서 주경야독해서 어려운 사법시험 되고 또 변호사 회장선거에도 여러 파벌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고 당선되고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인간승리 비슷한 것에 대해서 저도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서는 적절한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칭두불허창승좌(秤頭不許蒼蠅坐)’라는 말이 있어요. 범조인이 가끔 듣기도 하는데 저울에는 파리 한 마리만 앉아도 저울이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 앉으면 저울이 다른 데로 기울 것 아니예요. 저울 위에는 파리 한 마리 앉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 보니까 변호사 활동과는 관계없이 민주당의 윤리위원장도 하였고 후보 지지 선언도 하였고 이런데 이런 분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돼서 어떻게 공정하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본인이 마음먹으면 ‘나는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자들이 공정하다고 믿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가 민주당의 후보라든지 민주당과 관계돼서 서너 차례 지지 선언부터 당직을 맡았었는데 ‘내가 잘할 테니까 국민들이 믿어만 달라’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축구 시합하는데 어느 한 팀에서 심판을 내면 다른 팀이 승복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자리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당이 부적격하다고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라는 성명을 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청문회가 형식적이고 보고서가 채택 안 돼도 가능하단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사회를 좀 더 신뢰 있고 좋은 사회로 만들려면 각자 각자가 그것에 맞는 역할을 해 주고 지켜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우려를 첫째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관위의 가장 위기가 뭐냐,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가 일어나고 많은 학생들이 죽고 정권이 무너지고 이랬잖아요. 그 이후에 선거관리의 공정성은 많이 강조되고 잘돼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10년 안에 어떻게, 하여튼 정치권의 잘못인지 선관위의 상임위원이나 사무총장을 자꾸 자기 편을 갖다 넣는 게 여야가 계속 있어 왔어. 내가 누구라고 이름 안 댈니다만 우리가 집권했을 때도 자유롭지도 못해요. 그리고 민주당이 했을 때는 민주당 대선에 무슨 당직 맡았던 사람도 갖다 넣고 이래 했다고. 이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적어도 심판기관은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본인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 잘 새겨들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선관위의 기강 문란, 저는 이해는 합니다. 선관위가 자체 인력을 뽑을 수가 없었고 인기가 없을 때 타 부처에서 다 전입을 받아서 여러 분들이 다 섞여 있었고 그것이 남아서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제는 그래서 안 돼요, 안 되고.

인사 관리도 공정해야 되고 나머지도 엄청나게 공정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요. 외부에

서 와서 조직을 얼마나 단시간에 장악하고 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에요. 선관위 직원들의 논리, 기득권의 논리에 포위돼 가지고 있다가 다 나가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 점도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선거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도 너무 많아요. 대부분 가짜라고 봐요. 나는 우리 당에 있으면서 그것이 가짜 뉴스라고 싸우는 사람 둘 꼽으면 제가 들어가요, 의총에서도 전부 가짜라고 보고도 했고 보고서도 만들고.

그런데 갈수록 선관위에 대해서 화가 나. 이렇게 불신이 많은데도 그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기관의 신뢰도 따지면 선관위가 가장 쫓겨 나올 거예요. 오죽하면 비정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선관위에 문제 있다고 군인을 보내는 상황이 생겼겠어요?

○**이해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주호영 위원** 그 잘못된 상당 부분은 신뢰성 회복을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선관위에 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이해식 위원** 부의장님 잘 나가시다가 그렇게 삼천포로 빠지시네.

○**주호영 위원** 좀 들어 보세요, 삼천포가 아니라.

○**이해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주호영 위원** 무슨 남의 말에 삼천포라는 말을 써요? 지역을 비하하는 그런 말을 쓰냐고요!

○**이해식 위원**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게 잘못된 일입니까?

○**주호영 위원** 내가 잘못다 했나요? 말을 잘 들으세요!

○**이해식 위원** 그것은 면피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윤건영** 자, 위원님……

○**주호영 위원** 어디 가르치려고 드시나요, 지금?

○**이해식 위원**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윤건영** 위원님들……

○**주호영 위원** 조용해요, 좀! 발언권 안 얻었으면 조용해요. 발언 기회 얻었을 때 하세요. 내 말 다 새겨듣고 보고 하세요.

○**위원장대리 윤건영** 위원님들,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 상황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유튜브에 가 봐요. 온갖……

그리고 우리만 탓할 수도 없어. 백악관에서 우리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중국의 선거 관련성을 언급할 정도로 뭔가 국제적으로 이상하다고, 이게. 그러면 이것 해소하려는 노력을 선관위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손 놓고 있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선거나 사전선거나 신뢰도나 관리의 확실성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똑같지가 않아요, 사전선거는 지금 선거인명부도 없다고. 이런 것 다 좀 손보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변호사 회장까지 하시고 그 자리 그냥 맡아서 잘 지내더라,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더라 이런 것 남기지 말고 본인이 쌓아온 지금까지의 명예나 이런 것을 더 더 할 수 있도록, 와서 어느 편이 되지 않고 제도 개선하고 신뢰성을 회복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까짓 상임위원 3년 하나 안 하나 똑같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하고 나서 두고두고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핵심적인 것을 잡고 고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명심해서 잘 시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리고 중립성이나 공정성·투명성 이런 것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잘 수행하겠습니다. 한번 믿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그걸 자기가 해서는 안 돼요. 잘하면 저절로 그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도 많이 속아 왔으니까, ‘중립적으로 잘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전혀 아닌 경우를 여야 간에 많이 봐 왔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는 실천으로 한번 옮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후보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고 질의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님과 상관없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그러면 보충질의의 마지막으로 지금 김성희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요. 김성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성희 위원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배석자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신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셔서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좀 내용 바로잡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위철환 후보자 뒤에 배석한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서범수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후보자가 내용도 잘 모르고 초보라서 와서 도와주는 것 아니냐. 위세 떠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하셨는데 서범수 간사님께서 질의 시간에 하셨으면 제가 따져 물을 이유가 없는데 이게 어쨌거나 교섭단체 간사님의 자격으로 발언을 하신 부분이라서 저는 위원회 회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서요.

그래서 선관위원으로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의 전수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바쁘게 오늘

좀 해 봤는데요. 노태약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획국장, 법제국장, 기획재정과장 포함 해서 직원 8명이 나와 있었고요. 상임위원인 김필곤 같은 경우에도—이분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지요—2022년 5월부터 일하셨는데 기획국장, 법제국장, 기획재정과장 등 7명. 그다음에 이승택 위원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근무하셨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기획국장, 기획재정과장 등 5명. 정은숙, 2020년 3월 시작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기획국장, 기획재정과장 등 5명. 그다음에 조병현·조성대는 각 3명. 그다음에 박순영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근무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해서 9명. 남래진 위원 같은 경우도 9명. 그다음에 김대웅 위원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부터 중앙여심위 사무국장 등 11명이 나왔고요. 전 위원장이었던 노정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6명이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가 아니라 그냥 항상 이렇게 해 오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잘못되면 마치 이것이 행안위 행정실의 준비 미숙이었거나 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혹은 위철환 후보자에게만 어떤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바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보충질의 바로 하시지요.

○**김성희 위원** 후보자님, 이 얘기도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선거 때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이 사라집니다. 그 얘기 많이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성희 위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대 대통령선거 그다음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던 22년에 보면 그 전번에 대비해서 증가율이 76%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출산·육아 장려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걸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누가 봐도 선거관리를 피할 목적으로 혹시 몰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휴직자가 발생하면 근무 지원 인력이 중간에 투입되기는 하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인력 자체가 부족한 만큼, 필요한 만큼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 공정성과 효율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데 후보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도 그런 보도를 보고 청문 준비하면서 질문도 하고 준비하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적절해서 그 대응책을 조금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 출산 이런 문제는 시기를 조절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건 법상 보호된 거니까 저희들이 적극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선거 대비나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무처장님한테 말씀 들어 보니까 23년부터 휴직 예정자 사전 파악하고 휴직 자체 공문도 내고 가족돌봄휴직 같은 경우는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내놔는데 이게 대부분 벌주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휴직자가 감소 추이에 있다고 하지만 24년, 25년 딱 두 번의 선거 외에는 아직 데이터가 안 쌓여 있는 상태라서 좀 장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인데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투표지가 7매에 달하는 굉장히 복잡한 선거가 벌어질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22년 지방선거에서 많이 비었었거든요.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게 투·개표 관련해서 정확성과 공정성에 차질을 빚고 후보자 등록, 불법 선거운동 단속 등 할 일이 많은데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또 이런 질의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가 지금 선관위가 뭔가를 잘못해서 계엄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일할 시간에 부정선거 유튜브나 보고 있어서 ‘아, 이것 진짜 큰일이다’ 생각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관리하는 선관위를 국정원까지 시켜서 이래저래 감시도 해 보고 본인의 대학 동기인 사무총장을 앉혀 놓고도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를 믿고 진짜 부정선거가 있는 것 같아서 계엄을 실시했다고 보십니까? 어느 쪽이 맞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왜 선관위를 간 것 같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제가 아는 한은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선관위가 잘못해서 간 겁니까? 선관위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대통령이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군인까지 보내 갖고 선관위를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게 선관위 잘못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국정원하고 기사, 선관위 합동으로 전부 조사도 했는데……

○김성희 위원 제가 지금 뒤에 계신 선관위 직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잘못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김성희 위원 물론 사소한 잘못과 실수가 있을 수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전체적으로 큰……

○김성희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군인들까지 쳐들어가서 부정선거 이런 것 논할 만큼 그렇게 큰 잘못들을 하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성희 위원 어깨 펴시고, 유튜브에 중독이 돼서 잘못 판단한 사람의 이야기에 저는 위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당당하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사무 종사자들 지금 업무가 워낙 과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후보자, 투표관리관·사무원들이 선거일에 지금 1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투표시간이 12시간인데 점점 앞뒤로 1시간씩 붙어 있고 여기 대부분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 일 하면서도 이것도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24년 22대 총선 경우에는 남원시 공무원께서 과로사로 돌아가신 사례도 있고요. 전주시 공무원도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신 경우도 있어서 근무 여건을 점검해 봐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전반적으로 보면 워낙 선거할 때 지역구 수도 많고 종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인력 전체에, 선관위 직원들이 모든 투표소에 다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나 교사 이런 분들도 출동을 하지만 그 비용도 열악하고 옛날보다 협조도 좀 어렵다 이런 애기를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성희 위원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예.

○김성희 위원 투표사무원 같은 경우 14시간을 일을 하는데 지금 시간당으로 환산해 보니까 9286원이에요. 이것 지금 최저시급에도 안 됩니다. 최저시급 1만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1만 30원이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김성희 위원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면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투표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을 받는,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을 받는데 사무원은 13만 원입니다. 이게 좀 불평등한 거예요.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같은 경우는 시급이 1만 6000원 선인데요, 이것은 투표사무원에 비해서 1.8배가 높은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것은 한번 불합리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들 선거 현장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지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걸맞은 대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 저한테도 한말씀 기회 줘야지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원장대리 윤건영 아까 하셨으니까 마무리하시지요.

○서범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30초……

○고동진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좀……

○위원장대리 윤건영 추가질의는……

○서범수 위원 잠시 간단하게, 30초.

○위원장대리 윤건영 서범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서범수 위원**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전수조사를 잘하셨으면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마 청문회준비단이라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면 그 청문회준비단의 규정 안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면 좀 도와라 이런 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다른 청문회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여기 와서 보니까 선관위 위원들만 뒤에 실·국장이 배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다른 데, 저 대법원장 청문회도 하고 다 하지만 그것은 딱 청문회준비단이고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자체가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 후보자에게서. 벌써 후보가 아니고 정식으로 임명된 사람처럼 실·국장들을 전부 배석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관행, 관행 말씀을 하시지만 행정실장,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윤건영 위원님도 말씀, 물을 하나 만들어 가자고요. 그게 자꾸 관행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럴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게 맞는지를 한번 따져 보자고요.

○**위원장대리 윤건영** 서범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이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요.

보충질의는 마쳤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손을 들)

○**위원장대리 윤건영** 고동진 위원님 혼자 계신가요?

○**서범수 위원** 저도 조금만 합시다.

○**박수민 위원** 저도 한 30초만 주시면……

○**서범수 위원** 간단하게만.

○**고동진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윤건영** 그러면 고동진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그다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후보자님,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동동보통신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문자메시지 대량 보내는 것, 동보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것은 자세히……

○**고동진 위원** 못 들어 보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자세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게 선거 문자 수신 대상자 수 20명을 초과하는 대량 문자 발송의 경

우 발송 가능 건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는 게 현재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입된 배경이,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후보자 위철환 예.

○고동진 위원 이게 문자를 수신하게 될 국민 불편 이런 것도 있었지만 처음 이 규정이 도입된 게 2010년 당시에 전자통신기기 문자메시지 동시 발송은 최대 20건이었던 게 사실 배경입니다, 기술적으로.

지금은 통신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휴대폰에서 동시 발송 가능한 문자 건수는 최대 100건도 가능한데 15년 전인 2010년도 당시의 기술력에 의해서 규정된,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제도가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20통씩 끊어 보내기 등의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무제한으로 문자 발송이 사실 가능한 게 현실이에요. 즉 선거기간 중에 문자 발송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사문화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무작위로 발송하는 상업적인 광고 메시지하고 스팸문자 비슷하게 혼동돼서 불편한 이미지가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매일 무작위로 발송되는 상업적인 스팸 홍보 메시지하고는 달리 선거 출마자들이 선거기간 중에 보내는 문자메시지는 유권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이자 정보이기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 상임위원이 만약에 되신다면 이와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공부도 한번 해 보시고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렇게 해 보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후보자 위철환 예.

○고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3분이나 주십니까?

후보자님,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선관위 직원들의 격무 그것은 저는 인정을 하는데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꼭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 대거 많아집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2018년 6월에 지방선거 때 직전 연도에는 휴직자가 122명이었다가 선거 앞두고는 158명 그리고 2022년에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가 겹친 해에는 3월 대선 직전 휴직자 204명입니다. 최대, 역대 최대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 하기 싫고 선거 어려워, 선거 업무가 고되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거관리 직원이 선거를 놔 놓고 ‘나 몰라라’ 이렇게 가 버리면 왜 선관위에 옵니까? 선관위가 그냥 편해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정말로 선관위의 조직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공직기강이 완전히 엉망이 된 것 아니냐, 이게 심하게 확대 해석을 하면 선관위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선관위에 들어간 사람들이 선거 업무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선거 때만 되면 ‘이것 고돼서 나 못 해, 힘들어’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 뒤에 앉아 계시는

실·국장님도 이걸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잘 파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을 유념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서범수 위원 그래 놓고는 대책 마련하라고 하니까 그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하겠다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잘 살펴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수민 위원 오늘 답변 중에 ‘당원으로 가입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수민 위원 그래서 그 말은 당원으로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강력하게 했다면 내가 중립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윤리심판원이랄지 공명선거본부장 이런 거는 제가 가진 법적인 지식이나 공명성 이런 것을 외부 인사로 활용한 것이지 제가 당성으로 활동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저는 여태까지 특정 당에 가입하거나 한 번도 등록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박수민 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난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하루 종일 여쭙는 거는 중립성에 대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당이 걱정하는 이유는 인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충분히 백번……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오기 전에도 저는 마음속으로 그 부분을 염려하고 왔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저는 당원을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형식 논리보다도, 윤리위원장 정도면 진짜 강한 당직이거든요. 그게 당원 이상의 당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이유는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권자로서 내가 지지 선언을 했던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을 했던, 변협회장까지 하셨으니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또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이렇게 염려하신 대로 잘 유념을 해 가지고 정말 중립, 공정, 투명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제가 뭐 잘못된 것이 있거나 그러면 혹시 위원이 돼서라도 계속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모든 걸 시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당원 가입을 안 했었기 때문에 내가 정파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은 저는 형식 논리로서 청문회적인 기술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저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과거에 유권자로서 이런 활동 했고

변협회장으로서 정당의 윤리위원장도 한 번 했지만 그건 과거고. 뗏목 이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건너온 만큼 나는 지금부터는 다르다. 지금 특정 정당의 선관위원 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구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예.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명한 것…… 제가 아슬아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충분히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명심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존중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후보자에게 마무리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와서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위철환 지금 위원장님께서 잠시 나가셨습니까라는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랜 시간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충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선거관리 사무의 엄중함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우려와 또 기대, 고견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 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저녁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2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현안 질의(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5항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 질의를 위해서 윤호중 행안부장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 김승룡 소방청장직무대행, 정재한 LG에너지솔루션 전무겸총괄품질관리자, 최병석 대평엔지니어링 부사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는 행안부와 소방청, 2개 부처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장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에 대해서 없는 시간 가운데서도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함께 자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국가 핵심정보시스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 금융·택배, 정부24와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복구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구가 지연되어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시는 서비스는 대체 방안을 마련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는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차관을 상황실장으로 두어 시스템별 복구 현황을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복구 현황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실장께서는 최대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복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 개요입니다.

9월 26일 금요일 20시 15분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불꽃이 튀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7-1 전산실이 전소되고 냉각탑, 전원 케이블 등 다수의 장비들이 손상……

○위원장 신정훈 현황은 제외하고.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그러면 복구 현황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온향습기와 네트워크·보안장비 가동이 9월 28일 오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정부24, 인터넷우체국, 나라장터 등 2~4층 전산실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가동 중이며 문서에는 10월 금일 06시 기준입니다만 14시 기준으로 101개의 시스템이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상황 인지 직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비상근무 태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하였습니다.

다음 날 08시에 대국민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고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하였습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국민서비스 대체수단을 안내하는 등 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서비스들의 대체사이트를 네이버·다음을 통해 안내하고 각급 기관에 민원처리요령을 안내하여 수기·접수 체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수수료 면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민원 전담 처리 창구를 확대하고 민원실 상담인력을 증원하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총 32차례의 보도자료 배포와 브리핑 3회 등 화재 대응 및 복구 상황을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화재 영향이 적은 2~4층의 317개 시스템을 신속히 복구하고 이번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분진 피해를 입은 시스템은 분진 제거 후 복구를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국가AI전략위원회, 과기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중장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김승룡 소방청장직무대행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십시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소방청장직무대행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현황 및 안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화재발생 및 대응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조치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은 총 289명 67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였고 소방청 상황대

책반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순차 가동하여 현장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재 진압 활동에 있어 협소한 내부 공간에서의 고열과 짙은 연기로 소방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데이터 서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량의 정교한 방수와 배연작업으로 화재 진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소된 배터리 384개를 분리 반출하고 수조에 냉각한 후 현장 상황을 종료 하였습니다.

2쪽, 119 서비스 장애 및 긴급 조치현황입니다.

국자원에 서버를 두고 있는 소방시스템은 총 27개로 대부분의 시스템이 아직 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119 신고와 출동 관련 필수 기능은 정상 작동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문자, 영상 등 다매체 119 신고와 신고자 위치정보 파악과 같은 핵심 기능은 경찰, 통신사의 신속한 협조와 연대를 통해 대체 가능한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119 시스템이 조속히 복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데이터센터 화재안전 강화 대책입니다.

즉시 조치사항으로 전국의 공공·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 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10월까지 실시하고 119상황실에는 위험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전환 수요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전기차, 배터리, ESS 화재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쪽, 불임에 그간의 추진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많은 국민께서 우려를 표하시고 실질적인 불편을 겪고 계신 만큼 중단된 시스템을 조속히 복구하고 유사한 화재에 대한 재발방지와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동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오늘 본 회의 질의 끝나기 전에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첫 번째가 배터리 분리·이설 할 때 따른 업무지침이라든가 매뉴얼 이거를 요구했더니 이게 무슨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못 한다 그러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두 번째, 분리·이설 작업했을 때 참여한 개별 작업자들의 관련 전문자격 보유 현황과 해당 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당일 작업 내역서. 세 번째는 최근 5년간 배터리 안전점검관리 내용하고 결과 관련 보고서. 네 번째가 분리 작업할 때 사용한 장비 종류하고 그 사진. 다섯 번째, 당일 배터리관리시스템, BMS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UPS를 끄게 되면 BMS상에 로그가 남습니다. 그 로그 자료를 덤프를 떠 가지고 이거를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여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작업 당시에 촬영된 내부 CCTV 영상 일체, 이것을 보면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이것 절대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일곱 번째가 배터리 랙별로 전원 차단 여부에 대한, 전원을 어떻게 차단했는지 BPU에 대해서 이거 조사 결과. 여덟 번째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원하고 LG CNS, LG에너지솔루션, 일성계전, 내일파워, 이피코리아 서로 간에 수발신한 공문 사본 일체. 아홉 번째가 현재 기준 해 가지고 국가정보관리원의 대전본원하고 광주·대구센터별로 또 제조사별로 ESS를 국산을 썼는지 외국산을 썼는지 배터리 보유·운영 현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전·대구·광주별로 ESS를 어떻게 구매했고 교체했는지 그리고 예산편성 내역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모자라니까, 특히 노후 배터리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반영을 좀 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거나 아니면 품의를 했거나 그 내용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도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여기 국정자원 원장이 와 있는데요. 국정자원 원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행안부에서 이거는 챙겨 주실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도 국정자원으로부터 이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장관님, CCTV 내용은 경찰에서 가지고 있고요.

○**윤건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위원장한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우선 지금 행안부에서 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요청을 했는데도 안 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이 있었다는 것 알려 줬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정은 원장한테 들어주시면……

○**위원장 신정훈** 우선 원장이 지금 고동진 위원님 말씀에 따른 자료요구에 대해서 오늘 내로 제출할 수 있는 건지 이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입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들 중에서 저희가 아마 급하게 작성했거나 준비하지 못한 자료들이 있어서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서 가능한 것들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확인하고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도 행정안전부에 총 42건의 자료를 간단한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요청했는데 단 한 건도 제출 못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두 가지는 오늘 꼭 챙겨서 보고 싶습니다.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된 국자원에 대해서 재난안전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서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계획서와 점검실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국가전산망 재난에 대해서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이렇게 두 가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7-1 서버가 전소됐는데요, 그 서버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서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백업이 정부가 다 되었는지를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서 고동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저도 함께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은 마치고요.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합니다.

먼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이재용 원장님,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예방법 제7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채현일 위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역시 특정소방대상물로 화재안전조사 대상이지요? 맞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채현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5월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방에서 작성한 화재안전조사결과서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치 내용을 보면 2층, 3층, 4층, 5층 각 전산실 및 보안구역 화재안전조사 미실시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원장님, 소방의 화재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뭐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당시 점검 과정에서 기기 오작동 등이 일어나서 조금 불안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채현일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다른 지방 센터들은 화재안전조사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잖아요. 대구·광주·공주 센터는 했는데 왜 본원만 안 한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화재가 난 것 아닌가요? 말씀해 보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원장님, 이 사건은요 철저하게 인재라고 봅니다, 인재 막을 수 있었고 그 당시에 화재안전조사라도 받았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지요. 결국 조사 거부 결정은 원장님이 한 겁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그것은 아닙니다.

○**채현일 위원** 원장님이 결재해서 한 거 아니에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아닙니다.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장에서 점검 과정에서……

○**채현일 위원** 조사 거부한 사실은 알고 있었나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아니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채현일 위원** 몰랐다면 무능한 거지요.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작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화재 대비에 취약하다는 경고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셨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전혀 그런 조치를 안 한 겁니다,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소방점검을 거부하고.

그런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보안시설이라고 하는데 민간업체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저희 운영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렇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채현일 위원** 5층 전산실에서 배터리 이전공사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도 민간업체 직원이고 그 사람들이 출입할 때 보안서약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면 출입 가능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업체 직원들까지 드나드는 공간에 보안을 이유로 소방점검을 거부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때 만약에 보안을 핑계로 두지 않고 소방점검 했다면 이 화재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보안을 이유로 그때 전산실 공간이 제외됐던 것이 맞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소방청장직무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전 국가정보관리원이 점검 대상이었음에도 2층에서 5층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말씀해 보세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소방청장직무대행입니다.

소방화재안전조사는 법적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는 중앙화재조사단이 청 차원에서 화재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보안구역으로 설정되었다라는 설명을 듣고 진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당시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했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직무대행님, 사기업도 아닌 정부시설에서 소방의 화재 예방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맞잖아요. 아까 감사원 감사 지적 그리고 법 규정의 위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회피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이 세 가지, 세 가지 그중의 하나라도 만약 조치가 됐더라면 이번 화재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2층에서 5층까지 보안구역이라는 그런 제한 때문에 저희가 1층 공용 구간만 철저하게 검사를 했었는데요. 그런 아쉬움이 너무 큼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작년에 소방점검만 제대로 진행했고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감사원 감사대로 소방점검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리고 법 규정에 따라서 이런 화재 안전조사를 했더라면 이 사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화재입니다. 인재라고 봅니다, 인재.

아주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도 하지 않았고요. 이런 기관에 국가데이터센터를 맡길 수도 없고요. 맡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받았어야 될 점검들에 대해서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조치들을 앞으로 차질 없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원장님, 채현일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그냥 죄송하다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고요. 그 경위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지금 먼저 말씀하신 소방점검과 관련해서는 처음 전산실 근처에서 소방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경보 알람이 잘못 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전산실 내에 있는 화재 인지로 잘못돼서 소화 가스가 터진다고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검토를 당시 현장에서 했었다고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협의가 현장에서 있었고 그래서 공간이 제외됐다는 말을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그런 이유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방점검을 받았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러프하게라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 서너 개 정도 좀 여쭙보겠습니다.

국정자원 원장님, 배터리 관련해서 24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래서 교체를 권고를 받았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확인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처음에는 안 받았다고 하다가 나중에 교체를 권고받았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처음에는 25년 결과를 보고 말씀드렸고 24년 결과의 지적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정재한 LG에너지솔루션에서 나오신……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배터리?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겸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내구연한이 지나면 성능이 퇴화가 될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외의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겸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UPS의 기본 기능인 백업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전 시에 자기 기능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업계에서는 10년, 10년 동안에 퇴화가 될 텐데 그 퇴화된 양이 백업 시간을 충족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화재하고 크게 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겸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저는 가능성은 조금 있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가능성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배터리 이전 설치의 문제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LG에너지솔루션에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인증된 전문 정비 담당자 외에는 절대로 분해·분리하거나 수리하지 마시오. 잘못하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 맞지요? 그렇지요?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검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인증된 전문 정비 담당자라는 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검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지금 저기는 팩 자체를 분해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팩 자체에 관련된 것은 전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어디부터 어느 순서대로 분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번 사항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전문가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적용이 되지요? 적용이 되는 거지요, 사실은 이 부분도?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검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팩은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되고요. 셀 전문가가 해야 되고, 지금 모듈 4개와 관련된 것은 또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런 전문가들이 과연 시중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LG엔솔이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검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협조받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범수 위원 전혀 없었다, 그렇지요?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검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겠지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확인한 결과로는 LG CNS의 대리점, 기술 지원이 가능한 업체의 담당자가 슈퍼바이저 역할을 맡고 현장을 감독했다고 들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대로 진짜 전문가들은 참여를 안 했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전원 문제입니다.

국정자원은 전원을 차단한 지 40분 후에 불꽃이 튀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제조사에 따르면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옮기게 될 경우에는 충전율 30% 이하의 경우를 만들어서 옮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LG엔솔?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검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예.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검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출하할 때 SOC, 그러니까 30% 충전된 상태를 그 이하로 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 과연 30% 이하까지 충전율이 떨어졌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40분 전에 전원을 껐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연 그게 30% 이하까지 떨어졌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현장에서 정말로 부실한 관리고 부실한 사람들이 가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실제로 작업 과정의 실수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밝혀질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관님, 이런 사고가 나면 무슨 상황이 발생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복구할 예정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만 국민들이 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보자. 왜 이게 긴급재난문자가 아니고 안전안내문자로 보냅니까? 이게 그렇게 긴급재난문자로 취급할 사항이 아닌가요, 이런 일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닙니다. 재난문자는 중대본으로 전환되기 전에 보낸 거라서 그렇습니다. 중대본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재난문자를 보냈고요.

○**서범수 위원** 중대본 전환해서 했을지는 몰라도 처음에 시발할 때는 행안부에서든지 국민권익위원회든지 법제처에서 각각 전부 안전안내문자로 간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게 너무 나이브하게 행동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닙니다. 재난문자를 보낼 때는 특히나 야간이나……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구 상황에 대한 혼선인데, 647개 중에 지금 10월 1일 14시 기준으로 15.6%, 101개거든요. 그러면 오늘 보고서 뒤에 보면 647개의 항목들을 다 적어 봤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정작 궁금한 것은, 이 647개 중에 어느 것은 지금 현재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어느 것은 중단이 되었는데 그 중단된 것 중에는 언제 개통을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오늘은 몇 개가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프로 지금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지 앞으로 제공받을 중단되었던 서비스가 언제 복구가 되고, 어떻게 언제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그것은 네이버나 다음 포털을 통해서 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서범수 위원** 그게 안내를 하는 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정도지 지금 중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언제 복구가 됩니다’라는 정도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언론에 매일 한 차례씩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복구되는 데 필요한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항목이 언제까지 되는 그런 걸 정보를 제공을 해 주셔야지요. 왜 자꾸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시한을 파악할 수 있는 한에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것 아니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게 중단이 되었고 이 중단된 게 언제 복구가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서너 개 났어, 그것 제공합니다 정도를 알려 주는 것밖에 더 있나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이상을, 647개에 대해서 복구가 완료된 것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언제까지 복구를 할 수 있다라고……

○**서범수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정도의 자료에, 647개 자료를 지금 제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복구가 되었다, 어떠어떠한 것은 복구가 되었고 어떤 것은 복구 예정인데 언제까지 복구하겠다 그 정도는 비고란에다 적어 주셔야 정말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가 안 되겠냐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 자료에 그게 표시되지 않았는데요.

○**서범수 위원** 그러면 647개에 대해서 표시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언론에 이미 다 공개가 돼 있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우리가 모르는데 자꾸 언론에 공개됐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신정훈** 조금 더 확인해 가지고 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장관님, 국가정보관리원 공주센터의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입니다. 지방재정, 지방세 등 36종의 주요 행정시스템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KLID는 아직 재해복구센터, 즉 백업센터가 전연 없습니다. 화재나 정전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입주해 있는 36종 시스템은 멈출 수밖에 없고요. 지방재정과 지방세 등 핵심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사실 행안부에서 기존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KLID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지역 데이터센터 건립 방안을 마련을 하고 2023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491억 원 규모의 백업센터 건립 예산을 건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토지매입, 건축설계까지 포함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당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은 무산이 됐고 2026년도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전산망 장애 이후 뒤늦게 지방재정과 지방세 분야에만 재해복구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기 시작은 했는데 ISP를 거쳐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완공 목표는 2026년 12

월입니다. 그때까지는 나머지 30여 개 시스템이 여전히 백업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KLID가 관리하는 것은 지방 세금 부과 또 예산집행 같은 국민 생활과 뿌리 깊게 직결돼 있는 행정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멈추면 끝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문제도, 백업센터 구축을 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백업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국정자원 화재 사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백업센터만을 가지고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중화를 통한,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이중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장직무대행님.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예.

○**한병도 위원** 이번 화재로 관리원의 리튬배터리가 384개가 전소가 됐습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런데 관리원에 총 1998개의 배터리가 한 곳에 보관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좀 많은 수량 아닙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지금 5층 7-1 블록 안에 있는 UPS실 배터리는 배터리팩 기준으로 384개가 전소돼 있고요.

○**한병도 위원** 관리원 전체……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관리원 전체는, 소실된 것은 그 정도 규모로 알고 있고 국정원의 전체 배터리팩의 규모는 제가 전체적인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병도 위원** 1998개가 한 곳에 보관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튬배터리는 충격과 과충전·단락에 취약해서 대량 보관실의 연쇄 폭발의 위험성이 크고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럼에도 문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또 화재예방법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방은 제가 봤을 때 아까 위험하다고 느꼈듯이, 한 곳에 있으면 인지를 하더라도 법령 부재로 어떻게 특별히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화재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정비 및 국가보안시설 및 데이터센터 같은 주요 기반시설에는 별도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대행님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지금 현재는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를 해 왔습니다. 배터리 기준으로 20kW 이상의 배터리인 경우에는 분리해서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도 특정 소방 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시설 기준을 강화를 해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이 24년 12월 30일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치한 데이터센터라든지 UPS실이 문제입니다.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소급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한, 시설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각 기관들

이 특히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 안에 있는 데이터센터만이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검토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지금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법 개정 이전에 됐던 것들은……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법은 돼 있고요. 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만 해 주시면 103개의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는 데이터센터 안에 스프링클러를……

○한병도 위원 현재 103개인가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0 그 정도 되면?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건물 면적과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산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간하고 공공하고 합쳐서 저희가 184개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시설 기준이 강화된 부분에 한해서 특히 공공에 있는 데이터센터 부분은 소급 적용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것 관련된 대책과 대안, 예산이 필요하면 그 규모 같은 것을 정리를 해서 제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김승룡 직무대행님.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예.

○고동진 위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요일 날 현장 내려가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당시 배터리 분리작업을 할 때 LG 측하고 현장의 작업자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했다고 이 이야기를 했지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 말씀은 제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현장에서 테이블에 있을 때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이달희 위원 했습니다.

○고동진 위원 아니,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예.

○고동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오히려 추가 질문을 한 게 ‘어? LG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예, 같이 있었습니다’.

○이달희 위원 있었다고……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작업자가 있었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이달희 위원 LG 식구 있었다고 했었어요. 있다고 하셨잖아. 우리 다 들었……

○고동진 위원 LG하고 LG엔솔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 국회의원분들 다 들었는데.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배터리 분리작업은 민간에서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특정업

체 LG에서 했는지 다른 업체에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은 안 드렸고 작업자가 투입이 돼서 분리작업을 했더라는 말씀은 제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아니, 여기 다 들은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 부분은……

○**고동진 위원** 그렇다칩시다, 기억이 가물해서……

아니, 그러면 누구한테 혹시, 누가 작업했는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본인이 확인한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 화재가, 초기에 배터리 분리·반출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제가 최초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제가 작업자……

○**고동진 위원** 그 당시에는 현장에서, 분명히 여기 전부 다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다치고.

정재한 LG에너지솔루션의 최고품질관리자는 LG CNS나 LG엔솔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배터리 분리작업을 한다 이런, 사전에 연락을 받거나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검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엔솔에서 없었습니다.

○**고동진 위원** 아니, 제가 사실은 직무대행 그 말씀 때문에 배터리 전문업체가 있었으면 이런 사고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LG CNS하고 엔솔을 불러 가지고 제가 국회에서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여쭙보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때 마침, 이것 오늘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참 어이가 없는데……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위원님, 아니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특정 업체에 대한……

○**고동진 위원** 아니, 그때 ‘LG엔솔하고 현장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2인 1조로 작업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작업자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고동진 위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원장한테 여쭙게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고동진 위원** 배터리 화재 본질과 핵심은 배터리 분리 작업 중에 과실이 크다고, 저도 나름 배터리를 오래 다뤄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동진 위원** (배터리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배터리, ESS 안의 배터리는 아닌데 가장 유사한 모델, 이게 한 56개 정도가 ESS 안에 한 팩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LG엔솔, 맞지요?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검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예, 맞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것 3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가장 큰 2개의 업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이설할 때 작업 가이드라

인을 받아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 이게 똑같습니다, 사실은. 아주 심플해요. 이게 두 회사 모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배터리 분리할 때는 충전 상태, 아까도 말씀하신 SOC라고 하는 스테이트 오브 차지(State of Charge), 그러니까 충전 상태를 30% 이하로 낮춰서 작업한다.

두 번째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하고 랙별로 BPU 전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그다음에 케이블 분리 시에는 전동 드라이버는 절대 금지하고 반드시 절연 장비 그러니까 드라이버도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공통된 가이드라인인데 정재한 최고품질관리자님, 제 얘기에 틀린 게 있습니까?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겸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고동진 위원 원장님은 이런 사항들을 추가로라도 보고받으신 바가 있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이번 화재 사고 이후에 과정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직원들하고 다시 면담하면서 여기 주신 얘기 중에서 배터리 SOC는 80% 정도 됐었다고 하는 것을 하기는 했었고요.

○고동진 위원 배터리 업체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배터리 충전용량 즉 SOC를 30% 이하로 낮추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30% 이하로 낮추기만 해도 전기 단락에 의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이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분리작업 이전에 방전을 했더라면 로그 기록이 남아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에. 그 로그 기록에 대한 것 혹시 얘기 들어 봤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로그 기록을 확인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었는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저기 나오는 방전율에 대한 얘기는 들었고요.

○고동진 위원 얼마나…… 30% 이하로 낮췄대요, 아니면 그 이상이래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동진 위원 나중에 보고는 받았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고동진 위원 그 당시에 사실은 만약에 30% 이하로 안 됐다면 그다음에 UPS 전원을 내렸는지 그다음에 BPS 이것을 단락을 시켰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다음에 화상에 자료 화면을 한번 띄워 볼까요?

이게 배터리 프로텍션 유닛(Battery Protection Units)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보면 빨간 글씨가 나오는데 여기 UPS는 랙 전체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고 이 배터리 DC 차단기라고 하는 배터리 프로텍트 유닛을 무조건 전원을 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DC 차단기, AD 차단기 전부, 소위 두꺼비집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신정훈 1분.

○고동진 위원 그다음에 배터리는 전류가 통할 수가 있어서 그다음 화면을 보면 절연 공구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이것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작업자가 쓴 장비가 그때 소방청장직무대행이 얘기하기를 드릴로 이렇게 하다가 불꽃이

튀었다 이런 얘기도 거기 현장에서 들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신뢰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런 절연 장비 쓴 것은 혹시 확인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일반 장비였어요? 원장한테, 혹시 나중에라도 보고받은 게 있는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도구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전력 내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UPS에서 배터리 전력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아까 저렇게 여러 종류의……

○**고동진 위원** UPS는 내렸는데 BPU는 못 들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UPS에서 배터리의 전원을 내린다고 들어서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일파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간단히……

○**위원장 신정훈** 예.

○**박수민 위원** 제 시간 1분 드려도 됩니까? 고동진 위원님에게 제 시간을? 제 시간이 1분……

○**고동진 위원** 박수민 위원님 시간을……

○**박수민 위원** 워낙 전문가라서, 그렇게 제 시간에서 1분 깎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그렇게 하세요.

○**고동진 위원** 고맙습니다.

국가정보관리원이라고 하는 기관은 특성상 사실 서버가 가장 중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배터리 전원 공급장치도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간업체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십분 이해하고 가지고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았나라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동의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원이 훨씬 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동진 위원** 행안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고동진 위원** 당시 배터리 이설 작업했을 때 작업 인원이 13명이다, 8명, 15명 그러다 11명 이렇게 계속 바뀌었는데 이게 뭐 정황은 물론 굉장히 정신 없었고 그랬겠지만 이렇게 현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보고가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그다음에 국정자원에서 파악한 사항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들이 각각 다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동진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 내부 CCTV를 보면 작업상의 문제나 이런 것 정확하게 파악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장관님은 CCTV 이것 내용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고동진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자료 요청을 행안부하고 경찰청에다 동시에 요구했는데 어쨌든 오늘 되는 대로 제출을 요구를 했던 거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추가 질문하시지요.

○**고동진 위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출이 안 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저는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방금 회의 진행 과정에서 박수민 위원의 1분을 빌려 드린다 그랬는데 그런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고동진 위원님 1분을 제가 더 추가적으로 드린 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각기 계속 주장되면 회의 진행에서 또 많이 착오가 생길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 자리에서는 국가정보자원 원장님이 안 보이십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배석하시는 기조실장님과 디지털정부혁신실장님은 제가 질문할 수 있으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도록 마이크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화재를 저는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판교 데이터센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리고 23년에 정부 행정망이 다운됐을 때, 그 두 번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적극 대응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PPT 띄워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정부 행정전산망이 다운되고 나서 곧바로 24년 1월 31일 날 당시에 행안부는 정부 전산망 먹통을 막겠다고 관계부처 합동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디지털정부혁신실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는데 이때…… 발언대에 앉아 계시면 앉아 계셔도 되십니다.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요 3일 내에 복구하겠다는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단장으로 계셨지요?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셨지요?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세 시간 발언은 전 원장이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23년도에 국가행정망이 다운됐을 때 24년 1월 31일 날 이제 제대로 하겠다고 낸 게

누구예요? 행안부 문건 아니예요? PPT 안 보이세요, 실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그때 당시 행안부에서 낸 것 아니예요, 주관해서?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장애 대책을 발표한 건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 주무 부서가 당시에 행안부였잖아요.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예.

○**윤건영 위원** 왜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못 합니까?

다음 PPT 봐 주세요.

기조실장님하고 같이 디지털혁신실장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행안부가 1등급·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기준치를 줘요. 1등급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보고해라’, 2등급은 ‘하지마. 좀 더 상황 보고해’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두 사람 중에 아는 사람 답변하세요.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예산 수립 기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자, 이런 지침 때문에 이번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어디 가서 원인을 찾습니까?

다음 PPT 봐 주세요.

그렇게 말 많던 공주센터, 공주센터라는 게 대전센터를 이원화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공주센터 예산이 올해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기재부가 칼질했다고 이야기해요. 기재부 알아보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행안부가 철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어섰으니까 기조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행안부가 철회한 겁니까, 기재부가 칼질한 겁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그 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윤건영 위원** 왜 기억을 못 합니까, 당시 기조실장이었는데?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부 예산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게 논란이 돼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당시 기조실장이어서 제가 부른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제가 바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대전 화재가 터진 지가 언제인데 이걸 파악을 아직도 안 했습니까, 이 중요한 사안을? 언론에 연일 도배되는 이런 사안을? 이게 말이 됩니까?

앉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파악한 사항을 답변드릴까요?

○**윤건영 위원** 예, 장관님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행안부에서 29억 5000을 예산으로 줄여서 한 것이 본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본사업을 1차년도 사업 신청을 했다가 시범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하면서 액수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장관님, 이게 본질적으로는 예산을 철회한 겁니다. 즉 국가망 사업의 관리주체인 행안부가 되게 안일하게 봤던 거예요, 이 시간까지도. 범정부 대책을 내놓고도

대단히 안일하게 본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 이번 대전 화재로 인해서? 데이터가 영구 손실된 겁니다. 이 PPT 보시면요 대전센터의 전체 데이터가 64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서버 이중화, 가장 제대로 된 건 4%밖에 안 돼요. 스토리지 이중화 2%밖에 안 됩니다. 원격지 소산 54%밖에 안 되고요. 아무 조치도 안 한 게 248개나 됩니다. 지금 248개 데이터 찾지를 못 해요.

원장님 맞습니까, 아십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DR은 그게 맞고요.

○윤건영 위원 아니 맞냐고, 안 맞냐고 제가 묻습니다. 248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해 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복구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영구손실될 가능성이 높은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힘들다는 건 맞습니다. 백업만 되어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지난번 우리가 대전 화재현장 갔을 때 원장님 저희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구는 100% 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런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제가 이걸 확인, 확인, 또 했습니다.

‘복구는 되는데 시기가 문제지요?’라고 두 번 세 번 확인했는데, 원장님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복구 100% 됩니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그때는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윤건영 위원 시스템이 아니라, 말을…… 국회의원들 앞에서 장난을 하는 거예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죄송합니다.

○윤건영 위원 이게 죄송하다면 될 일입니까? 국가의 중추적인 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망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 국민을 대리해서 질문한 국회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것을 덮을 줄 알았어요? 이런 게 덮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저는 정말 답답한 것이 행안부가 이런, 조금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거짓에 거짓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세요.

원장께서 그때 시방서에 따라 작업 순서 진행들을 그대로 했다고 우리 중대본에서, 언론 브리핑에서도 이런 브리핑한 적 있어요, 없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 시방서대로 작업하셨어요?

원장님 묻습니다. 시방서대로 작업했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그것은 지금 조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윤건영 위원 아니 조사가 있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이걸 알고 있잖아요, 시방서대로 작업하셨는지, 안 했는지.

시방서대로 작업하셨어요?

다음 PPT 봐 주세요.

이게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올 1월 달에 전기공사에서 나온 시방서예요. 다음 UPS 이설과 관련해서 ‘3-2, 제조사 혹은 유지관리업체와 협조하여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돼 있

습니다.

제조사 유지관리업체 누구입니까, 원장님? 누구예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이피파워라는 UPS 업체……

○윤건영 위원 이피파워가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협조하에 했습니까?

다음 PPT, 작업현장에 이피코리아는 아예 없었어요. 시방서대로 안 하신 거예요.

다음 PPT 봐 주세요.

배터리 이설작업 할 때 시방서에 나옵니다. ‘4-2,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제조사 측의 안전 가이드에 기반해서 충분히 보양 후 이설한다’.

배터리 제조사 어디입니까, 원장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제조사 LG엔솔입니다.

○윤건영 위원 다음 PPT, LG엔솔이나 CNS 모두 작업현장에 있었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LG CNS 파트너사로 확인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파트너사라는, 자꾸 그렇게 말 돌리지 말고요. 시방서대로 된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깎아 버려. 그리고 관심도 안 됨. 국민들한테 사기치듯이 세 시간 내로 복구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그래 놓고 공사는 시방서대로 하지 않아. 이러니 사고가 크게 나지요.

원장님, 이것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시방서가 뻔히 나와 있는데 시방서대로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들한테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시방서대로 했다면서요. 그리고 언론에 대고 시방서대로 했다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보관리원장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위원장 신정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는, 이 상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은 우리 관리원장 아닙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현장 방문할 때도 그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고 지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답변이라도 잘해야지요. 최소한 시간이 상당 부분 흘렀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국민들에게 이렇게 큰 불편을 야기해 놓고 답변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고 책임 회피식으로 하면,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아닙니다.

○위원장 신정훈 답변을 더 분명히 하시고, 알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계속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데 속기록에 안 남기면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들어와 앉아 주세요.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님, 방금 들어가시긴 했지만 다시 나오십시오.

아니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앉아 계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당이 되었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이긴 하지만 쟁을 건 쟁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온갖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됐고 심지어 그 과정 중에서 100% 복구가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놓고 언론 보도를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관리위원장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모경종 위원 왜 이런 사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런 허위보고 또는 국민들께 허위보고가 되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초반에 시스템의 개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스템이 멈춘 상태에서 좀 부정확하게 집계되고 조사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경종 위원 원장님, 평소에 이런 화재나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이나 매뉴얼들이 없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훈련은 제대로 하셨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소방훈련, 재해복구훈련, 백업복구훈련 이런 류의 관련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는 한번 더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당시에 작업자들이 배터리 단자에서 케이블을 분리했고 이때 스파크가 튀었다라는 증언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들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때 작업자가 1도 화상, 화상을 입은 걸로 전해지는데 이 정도 화상이 생기려면 아무래도 배터리가 완충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그 인과관계는 제가 알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은 없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거를 지금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사고가 났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중대한 상황인데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적어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터리 UPS 작업을 할 때 잔류전력이 높은 상황에서 케이블을 분리하면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배터리 교체 작업에서 잔류전력 소거는 기본적인 안전 절차인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기본 절차가 무시됐다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평소에 훈련을 제대로 안 했거나 매뉴얼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거나 아니면 안전 관리를 실패했거나, 이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요청할 테니까 꼭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든 이중화 실패라는 겁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모경종 위원 윤석열 정부 시기에 있었던 국가행정망 장애 사태 당연히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때도 시스템 이중화가 안 되어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모경종 위원 그때도 행정망 장애가 있었고 정부24나 여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 새올이라는 것 중단됐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을 테니까, 그 이후에 좀 했던 조치가 있던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이후에 즉각적인 이중화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모경종 위원 안 됐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되질 않았고요. 시범 사업을 이유로 내년 이후 사업으로 미뤄져 있었고, 내년에 이중화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경종 위원 마침 오늘이 10월 1일 국군의날인데 윤석열 씨가 국군의날, 지난번에 시가행진 할 때 들인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된답니다. 군이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중화, DR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75억 6200만 원, 이게 세수결손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반토막이 났다고 해요. 즉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왔다.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떤 향후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번 사고를 재난으로부터 우리 정부의 전산망을 지키는 또 안전을 지키는 그런 아주 소중한 계기로 생각을 하고 완전한 재난대비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민간업체로부터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액티브-액티브 형태의 이중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참 저도 답답합니다. 전임 정부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해 놓은 게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복구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향후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계획을 세워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중화를 완성시키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재용 관리원장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모경종 위원 DR체계가 뭔지는 아십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재해복구시스템을 말합니다.

○모경종 위원 이 지점에 대해서는 평소에 이것은 전문적으로 알고 계셨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 DR체계가 갖춰져 있었으면 대전센터가 멈춰도 즉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바로 넘어가서 서비스 중단 없이 계속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DR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지금 복구도 수작업으로 복구를 해야 되고 화재가 난 지 며칠이 지나도록 방금 원장님이, 성토하셨듯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시스템이 3분의 1도 복구도 안 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다루는 데이터는 단순한 그런 행정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운영의 심장이고 모든 것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이 요즘 현대사회의 많은 프로세스인데 이 심장 자체가 멈춰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책임 회피를 하실 생각이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책임 회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까도 아니고 이 상황이 재발하지 않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일 것 같아요.

DR센터 확장이나 클라우드 기반 분산체계 이것 관련해서 어떤 향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중화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되고 그 방식은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재해뿐만이 아니라 장애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강건함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정자원에 시스템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각 사업들은 기관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금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새로운 거버넌스와 혁신계획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러한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경종 위원** 좋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장님 같은 분들이, 책임자들이 책임 회피성의 발언을 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문제인지를 여기 있는 분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낱알이 말을 해야 함께 힘을 모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기계를 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책임 회피하는 발언은 앞으로 절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료 요구요.

무정전 전원장치 이전결정 결재문서 있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것 불임자료 그리고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문하고 관련 불임자료, 세 번째 업체 선정 당시의 RFP 주시고요. 네 번째, 입찰참여업체들의 제안서, 그 제출서류,

여기 감리업체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입찰참여업체 평가점수표 일체 그리고 입찰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일체, 무정전 전원장치 이전공사 관련 최종 공사계획서, 공사 내용, 일시, 작업자·책임자 포함.

지금 직원도 같이 와 있지요, 원장님? 직원들 여기 같이 오신 분들 있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원외 출입기록, 24일·25일 출입기록일지.

여기는 보안시설이라 정문에서 체크를 하잖아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출입 체크만 하면 몇 명이 왔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것 일체 좀 주세요. 직원들이야 뭐 필요 없는 거니까 외부 출입하신 분들.

그리고 감리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부사장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박덕흠 위원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좀 와 주실래요, 감리업체, 대평엔지니어링?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끝내셨습니까?

○박덕흠 위원 이제 질의하려고 나오시라고…… 의사진행 아니고 자료 요구했어요.

장관님, 오늘 대전경찰청이 발표를 했는데 4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봤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분들이 화재 현장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화재 있던 현장 직원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현장 직원도 있고 관리원의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것 현황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재배치 이전 건으로 감리업체 계약 체결한 내용이 어제 있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제 보고를 받으셨나요, 감리업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요?

○박덕흠 위원 예, 장관님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박덕흠 위원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어제 정부에서는 감리업체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쭙보는 겁니다.

감리 부회장이세요, 단장님이세요?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아닙니다. 부사장입니다.

○박덕흠 위원 예?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부사장입니다.

○박덕흠 위원 부사장님, 그 현장 책임에 관여돼 있습니까?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지금 제가 총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

○박덕흠 위원 총괄하고 있어요?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내용을 다 아시겠네?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24일, 25일 날 직원이 몇 명 갔습니까?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그 현장 상황에서 그날 야간 작업에서는 1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박덕흠 위원 1명?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예.

○박덕흠 위원 왜 1명뿐이……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주간에는 3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오버타임 시간대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서 1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지금 4명이 상주하게 돼 있잖아요?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상주 감리는 3명이고……

○박덕흠 위원 비상주는?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비상주 인원이 1명입니다.

○박덕흠 위원 비상주 인원 1명 해서 4명이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낮에 3명이면 1명 비상주 인원은 없었네요?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예, 기술지원은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박덕흠 위원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예, 법적으로……

○박덕흠 위원 그런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그 사람이 쉴 때는 다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요.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상주 감리인원이 그럴 경우에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비상주 인원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주간·야간 똑같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감리에서 3명이 만약 있었다면 3명이 같이 있어야지 왜 1명만 있습니까?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야간 작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3명이 상주하지만 야간에는 교대로……

○박덕흠 위원 아니, 거꾸로지, 주간보다 야간이 더 위험하지요.

그러면 계약할 때 야간조는 1명 있겠습니까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아닙니다. 그것은……

○박덕흠 위원 그런데?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그것은 처음 발주할 당시에 공사비 대비해서 인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야간 작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발주처하고 협의함

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리가 왜 있습니까?

책임감리예요?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예.

○박덕흠 위원 책임감리인데 공사를 야간에 하든 주간에 하든 그것 돼 있는 상주 인원이 있어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야간이 더 위험합니까, 주간이 더 위험합니까? 그러면 왜 감리가 있어요? 감리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감리에서 또 하도급 준 건 없어요?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없습니다.

○박덕흠 위원 원장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박덕흠 위원 지금 얘기를 들으셨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박덕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볼 때 감리용역비가 4억 8000이던데…… 감리가 최종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전원이 잘돼 있는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다 일일이 점검을 해서 감리일지도 쓰게 돼 있지요? 감리일지 다 있습니까?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예, 다 제출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어디다요?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경찰서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저희 의원실에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셨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그런데 제가……

○박덕흠 위원 아까 말씀했었는데 그런데 원장님은 지금 아시는 게 없어, 도대체. 몇몇 번에 고동진 위원님께서 물어봐도 UPS 차단은 그냥 모른다, 절연장비 사용 여부도 모른다…… 지금 현안 보고하러 오는데 그전에 다 파악을 해서, 지금 사고가 난 지가 5일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무조건 모른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큰 사고 내 놓고 왜 그렇게 태연하십니까?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감리업체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야간에는 1명 쓰는 걸로? 만약에 그렇다면 책임져야 돼요, 원장님이. 그렇잖아요. 1명 맞아요, 원장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추가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투입 인력 비율로 협의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과정이 정확했는지는……

○박덕흠 위원 지금 감리가 모든 책임을 다, 책임감리인데 어떻게 인원을 줄여서 계약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원장님 책임지셔야 될 것 같고, 누가 담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답답합니다, 진짜. 이게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고가 나게 돼 있네, 지금 구조가.

그러면 상의를 우리 원하고 야간조 1명, 주간조 3명 이렇게 결정을 보신 겁니까?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결정을 본 게 아니라 주간에는 당연히 3명을 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 작업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1명씩 상주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발주자 승인을 받았어요?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예.

○**박덕흠 위원** 누구, 승인은 원장님이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아닙니다. 아마 현장에서 관리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결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 원장이 뭐 하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

○**위원장대리 윤건영**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박덕흠 위원** 1분만 더 할까요.

그리고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덕흠 위원** 아까 시스템 복구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화재 영향이 낮은 317개 시스템 신속히 복구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30개 복구된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330개가 복구된 것이 아니고요. 330개는, 96개는 사실상 소실되어서 이전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50여 개는 그을음이 많이 앓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해서 다시 가동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최소한 2주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박덕흠 위원** 지금 앞으로 2주입니까, 25일부터 해서 2주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6일, 그러니까 27일 저녁 오후 6시에 화재가 진화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로부터 2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덕흠 위원** 대략 2주 정도 걸린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위원장대리 윤건영**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LG에너지솔루션에서 비슷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CNS에서 제출한 점검내역서 보니까요 전압 차이로 배터리팩의 온도 편차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배터리의 내구연한과 화재는 큰 상관없이 없다고 지적을 주셔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전압 차이로 인한 배터리팩의 온도 편차가 정상 범위를 초과한다 이런 것도 화재 원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단정적으로 말씀 안 주셔도 됩니다.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겸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압 편차가 생기면 그 전압 편차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셀 밸런싱이라는 기능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셀 밸런싱이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

음에 셀 밸런싱이 다 안 만들어졌을 때는 과충전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과충전이 되는 시점에 알람이 울리고 그다음에 프로텍션이 걸립니다. 즉 과충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BMS 솔루션으로 해결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성희 위원** 그런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일단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구연한 안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이와 관련해서 권고하고 있는 내구연한을 지키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그것을 조정해서 쓰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화재 책임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더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당연히 내구연한 안에 교체를 했어야 합니다만 아마도 예산상의 이유로 미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전산실 내 배터리 얘기 관련해서 좀 여쭙보고 싶은데요. 요즘 리튬 배터리가 많이 문제된다는 것은 장관님도 알고 계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고 있고 2022년도에도 카카오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성희 위원** 소방청장님, 이것 관련해서 보니까 국가정보관리원은 할로겐 소화설비라는 게 설치돼 있던데 이게 어떤 원리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이번에 화재 장소가 7-1 블럭 안의 데이터센터와 UPS 용도의……

○**김성희 위원** 할로겐 소화설비만 좀 설명을 간단히……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 설을 설명해야 바로 할로겐 소화설비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센터 데이터서버실과 배터리실이 같은 구획된 안에 있는데 그 안에 할로겐 소화설비가 있는데요. 열이나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를 하면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할로겐 소화설비가 터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질식소화, 산소를 제거해서 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배터리실의 열 폭주로 인한 화재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할로겐 소화설비는 물이 아닌 가스 형태로 한 건데 이것을 설치한 이유는 아마도 전산장비, 서버가 들어 있기 때문이었겠지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리튬이온 배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물로 끄거나 물 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고압 살수를 할 수밖에 없지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장관님, 지금 소방청의 말씀 들으셨지만 가스로 해야 되는 할로겐 장비를 넣어 놓고 거기에다가 물밖에 끌 수 없는 배터리를 같이 넣어 놓는 것 자체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 7-1 전산실의 리튬 배터리를 서버 바로 옆에 설치한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성희 위원** 그 뒤로는……

원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점검이 좀 되셨습니까, 예전에? 이번에 옮기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나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SKT 데이터센터 화재사건 이후로 계획해서 작년에 공

사하고 올해 옮기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희 위원** 저희 데이터센터는 티어로 치면 몇 티어쯤 되고 몇 티어로 올리실 계획을 갖고 지금 원장을 하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

○**김성희 위원** 지금 원장님 수준이 이렇습니다. 자기네 데이터센터의 티어가 몇 티어인지도 모르고 몇 티어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본인 계획이 있어야 예산 신청을 하든 뭘 하든 할 텐데 데이터센터의 티어 개념 자체가 없으셔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는 분이 일을 하셔야지, 이게 그냥 행정부 관료가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장관님,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디지털실장이 2024년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구축 예산을 쓰지 말라고 부처에 지침을 내린 장본인인데 이 사람한테 지금 관련된 사건 수사를 맡기고 조사를 맡기는 게 맞습니까? 기조실장도 작년에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 기조실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번 지방세연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점검하라고, 보라고 말씀하시면 장관님 앞에서는 잘 듣는 척 하겠지만 이게 제대로 결과 보고가 올라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두 실장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아직 인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두 실장의 보고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희 위원** 어쨌거나 디지털실장이 이거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조사를 하라고 시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관님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조사를 시키고 있지는 않고요, 차관을 직접 현장에 보내서 상황실을 차리고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장관님, 이번에 화재가 난 대전 자원 시설이 95년도에 KT 전신 전화국 건물을 임차해서 개조해서 했다는 게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맞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이런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건조물이 아니라 그 안에 항온항습이라든지 무정전 또 서버와 여러 가지 기구를 견뎌 내는 하중, 이런 특수시설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건물을 계속 써야 됩니까?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합당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리로 이전을 해야 되는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 정보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은 장기적으로는 이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당장 최대한 빨리 이전을 해야 됩니다.

○**양부남 위원** 당장이라도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같은 서버에다가 UPS 장치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같은 공간에요.

○**양부남 위원** 같은 공간에 설치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언제 설치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보고받기로 그것은 2014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 설치될 당시에 현재 임대한 건물에 공간이 없어서, UPS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그곳에 설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UPS 설치하는 서버와 분리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되도록이면 분리된 건물에 하고 같은 건물이라도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 UPS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데 그 건물의 한계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데이터 백업 실시 시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실시간으로 한다’ 그리고 ‘일 단위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주기를 정확히 지적하니깐 그때서야 월 단위라고 정정하셨어요.

그래서 백업 시기가 어떻게 된지도 정부에서 파악을 못 하고 어떤 언론은 시로, 어떤 언론은 일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관련 규정집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제 월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언론 보도는 원이나 행안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보도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규정을 보면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백업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소산하는 경우에 ‘소산은 백업 주기와 같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월 단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월 단위로 한다면 9월 26일 날 사고가 났으니깐 8월 30일에서 9월 26일 사이의 데이터는 완전 소실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데이터가 원 내 같은 전산실 내에 백업이 돼 있다면 소실이 됐습니다.

○**양부남 위원** 복구가 안 되는 거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같은 실 내에 있었다면 복구가 안 됩니다.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용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경찰에 4명이 입건됐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기사 봤습니다.

○**양부남 위원** 누구누구 입건됐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는 확인을 해 봤는데, 조사를 받기는 했는데 입건이 됐는지는……

○**양부남 위원** 조사받으면 입건되는…… 좋아요. 지금 원장님도 형사책임으로부터 자유

롭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배터리, UPS 장치 이전하는 거…… 이전할 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방서 기준도 있고 또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이러한 매뉴얼이 존재하는 사실 알았습니까? UPS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져야 될 이러한 기준이 있다는 그 사실 알았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저희 내부 규정이 있지는 않은데 배터리……

○양부남 위원 내부 기준이 됐든, UPS 옮길 때는 이러한 기준을 따라야 된다…… 시방서, 운전영 위원이 죽 이야기했지요? 또 고동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요, 가이드라인 딱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알았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양부남 위원 알았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양부남 위원 알았으면 이런 시방서와 가이드라인처럼 이전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누가 확인을 해야 되지요?

원장의 역할이 됩니까? 그러면 이거 실제로 담당하신 분은 누구예요, 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팀 말씀입니까?

○양부남 위원 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과 단위로 보면 저희 운영총괄과가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원장으로서 이러한 기준대로 작업이 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양부남 위원 작업할 때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가 봤습니다.

○양부남 위원 가서 뭘 보셨어요? 그러한 기준대로 작업이 되는지를 확인했습니까? 내가 볼 때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요.

그리고 UPS가 서버에 같이 설치된 것을…… 2년 전에 부임하셨다고 했지요? 2년 됐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양부남 위원 그러면 이게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이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양부남 위원 부임해서 무슨 조치를 했어요? UPS가 서버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것을 알고 원장으로서 위험시설 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그래서 24년에 지하에다가 배터리실을 만드는 공사를 했고요, 25년에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양부남 위원 그리고 리튬 배터리에 대한 소화시설이 지금 할로겐 시설이 돼 있잖아요? 할로겐은 조금 전에 소방청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가스가 나오면서 공기 속의 CO₂ 농도를 올리고 산소의 농도를 낮추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양부남 위원 그런데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은 뭐지요? 스스로 산소를 만들어 내지요. 그래서 열 폭주 현상을 동반하지요? 그래서 할로겐 가스시설이 전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담수가 유일한 해법으로 알고 있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부남 위원 그러면 할로겐 소화설비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이전과 수조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할로겐 설비를 바꾸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원장님이면 원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니까 그러한 조치를 생각했어야지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 배터리의 수명이 10년을 초과했습니다. 10년을 초과했다는 경고 조치를 받았지요? 수명이 초과됐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수명이 초과됐다는 것을 안 것은 이번 화재 이후에 조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어요.

○양부남 위원 그전에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작년 6월에 LG에서는 초과됐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던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정기점검에서 리포트가 나온 것을 봤고 이번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이 초과됐다는 것을 아셨으면 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으로서? 뭐를 하셨어요?

조금 이따 묻기로 하고.....

원장님으로서 내가 볼 때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제가 지금 러프하게 몇 가지 지적했는데 이러한 것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어요. 형사 입건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원장님, 양부남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면 답변을 정확히 좀 하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위원장 신정훈 정기점검 때 수명이 초과됐다는 것을 알았는데 본인은 이번에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위원장 신정훈 왜 그런 경위가 되지요? 정기점검 때 지적사항이 됐는데 본인이 이번 사고가 나서야 그 사실을 안 겁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이번에 사고가 나고 나서 그동안의 경위를 확인했고 배터리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가 올해는 정상이었었는데 작년에는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기사를 보고 다시 보고서를 확인해서 거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1개 항목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 편차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권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들어가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LG엔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게 원래 열 폭주 현상이 있어서 좀 위험하지요? 위험도가 있지요, 열 폭주?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검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예, 위험도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충격을 받거나 스파크가 터지거나 하면 화재로 갈 위험이 있지요?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검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예.

○박수민 위원 그리고 노후 배터리를 UPS 같은 데서 교체할 때 떨어뜨려서 충격을 받거나 스파크가 터지거나 해서 화재가 날 개연성이 있지요?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검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제가 벌써 인터넷에만 찾아봐도 이렇게 기초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그 즉슨 제가 요약해 보면 UPS 리튬 배터리 교체 작업은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냥 간단히 이것 이것 물건 교체하는 게 아니라 리튬이온 에너지라는 게 열 폭주가 나면 소방시설도 소용 없을 정도로 갑자기 영점몇 초만에 불이 터지고. 그리고 그 많은 리튬 에너지가 있고 떨어뜨리거나 스파크가 잘못 나거나 하면 무조건 화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지요?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검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행안부 디지털실장님, 8명 현장에서 교체 작업 투입됐다던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원장님한테……

○박수민 위원 이재용 원장님, 8명 어떻게 됩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전기업체 직원 4명이었고요. 배터리업체 직원…… 그러니까 배터리 지원하는 업체 직원 2명 그리고 UPS업체 2명이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원의 임직원 없었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저희 원에서는 공무원 1명, 그 외에 감리 1명이 있었어요. 공무원 1명, 안전방제실장 1명 그다음에 방제실 직원 4명, 그래서 총 15명이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 방제실 직원들은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전기, 기계 골고루 있는데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의 직렬이, 몇 명이 어떤 직렬이었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수민 위원** 확인하셔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라 그래서 전산 직렬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시설이나 전기나 이런 분이 하셔야 되는 거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그 구성이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작업 자체가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대한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 노후된 거고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20~30% 아래로 방전을 하고 해야만 되는 작업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이 굉장히 허술하게 진행이 됐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80%라 그러니까…… 80%면 그 자체로 위험하지요. 한두 개도 아니고 떨어뜨리거나 단자에서 스파크가 터지거나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 개연성은 인지되시나요, 지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확인할 때 왜 그렇게 작업이 됐는지 확인을 했어요. 물론……

○**박수민 위원** 뭐가 부족했습니까, 안전수칙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그 80% 말씀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전기의 안전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기를 끊고 배터리만으로 하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환경에 따라서는 그렇게 한다고도 해서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지나고 나서 본 거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론적으로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단히 위험한 리튬 배터리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면서 80%의 에너지를 담아 놓고 충격이 발생하거나 스파크가 터지면 무조건 사고 나는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다룬 거예요. 어이 없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배터리 교체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슬아슬한 작업이라는 건 이제 인지가 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젠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이런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이런 배터리 교체 작업 또 대기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향후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현재 7전산실에도 아직 리튬 배터리가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대전만 있고 광주나 다른 데는 이런 일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전이고요, 이게. 대구와 광주는 데이터센터로 전문적인 건물을, 전용 건물을 새로 지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배터리실, UPS실이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리고 공주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박수민 위원 시설 분리는 잘돼 있는데 거기는 그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리튬 배터리입니다만 그 리튬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공간적인 이유라든가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리튬 배터리를 쓰게 되는데 리튬 배터리를 쓸 때는 반드시 공간 분리를 완벽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화재에 대한 수조라든가 방화시설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박수민 위원 요약해서 딱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중화가 안 돼서 지금 전 국민이 상당히 놀라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게 백업이 안 되는구나’…… 이 핵심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중화가 안 됐던 이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게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이중화 작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못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한 4%, 2% 이렇게 이중화가 됐다고 하는 것도 단지 일종의 시스템 백업을 별도로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결국은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사이에 복구하는 데, 다시 재가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어떤 장애가 발생해도 문제가 안 생기게 이중화를 액티브-액티브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압축성장기에 너무 빨리 정보사회로 넘어오면서 충분한 시설을 제대로 안 하고 시작했고, 그러나 전자정부 또 디지털정부 이런 것에 세계 1위라는 그런 타이틀에 도취한 면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이런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개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입니다.

이재용 원장님, 죄송한데 잘 안 보여서 앞으로 좀……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원장님에 대한 질의가 많아서조금 힘들긴 하시겠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의 역할이 됩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영하는 전산장비, 데이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안정성 있게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핵심 국가전산망이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박정현 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여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23년 5월 30일부터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23년 5월 30일……

그러면 그 직전에 국정자원원장이 강동석 씨였나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됐을 때 강동석 그 당시 원장이 국정자원 대전센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재가 나든 지진이 나든 어떤 일이 있어도 데이터가 소실되지 않는다, 다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이라는 게 있네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박정현 위원 아마 이 표준안에 따르면 1등급 시스템은 2시간, 2등급은 3시간 이내에 복구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강동석 원장이 얘기한 것은 그것보다는 재해가 났을 때 이쪽 시스템이 죽었을 때 저쪽 시스템을 다시 가동할 때의 시간 3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 같은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핵심 전산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면 이 표준안에 의거해서 점검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부임했을 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박정현 위원 점검했는데 안 됐었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그래서……

○박정현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2023년 5월에 부임하셨는데 2023년 11월 달에 행정망 먹통사고가 일어났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먹통사고가 일어나면서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액티브-액티브 형태의 이중화를 해야 된다고 그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얘기했고 전문가들도 얘기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거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박정현 위원 그 부분에서 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저희가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 검증과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24년……

○박정현 위원 그 생각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된 건지, 아니면 원장의 생각을 행안부가 받은 건가요, 그러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그때……

○박정현 위원 원래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얘기하고 예산도 주겠다고 얘기한 것 아니었어?

윤석열 정부에서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잖아요, 시범화 사업이라는 게 아니었고.

시범화 사업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원장이 주신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신 겁니까?

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거기서 얘기하는 이중화는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서버를 두 대로 놓는다는 의미의 이중화였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중화는 한쪽이 무너졌을 때도 서비스가 살아날 수 있는 이중화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얘기한, 이번처럼 화재라든가 이런 일에도 견딜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같은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고요, 원장님께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그래서 당시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 왜냐하면, 24년에는 당연히 23년 말에 예산이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2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컨설팅과 실증·검증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25년 예산으로 25억 원 정도를 받아서 올해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 내부 운영 시스템입니다.

○**박정현 위원** 2023년 행정망 먹통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왜 먹통 사태가 있었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그때는 라우터 장비에 포트 불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박정현 위원** 감사원 감사에 보면 내용연수가 최대 9년이 지난 것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그런 지적도……

○**박정현 위원** 그러면 자체 점검을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그것은 아닙니다. 노후 장비에 대한 것은 항상 노후화가 오래된……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지요?

지금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UPS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도 지난해 6월에 정기검사 결과에서는 정상이 나왔지요. 지난해에는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10년이라는 내용연수가 지나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앞서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것까지는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결과는 어떻게 보고받습니까? 보고 안 합니까, 원장한테? 해당 부서에서 그냥 알고 마는 겁니까? 보통은 원장이 모든 정기점검이나 서류들이 올라오면 보고 결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내용 안 보고 결재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

○**박정현 위원** 왜 그 자리에 계시는 거냐고요.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역할을 이행하셔야지요. 그래야지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점검한 것 보고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점검이 있었다, 이상 없었다 결재를 하는 건 아니었고

요.

○박정현 위원 그냥 이상 무, 끝. 이런 건가요?

정기점검 과정에서 6월에는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이게 배터리 연한이 지나니까 교체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그 보고서를 하나하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게 멈추면 안 되는 전산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산시스템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난맥상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이재용 원장님, 제가 계속 느낄수록 원장님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분이 계신 거예요.

2023년 새올시스템 먹통 사태 당시에 행안부 감사 받으셨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정춘생 위원 그때 어떤 조치를 받으셨습니까, 원장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저는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정춘생 위원 경고받으셨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정춘생 위원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사태 해결이 다 이랬던 거예요. 책임자들한테는 그냥 아주 경징계나 경고, 그런데 하부·하급 직원들한테는 중징계 주고. 그 당시에 보니까 운영기획관은 정직 3월 줬어요, 나중에 직권면직시켰고.

그런데 그때 감사 결과 원장 경고 조치 사유가 장애 당일 입주부처 서비스 장애 188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장애 접수 관리가 없었고 중요 전산 장애에 대한 소극적·관례적 대응으로 전자정부 담당부처인 행안부가 무능함의 비난을 받게 되는 등 위상을 실추시킨 책임이 있다, 소극적·관례적. 이번 사태에도 똑같이 소극적·관례적으로 원장님은 보여 주고 계세요.

거기다가 행안위원들이 현장보고를 갔는데 거기서 거짓말까지 하셨습니다. 그 작업을 전문업체가 같이했냐라는 질문에 분명히 전자 해당 업체 LG솔루션을 포함해서 2인 1조가 작업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묻는 과정에서 뭐라고 했지요? 계열사? 파트너사?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도 됩니까? 파악이 안 됐던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거짓말을 했던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LG에너지솔루션하고 파트너사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아닙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정춘생 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하셨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몰랐던 겁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거짓말할 의도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면 몰랐던 겁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아마 말씀드릴 때 좀 헛갈렸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LG……

○정춘생 위원 어떻게 헛갈릴 수가 있습니까, 그 중차대한 문제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죄송합니다.

○정춘생 위원 담당 행안위 위원들이 현장에 갔잖아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잖아요. 어떻게 헛갈릴 수가 있습니까?

장관님,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2022년 10월, 당시 그때 카카오톡 사태 났을 때 정작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다 중화시스템을 도입해라 주문했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안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당시 국정자원 원장이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재해복구시스템은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말씀드린다’, 완전한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세월호 때 구명조끼 입어서 아이들이 다 살았다, 그 당시 정부의 대응이 오버랩되더라고요.

그런데 그후로 1년 후에, 2023년 11월에 새올시스템·정부24 마비됐을 때 올 스톱된 적이 있지요, 원장님 시기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정춘생 위원 그때 정부는 또 발표했어요.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방어벽 등 모든 장비는 물론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해 이중화를 진행해 무중단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이것 이행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이게 왜 안 됐습니까? 예산의 문제지요? 예산 반영이 안 됐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75.6억 요구를 했는데 확정된 것은 29.5억인데요, 이게 공주센터하고 대전센터의 이중화 시범사업 예산을 요청했는데 대전센터의 관리운영 체계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리운영 체계가 서브시스템이 9개가 있는데 그중의 2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그 경위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표는 해 놓고 정작,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24억 가량 같은데, 장관님이 29억이라고 하셨는데 시범사업만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했습니까? 안 됐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내년도 예산에 이중화사업에 대해서 일부 되어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저는 연구용역사업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할 때 ‘이중화 방안 마련 및 이에 따른 예산 확보 추진’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겁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번 예산 신청할 당시에, 정부 예산을 확정할 당시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그것이 모자르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은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딘가의 예산을 깎아야 이게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지역구 예산들을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이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된다.

정말 이게 용역사업이 아니고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1분만 더 주십시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바우처앱이 지금까지도 접속 불가로 이용에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고요. 각종 복지서비스에 쓰이는 국민행복카드도 중단돼서 미혼모가족이라든가 다자녀가족이라든가 제공되는 지원도 지금 끊기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체국쇼핑몰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런 피해복구 지원 예산도 이번에 저는 반영을 해서 정부가 충분한 책임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복지24의 경우에는 바우처 발급 그리고 결제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결제를 한 경우에는 후정산을 하는 방식까지도 동원해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손실이 있다면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홈쇼핑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체국쇼핑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추석 대목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서 공공기관들이 주문을 다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더해서 다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쇼핑몰에 입점을 시키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장관님, 100여 페이지 되는 위기관리행정정보시스템 매뉴얼이 있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걸 행안부에서 가지고 체크하고 있는 리스트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방 단계, 대비 단계, 대응 단계, 복구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안부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장수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첫째,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 탓하실 것입니까? 가만히 있는 배터리가 탄 게 아니고 배터리가 이동 중에 사고가 나서 화재가 난 것 아닙니까? 이동을 전 정부가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전 정부 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바로 뒤에 있는 기조실장,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실장들 다 장관님 오셔서 모시고 일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송미령 장관하고도 열심히 일하고, 일 잘하는 사람……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일 잘하는 사람 계속 같이 일하겠다면서요?

뒤에 세워 놓고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인사가 없어서 같이 일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 긴급한 상황에서 꼭 그렇게 말씀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다 꺾어 놔야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발언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고가 나서는 안 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 나면 항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응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배터리가 가만히 있는 게 났으면 노후……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행안부에서 잘못된 겁니다. 행안부의 관리지침 2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연수 경과한 노후장비의 신속한 교체와 중요장비 이중화 구성’, 이것도 행안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국자원을 시켜서 하는 일이겠지만 이런 것 다 체크해야 되는데, 이 점검 실태에 대해서 아직 자료 안 주셨는데 매뉴얼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다른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전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이달희 위원** 사전점검의 실태조사서는 저희 손에 안 왔습니다. 지금 매뉴얼만 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난 12월 9일 이후에 행안부가 장관이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7개월 동안 공백 상태에 있으면서 당연히 행안부의 각 실이 했어야 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런 기관보고도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받았습니다.

○**이달희 위원** 기관보고에서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작업을 할 때 원에서는 당연히 행안부에 이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렸어야 하는데 알리지도 않았고 또 파악도 못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내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이제 대응 단계입니다. 대응을 하면 사후 대책에 원인규명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긴급복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후대처에서 소방청장, 여러 가지 면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발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난현장에서는 정확한 파악과 그리고 일관된 발표가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당연합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야 복구에 대한 신뢰성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청장 대행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분명히 전동드릴을 가지고 해서 스파크가 나서 배터리에 불이 붙은 것 같다고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자회견장으로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발을 쭉 빼시더라고요.

말씀하실 때는 급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저도 재난현장 많이 관리해 왔는데요.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현장 상황을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명히 LG가 그때 2인 1조로 해서 함께 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게 특정 업체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고요.

○이달희 위원 고동진 위원께서 직접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 그날 우리 녹음해 놓은 것 들려 드릴까요?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달희 위원 전동드릴 얘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자회견 하실 때는 이게 국과수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다, 결과를 봐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이런 큰 사고가 나면 가장 중요한 건 정리를 해서……

행안부장관님, 아까 말씀하셨지요? 이 부처 저 부처 경찰 다르고 소방청 다르고 국가원의 발표가 달라서 혼선이 있었다, 이 혼선…… 전체 컨트롤타워가 누구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 중대본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여기서 이런 발표 하고 저기서 저런 발표 하고 들쭉날쭉 통계가 나오면 신뢰성이 잃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언론의 취재가 어느 쪽에서 취재했느냐에 따라서 명수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언론에 우리가……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1분 주십시오.

그러면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대본이든 어디든 국가적인 재난이 나면 대변인이든 누구든 한 명을 정해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가야 국민들이 혼선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진짜 파악하고 싶은 거는 119, 이번에 긴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119, 112, 우리가 주로 국민 생명과 그리고 범죄 이 2개로부터 국민이 보호가 돼야 되지요, 이 재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달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나 소방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 안전이나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 그 체계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치안과 소방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장을 안 받고 있습니다. 치안 112 신고체계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전혀 무관하게 유지가 돼 왔고요. 소방의 경우에 119 신고에 있어서는, 신고체계에서는 문자신고와 화상신고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장애가 있었는데 24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복구가 돼서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달희 위원** 대행님, 우리 국민들께서 위급상황에 119로 전화를 하면 예전하고 전혀 상관없이 시간도 똑같이 그대로 작동이 되는 겁니까, 출동도 그렇고?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예,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될 정도로……

○**이달희 위원** 구급, 소방 다 그렇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화재, 구조, 구급, 응급환자 관련해서 신고접수 하고 출동하고 조치하는 내용들에 이상이 없이 되고 있고요. 다만 위치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장애를 겪었는데요. 112 경찰에서 위치정보신호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도 이상 없이 지금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시간도 똑같습니까, 그러면?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시지요.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질의에 앞서서 국정자원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영팔 소방청권한대행님, 2024년 11월 25일 행안위 법안2소위에서 화재예방법 심의 당시에 소방안전특별시설물에 데이터센터 추가를 하는 법안이었는데요. 그 당시 의견이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제가……

○**위성곤 위원** 저희 회의록입니다. ‘과기부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의견을 감안할 때 중복 규제가 될 수 있어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저는 직무대행 김승룡인데요.

○**위성곤 위원** 예, 직무대행…… 그 당시에 이영팔 차장이 그렇게 답변했고 결국은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소위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방청의 책임 또한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자원위원장님, 2024년 5월에 취임하셨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2023년입니다.

○**위성곤 위원** 2023년 5월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위성곤 위원 누구한테 연락받고 국정자원원장을 맡게 됐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저는 과거에 공무원 경력이 있어서 이 자리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을 고민할 때 여기 자리가 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어플라이(apply)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소개에 의한 것이 아니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개방형 직위입니다.

○위성곤 위원 개방형 직위는 아는데 일반적으로 인사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부에서 내정돼서 보통 원장을 임명하는 게 관행이지요. 정권의 누구랑 친하게 지내셔서 국정자원원장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보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화재에 관련되어진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여러 의견이 있을 때입니다. 그해 1월 31일에 국무조정실에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기정통부에서 3월 30일 날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책 발표를 합니다.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혹시 이 강화 방안 들으셨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위성곤 위원 확인하셨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위성곤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 두 번째 신속 장애 극복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대응력·복원력 제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비한 디지털 위기 관리 기반 구축, 3개 분야를 발표를 합니다.

다음 넘겨 주시고요.

데이터센터 안정화 및 생존 강화 방안에서 재난 예방 강화, 10분 단위까지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BMS를 개선하고 구조적 안정성 확보, 저 화면 보이시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위성곤 위원 구조를 이렇게 하라고 그림까지 그려서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는 배터리 랙끼리 전부 다 붙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붙어 있었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불난 곳에 그랬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버와는 분리돼 있지도 않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당시 원장으로 가서 이 현장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셨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데이터센터 전문 건물이 아니라는 한계를 느꼈고 마침 판교 데이터센터 사건 이후에 배터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개선 작업을, 또 이동 사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동 사업을 하신 게 2023년에 가서 가지고 2년이 지나서 하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제 1번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보면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연속성, 그래서 UPS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것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이중화를 실시하고 다중화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민간에는 강력하게, 기존 통신업자에서 신규 데이터는 바닥이 2만 2500㎡ 이상, 수전용량 40MW 이상 되어진 또 매출이 100억 이상 되는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걸 봤다면, 저는 제가 원장이라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대처한 상황을 보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개선하려 하지 않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분통이 터져요. 국민들이 볼 때는 더 터질 것 같아요. 그 태연자약한 이런 행위가, 뭘 물어봐도 모르겠다, 결국은 그런 안일함이 그런 자세가 결국 이 사고를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카카오 사태에서 그리고 아리셀 화재에서 정부24 민원 먹통에서 위험성이 다 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원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사고 현장에, 앞서 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곳에서 뭘 진행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사고가 다 지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듣고 인지했고 알게 됐다…… 제 주도 말로 이게 말입니까, 보말입니까? 말이 아니에요, 책임자로서.

1분만 더 주세요.

윤호중 장관님,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기부와 함께 공동으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민들께 정리해서 보고를 명절 전에 해 주시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석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발표되는 것들이 중복되어지고 약간의 난맥들이 보여서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신속히 우리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장관님, 저는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번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하신 것 맞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상식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는 전 정권이다, 이번 정권이다 이걸 떠나서 차분하게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전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소방청장대행님,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안 있지 않습니까, 화재에 방법 개정법안? 그것을 이번에 대책으로 넣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데이터센터를 특별 관리시설물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센터는 그렇게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방대상물이 있고 특정소방대상물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그다음에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이게 등급이 굉장히 높고……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소방 당국에서 점검을 굉장히 자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강화되고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행님, 사실은 이 법안을 작년에 제가 발의해 가지고 소위에서 다툼 적이 있거든요. 그것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이십니까? 이중·삼중, 1차·2차 안전장치 이런 것을 뒤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복 규제가 다소 있더라도 소방청에서 이런 것은 총괄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됐냐 하면 이게 일부 부처에서 반대의견을 냈거든요, 그렇지요? 대표적으로 과기부하고 데이터센터에서 중복 규제라고 반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정보통신 그쪽 분들, 과학기술부 사람들은 그런 쪽에만 신경을 쓰지 소방이나 안전 이런 데는 전문지식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용혜인 위원님도 제 취지에 찬성을 하셔서 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과기부하고 이런 데서 딱 반대를 했기 때문에 성사가 안 돼서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올 1월 달에도 무슨 협의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데이터센터를 특별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은 화재예방법 개정 사항인데요.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이유가 데이터센터의 이 법이 통과가 되면 5년 기본계획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각 기관들이 합동검사도 하고 교육훈련도 강화하고 그래서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것들을 잡을 수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장관님, 제가 보니까 소방청이 아무래도 다른 중앙부처, 과기부나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협상이나 이런 데서 약간 밀리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장관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시기 때문에 소방청을 백업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래서 반드시 제가 보기에 이 법은 통과를 시켜 가지고, 지금 데이터센

터가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지목되고 있는데 첫째는 제가 보니까 우선 배터리 자체 또는 배터리 이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배터리가 내용연한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관리자님, 이게 아까 제가 대답 듣기로는 내용연한, 배터리가 노후화된 것하고 화재 발생 가능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아무래도 노후화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검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예,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보니까 2023년 행정전산망 쉼다운 그 감사원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9월 달에.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거기 보면 내용연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그때는 라우터라고, 2023년 사고에서는 라우터라는 부품이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내용연한이 9년인가 그런데 1년 남았었어요. 8년짜리인데 그런 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그것을 빨리 교체해 주면, 내용연한이 늘어날수록 장애율이 높아진다 이런 게 전체적인 취지인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이것은 벌써 내용연한이 넘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신속하게 교체를 해야 하는데 정부예산이나 이런 게 조금, 제가 보니까 이것은 누구의 정권의 탓을 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배터리 같은 것은 교체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말씀하신 이중화 그 문제인데, 장관님도 이중화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 우리 선조들이, 조선시대 때 똑같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를…… 서고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것을 5개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4개는 임진왜란 때 다 불탔는데 전주인가요, 한 군데 살아남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몇백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발전된 행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과거에서 아무런 교훈도 찾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중화하고 그다음에 법안 통과,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문제, 제가 보니까 장관님하고 소방 당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꼭 성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소방청장 대행님도 법률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좀……

지금 이게 왜냐하면 지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회경제의 발전 속도를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재명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저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몇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2022년 10월 15일 생겼었던 SK 데이터, 그러니까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 그다음에 1년 후지요 2023년 11월 17일 생긴 정부24 서비스 중단 안내 그리고 올해 생긴 국정자료 화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판교 데이터센터하고 국정자료 화재는 대단히 판박이입니다. 양자 모두 배터리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 및 복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SK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에 규제를 대폭 강화한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정부에서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강화 방안, 다양한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필요한 소화설비 구축, 배터리와 기타 설비 간 물리적 공간 분리, 전력선 재배치, 화재 등 재난 발생 구역 전력 개별 차단 방안, 현장 외의 곳에서 차단 그리고 핵심 기능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분산 및 다중화 적용 방안 수립,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 복구목표, 상시 대응조직, 복구 방안 수립……

이번 화재 만약에 SK 데이터센터에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내용대로 했으면 과연 일어났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SK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규제가 민간 규제는 대폭 강화됐는데 정작 정부 규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 영역은 사각지대로 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23년 11월 17일 정부24 공지문이 떴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중단 안내 공지문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단 중단합니다’ 이렇게 떠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전산 장애로 사흘간 행정복지센터 민원 처리 및 서류 발급 불가, 지자체 공무원 인사 복지 업무 마비, 무인민원발급기 작동 정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 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장애, 금융권 신분증 진위 확인 못 하고 은행 업무 마비, 국립도서관 도서 대출 중단, 세무·부동산 업무 마비, 정부24 서비스 전면 중단, 119구급대 행정망 먹통, 지리정보서비스 먹통, 외교부 인사관리시스템·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사이버범죄시스템 모두 먹통, 이게 2023년 11월 17일 정부24 공지문에 뜬 내용입니다. 어때요? 이번에도, 이것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문제점으로 얘기가 됐었던 것은 당시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이 사용연한이 지난 서버·네트워크 장비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준비하다면서 또 다른 전문가가는 정부가 예산을 줄여서 정부 전산 서버나 장비는 늘어나는데 유지보수 예산이 너무 적어서 대기업은 들어가기 꺼린다 이게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지요?

김대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모든 게 과거 전산망이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말씀을 해 놓고…… 잘 보세요. 전자정부 지원사업 2023년 493억에서 24년 126억으로, 25년도에는 54억으로 엄청나게 감액하면서 사실상 정부 지원사업 하지 않았습시다. 전 정부에서 계속 깎아 왔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국제사회 전자정부 선도국가 위상 강화 77억에서 86억, 행정한류 전파 7억에서 25억…… 증액된 예산들을 전부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어떤 예산들입니까? 홍보하는 데 쓰인 예산만 증액을 했어요. 해야 될 일은 안 한 거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3년도 11월 달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취임이 23년 5월 30일입니다. 취임하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사태를 맞이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실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맞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당시 23년도에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리고서 지금 반성 하나도 안 하고 또 같은 사태가 났잖아요. 이제는 불이 났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23년도 5월 달에 22년도에 사고 난 것을 뻔히 보면서 취임하신 분이 23년도 11월 달에 또 이런 일이 생기고. 국가전산망을 모두 마비시킨, 그 원장이…… 지금 이것 또 같은 것 아닙니까?

24년도 행안부도 공동 책임이 있는데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을 아예 내 버려요. 행안위가 경찰청은 예산 요청 자체를 포기하고 관세청도 기준에 따라서 제외하고요. 행안부는 재해 앞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예산 확보를 막았습시다. 행안부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그동안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예요. 다 있는 자료들, 발표한 자료들만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배터리 교체 권고를, 24년 6월에 LG에너지솔루션이 교체를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것 문제 생깁니다’, ‘불납니다’. 안일한 판단으로 이것 방치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22년도에 화재 사고가 나서 정보에 큰 구멍이 뚫린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정부는 그다음 해에 정부24 전체가 다 마비가 되는 이런 사태를 겪고 그리고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번 화재를 기점으로 해서 행안부장관께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탈탈 털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복구를 위한 준비를 정부 차원에서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AI 시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데이터센터,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국정자원에 정말 성질이 나는 게 뭐냐면 건물 내 백업 체계뿐만 아니라 대전-공주 간 상호 백업으로 모두 이루어져서 화재로 인한 건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바로 다음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국민들을 안정시켰었어요, 국정자원에서. 그랬

는데 온 나라가 마비되고 나서 이게 거짓말임이 들통난 것 아닙니까? 어떤 책임을 지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철승입니다.

저도 좀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장관님, 제가 화재 현장에 가 보고 가장 놀란 게 배터리와 서버가 같은 장소에 붙어 있었다는 것, 그게 가장 문제였다고, 기본적인 문제였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ESS R&D 사업은 화재 사고 때문에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하게 구조를 만들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불이 나도 시스템이 즉시 혹은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방안들 그다음에 배터리를 이동할 때 작업 매뉴얼대로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계속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님, 여러 차례 지적된 이야기입니다만 전임 강동석 원장께서 ‘정부24 주민등록시스템 등등 이런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상호 백업이 되기 때문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으로 소실될 경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22년 10월 달에 브리핑을 한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권철승 위원 그런데 후임 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 호언장담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복구 훈련하는 과정을 지켜봤었고요. 그리고 그 성과 검토도 같이 하고 했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으로 소실될 경우 3시간 이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 사실을 확인하셨다는 겁니까, 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아닙니다. 3시간 이내에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실은 실시해 본 적도 없고 검증된 것도 아니고요.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전임 원장이 큰 사고가 있을 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후임자가 확인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확인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후임자로서?

그리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상호 백업되는 것 이것은 맞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몇 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확인하셨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DR이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다만 센터 전체가 이

중화되어 있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는 하고요.

○권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건 그 브리핑 중에 보면 상호 백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게 맞는 사실인가요? 확인을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웅 극히 일부가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로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임자가 문제가 생기니까 큰소리 치고 폼 잡고 도망간 것 아닙니까? 사고가 당장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것은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장관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국민브리핑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꼭 진짜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권철승 위원 아까 이달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국가 데이터는 3시간 만에 복구된다 이런 대국민 거짓 보고를 한 것도 문제이지만 두고두고 욕을 먹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이런 보고, 이런 호언장담을 함으로써 다른 보완하는 작업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G드라이브라는 것 정부에서 사용하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게 74개 기관에서 공무원 12만 5000명 정도가 지금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밝혔네요. ‘기관과 상관없이 G드라이브에 담긴 전체 모든 데이터가 소실됐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혹시 임정규 공공서비스국장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직속 상관 실장이 누구신가요?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제가 실장입니다.

○권철승 위원 누구시지요?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이용석 실장입니다.

○권철승 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이용석 실장입니다.

○권철승 위원 이 실장님.

임정규 국장이 이렇게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에 대해서는 대다수 정보를 PC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 사실입니까?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보면 PC에도 있고 G드라이브에도 넣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특수한 계기를 통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철승 위원 인사혁신처는 빼고요.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그 외의 부처들은 일반적으로 PC와 G드라이브에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게 언제부터 서비스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상당 시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17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17년부터 사용했던 PC가 아직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다음에 2018년에 행안부가 G드라이브 이용지침 내린 것 아십니까?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내용이 뭐지요?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가급적이면 PC보다는 G드라이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렇습니다. 영원히 복구한다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것 인정을 해야지요.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들어 보면 다 아는데요, 약간의 경험 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있는 내용 그대로 브리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G드라이브 안에 있는 내용들, 공무원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게 정보등급은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업무 참고 자료나 인수인계 자료 등등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게 공직사회의 누적된 영영 자산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맞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게 사라졌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수인계할 때 예를 들어서 통상 협상 같은 경우 4년, 5년씩 시차를 두고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4년, 5년 전의 자료를 어떻게 찾을 겁니까? 이것 엄청난 손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복구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PC에 들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복구할 수 있다 이 러면 이미 퇴직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PC 바꾼 것도 있는데 지금 퇴직한 사람들 그리고 없어진 PC에 있던 내용들은 당연히 복구가 안 되잖아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예.

○권철승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렇게 브리핑을 하고 차단을 해 버리면 진짜 구해서 다시 복구시켜야 될 그 자료를 찾는 작업들이 원천 봉쇄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예, 알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국정자원 원장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이해식 위원 강동석 전임 원장님이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해도 3시간 만에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뭘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몇 개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DR, 재해복구시스템……

○이해식 위원 이중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지금 이중화라는……

○이해식 위원 DR?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전통적인 DR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극히 일부에 되어 있는 DR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어쨌든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아마 본인도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요? 몰랐을까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정확하게……

○이해식 위원 어떻게 보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만약에 전체가 3시간 안에 이동될 수 있다고 했다면 잘못된 말이고요. 일부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했으면, 뭐 그런 뜻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지금 DR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소위 저희가 액티브-스탠바이라고 하는 DR은 광주와 대전에 5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대전에는 없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아니, 있습니다. 대전에서 광주로 가는 게 25개 있고요. 대전에서 광주로 가는 게 28개, 광주에서 대전으로 백업되는 것 24개 그렇게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래서 몇 퍼센트예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이게 1등급 기준으로는 19% 정도로 뽑기는 했는데요. 1·2등급……

○이해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통계마다 다른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서버 스토리지 이중화 이것도 보면 서버 스토리지 이중화 기반의 DR 시스템 이것은 7.2%에 불과하다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전체를 모수로 보면 그렇고요.

○이해식 위원 글썄, 그러니까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예,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어쨌든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고 그때 당시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의문인데, 한 기관의 장이 말이지요. 어쨌든 좋습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해식 위원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이중화를 구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돼 있는 이중화는 액티브-스탠바이 방식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현재는, 예.

○이해식 위원 일부 돼 있는 것도.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해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은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시스템이 한 1100개 되는 겁니까, 국정자원관리원에 있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체를 다 하는 것에 대한 예산 수요는 아직 뽑아 보지는 않았고요.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리고 아주 작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작은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것까지를, 왜냐하면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이중화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 비용까지 하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이해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것도 좋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그런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예산 내역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산 내역을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대전 센터에 있는 30여 개의 1등급 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한다는 것을 제안해서 말씀드리면 한 7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이고 결국 광주 센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광주 센터까지를 포함하면 1조가 좀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공주 센터에다가 그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23년도에 계획을 세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해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세수 평가가 나고 그러면서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날짜만 갔던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적어도 액티브-스탠바이 방식이라든, 적어도 어떤 사고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라도 그것을 자료 소실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먼저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자원을 리스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금 현실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서 그 로드맵을 발표하

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PPT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국정자원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1등급, 2등급 중대 장애가 1년간만 해도 451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죽 보면 여기는 일부만 나와 있는 건데 이중화 관련된 중대 장애 그것도 1등급, 2등급 장애만 모아도 스물세 번이나 발생했어요, 불과 1년 만에. 어떻게 보면 엉망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다음 PPT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여기 보시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UPS실의 누수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해 가지고 이중화 장치 작동이 불가했고요. 그리고 창원시도 기반 시설 장애, UPS 장치 노후에 따른 장애가 발생했고 태백시도……

한 1분만 더 주시지요.

○**위원장 신정훈** 예.

○**이해식 위원** 향온향습기 및 UPS 고장, 과열에 따른 전기시설 손상으로 전체 시스템 셧다운. 이게 거의 비슷해요, 지금. 정부자원관리원에 화재 난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광역 포함해서 243개인데 아마 다 이런 UPS실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광역단체는 기관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저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자원관리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정자원이 지금 한 1100개고 정부가 그 외에 한 600개 이상의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그리고 특히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이런 전산망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것을 하고 그야말로 이중화, 그것도 액티브-액티브 방식이면 좋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이 과중하게 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런 안정 조치를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당면한 과제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께서 꼭 좀 이렇게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가 얼마 안 있으면 또 있을 겁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하여튼 기민하게 움직여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때 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제 발언 바로잡을 일이 있어서요.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지금 2차 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혹시 더 추가적인 질의를 요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서범수 위원 저는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파악해 주시고요.

○서범수 위원 1분만 할게요, 저는.

○위원장 신정훈 세 분이요, 이쪽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 분 1분씩이요? 잠깐만요.

○서범수 위원 제가 1분만 딱 할게요. 저는 1분 하고 나머지는 3분씩 하고……

○이달희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정훈 이달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신다니까……

○이달희 위원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 발언을 바로잡겠습니다. 아까 2인 1조 얘기할 때 LG에너지솔루션, 제가 그때 우리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녹음 버전을 정리했는데 그 발언을 한 거는 우리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아니고 국정자원원 장 뒤에 있던 배석한 직원의 발언이었다는 것을 바로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장관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관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특히 재해복구 상황이라든지 국민과의 소통, 홍보하는 걸 우리 장관님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네이버를 통해서 복구서비스 중단된 것,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그리고 서비스가 중단된 것 그리고 서비스가 중단된 부분 중에서도 이거는 언제 복구된다고 다 알려 주신다 했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언제 복구된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서범수 위원 여기 네이버 보시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네이버……

○서범수 위원 여기 보시면 복구사항 안내 해서 지금 1번부터 103번까지 복구된, 지금 서비스 제공하는 항목만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외에 중단된 서비스가 어떤 게 있고, 그 중단된 서비스는 언제 복구가 돼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를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님께서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아까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죄송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관님,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다른 사람한테 맡기치 마시고 장관님이 딱 장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지요.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정자원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차관이 매일 1시 반에 이 상황을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 서범수 위원** 그런데 장관님조차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다른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요. 그것은 제가, 네이버에 제공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 네이버 포털에 있는 행안부 블로그에 제공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장관님께서 국민들한테 소통을 하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장관님께서 ‘아, 이제 이렇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같은 네이버의……
-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장관님이 앞으로라도……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서범수 위원** 장악을 하셔서 이 부분은 장관님이 정확하게 좀 국민들한테 혼란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 고동진 위원** 대평엔지니어링의 남기도 단장 나와 계십니까?
저쪽으로 좀 와 주세요.
부사장님이에요, 단장님이에요?
-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단장입니다.
- 고동진 위원** 아니, 단장님이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지요, 감리 업무 하시면서?
-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예.
- 고동진 위원** 배터리 ESS 이거 이설해 본 경험이 있어요?
-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예, 있습니다.
- 고동진 위원** 있어요?
-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예.
- 고동진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PPT에서 한번 띄웠는데 왼쪽 게 LG엔솔이고 오른쪽 거는 우리나라 다른 국내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지침 매뉴얼은 다 알고 있습니까?
-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 고동진 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배터리 잔량이 한 80% 남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아는 것도 그렇고 여기 업체들도 ‘그런 이설 작업을 할 때는 30% 이하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랬는데 왜 80%가 남아 있는 배터리가 이설이 됐습니까?
-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그것까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고동진 위원** 다 알고 있다면서요. ESS 옮겨 봤다면서요?
-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예, 옮겨는 봤습니다.
- 고동진 위원** 아니, 여기는 감리도 책임감리 아십니까?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예, 현재 그때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고동진 위원 아니, 다 안다면서요. 이런 것, 아까 PPT 띄운 것 다 아신다면?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여쭙게요.

이건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설업이든 어떤 공사나 기술적인 문제가 끼었을 때 이것을 발주하는 회사나 개인은 디테일한 기술을 모를 확률이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잘 아는 전문업체를 써서 감리를 맡기고 책임감리라고 하는 책임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4억 8000을 들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예, 맞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아까 매뉴얼은 다 아는데 이 건은 모른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뭘니까?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어느 정도 충전돼 있는 상황은 저희는 몰랐습니다.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ESS를 이설할 때 기본이 30% 이하, 첫 번째가 UPS 전원 내리고 그다음에 BPU 전원, 그것도 마이너스 먼저 그다음에 플러스 이게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것 몰랐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가장 좋은 건 여기 정보관리원장이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고 업무 지시도 하고 이러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이런 전문 분야는 여러분들 같은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높은 돈을 줘 가면서 작업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그 작업은 저희가 하는 건 품질관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것 하기 전에 LG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동진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땀을 때 전문 배터리 공급업체 LG CNS나 LG엔솔하고 대화는 해 봤습니까, 뭘 주의해야 되는지?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그 당시에 저희 상주 근무사가 통화하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고동진 위원 전화 통화는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들었어요?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상주를 하지 않아 가지고……

○고동진 위원 아니 지금 단장, 여기 실무적으로 가장 잘 아는 분 아니에요?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예,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밑에 사람한테 보고받기를 LG엔솔하고 또는 LG CNS하고 이야기를 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야기 들었다고 하는 걸 들은 겁니까?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예, 맞습니다.

○고동진 위원 LG엔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LG에너지솔루션전무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LG엔솔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팩에 관련된 부분만 저희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맞아요. 대평엔지니어링은 그냥 감리가 아니라 책임감리 아닙니까? 책임 감리라고 하는 건 현장의 작업자들 그 사람들을 다 통제하면서 위험한 부분까지 사전에 발굴을 해서 문제를 예단하고 그다음에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거기 업무 범위 아니에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좀 정리하시지요.

○**고동진 위원** 제가 이미 많이 썼나요?

1분만, 제가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3분 하셨습니다. 3분 하셨고 더 많이 하셨는데……

○**고동진 위원** 예, 빨리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신정훈** 마무리하십시오.

○**고동진 위원** 책임감리의 업무 범위는 아까 제가 언급한, 아까 L사, S사 이것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발을 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것 배터리를 이설할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거지요? 감독이 안 된 거지요?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담당자하고 연락하고 실제 일하는 작업자하고 연락되고 한 얘기를 받았습시다.

○**고동진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단장은 책임자 아닙니까?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맞습시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에요, 작업하는 사람들이?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작업자하고 담당자하고 서로 연락이 된 걸 보고를 받았습시다.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시지요.

○**고동진 위원** 민간기업에 있으면서 공무원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잠깐만 계시고, 부사장님 나와 보세요.

아까 질의할 때 우리 부사장님은 낮에 3명 있었고 그리고 야간에 1명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예, 그렇게 보고 받았습시다.

○**박덕흠 위원** 몇 시부터 작업을 합니까?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과업지시서를 보면요 여기 위험한 것에 대해서 다 나와요. 계약 상태는 본 용역 과업 범위, UPS 배터리 교체 및 재배치 공사 시 국가데이터센터 특성을 고려해서 무정전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공계획 및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대로만 됐어도 사고가 나겠습니까, 부사장님? 그러면 허위보고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작업은 금요일 저녁 18시 이후에 또 주말 토·일까지 하고 일요일 날은 점검해

서 가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낮에 3명 있었고 야간에 1명 있었다는 거짓 증언을 합니까? 아까 여기 위원님들이 다 들었잖아요. 낮에 3명 있었다, 그래서 야간에 오히려 나는 그걸……

○대평엔지니어링(주)부사장 최병석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낮에 3명이 어떻게, 16시 이후에 작업을 하게 돼 있는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낮에 일을 했다는 겁니까, 관리감독을? 아니, 시공을 하지도 않는데 일을 해요? 단장,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예, 맞습니다. 낮에는 저희 3명이 근무를 했고 야간에는 1명이 근무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낮에 무슨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낮에는 다음날 사용전검사가 있어 가지고 사용전검사 대비 때문에 부스덕트 설치공사 및 야간작업,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감리하는데 무슨 설치작업을 해, 감리가?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그것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18시부터 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그건 야간작업이고요 주간작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이거는 UPS 배터리 교체할 때에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18시부터 하게 돼 있잖아요. 이 배터리 교체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특성상 중요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과업지시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대로 했어요, 저녁에?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예, 그대로 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저녁에 이대로 했냐고, 과업지시서대로?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예, 근무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근무한 게 아니라 이 지시서대로 했냐고.

1분만 더……

○위원장 신정훈 1분 더 드리세요.

○박덕흠 위원 다음 장 PPT 띄워 봐요.

그리고 시공 확인 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것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대로 했습니까?

UPS 교체·재배치 등 전산실 전원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은 작업 진행 중 전산실 서버 전원 공급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는데 했냐고요, 단장님?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했어요?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화재가 났습니까? 이것을 했는데 화재가 났냐고.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다음, 시공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PPT 띄워 보세요.

이것도 했어요? 시공 확인, 과업지시서에 있는데 했냐고요.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예,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덕흠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것 잘못하면 위증이야.

확인했어요?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예.

○박덕흠 위원 근무 안 했다면서 보고를 받은 거예요, 확인을 직접 한 거예요?

○대평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남기도 보고 받았습니니다.

○위원장 신정훈 박수민 위원님 하실 겁니까?

마지막으로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이 리튬배터리를 옮기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떨어뜨리거나 스파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다, 이제 인지는 좀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그런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 질문 주셨지만 그날 밤에 단순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이 작업이 긴장감 있게 진행됐던 흔적이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정확히 인지하시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겼는데 G드라이브까지 다 타 버렸다는데 지금 현재 장관님 위기대응 지휘의 업무 우선순위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지금 시스템들을 복원하는 게 우선이고요. 시스템 복원에 필요한, 그러니까 2층에서 4층까지 있는 1전산실에서 6전산실까지는 화재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향온·향습 장치가 이상이 생기면서 전원을 내렸었습니다. 그걸 다시 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5층에 있는 7·8전산실에 연계돼서 운영이 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2·3·4층에 있더라도 이게 전원만 올려서 되는 게 아니라 5층 전산실들이 복원돼야 함께 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것을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소위 엔탑스(ntops)라고 하는 국정자원의 관리운영시스템이, 그 컴퓨터 시스템이 같이 소실이 돼 가지고요 이걸 정확한 리스트를 뽑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각 전산실에 어떤 방법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운영체계가 연계돼 있는지 아니면 데이터

베이스만 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엔타스가 곧 복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정확한 복원 일정을 국민들께 안내해 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행스럽게 들리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 일정 때문에 여쭙려고 그랬어요.

복구가 최우선 순위고 언제까지 빨리가 중요하시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 보면 복구 일정은 아직도 안 나오고 현황, 시스템들이 물려 있으니까 이제 파악, 파악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단기간에 파악하셔서 최고의 솔루션을 내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됐습니까?

이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고동진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좀……

○위원장 신정훈 이제 그만하시지요.

○윤건영 위원 그만하시지요, 위원님.

○고동진 위원 마무리 좀 할 내용이……

○윤건영 위원 지난번에 우리 오송 때도 그렇게 깔끔하게 끝었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충분히…… 또 국정감사가 남아 있고 이후에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함께 느끼시듯이 이번 사고는 여러 차례의 예상되는,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불감증 내지는 부실한 대응 때문에 이런 사고가 커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사고의 원인 규명도 또 복구 일정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도 오늘 이 현안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다 확인하기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정부나 관련자들의 답변 과정에서 굉장히 책임 회피성 발언도 많이 있었고 불분명한 발언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제가 이제 원인 규명과 속도 있는 복구 일정들을 가져야 될 건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정부 당국이 또 그대로 남아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복구 일정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책임자가 또 이후에 원인 규명을 해 가는 과정에서 진실이 더 왜곡되거나 사태 수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장관이 직접 챙기시고 또 지휘하시면서 이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마지막으로 장관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다시 한번 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혼란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정훈 행안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행안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데이터의 관리와 또 정보서비스를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공급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잘 극복하고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현재 장애가 발생돼 있는 각 서비스들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많은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윤호중 장관 이하 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3시32분)

○위원장 신정훈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예.

○서범수 위원 오늘 위철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만 위철환 후보자가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듯이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도 하고 과거의 전력, 즉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지선언 그리고 2017년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의 공동본부장 등으로 봐서 정파성이 강하고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의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런 우려가 해소가 되지 못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선관위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중립성과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저희들이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위원장 신정훈 윤건영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후보자의 선관위원으로서의 자격, 직무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대한변협 전임 회장 출신으로서 탄탄한 법조 경력을 토대로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생명인 선관위원 보직을 누구보다도 잘할 것으로 저희 당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선거 과정에서의 참여 부분은 후보자 본인의 의견으로서도 그렇고 역대 관례를 봐도 그렇고 정당에 가입을 한 적도 없거니와 그것이 선관위원으로서의 흠결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선관위원으로 하루빨리 임명을 해서 선관위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대한민국을 갇아먹는 그런 반민주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관위원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 같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의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3시36분)

○위원장 신정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위원님들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을 요구하고 의결 이후에 접수되는 서류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각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고자 합니다.

다만 서류 또는 자료제출 요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에 따라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적법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정해진 기한을 고려해서 요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23시37분)

○위원장 신정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5일 의결한 기관증인 등에 이어서 오늘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송달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사 협의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명단을 마련했습니다.

제시해 드린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등 53명을 일반증인으로, 주인수 현대엘리베이터 노조위원장 등 16명을 참고인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중에 고동진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서면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내실 있게 청문회와 현안 질의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국회 공무원,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8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일반증인(53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요구 위원	출석요구 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농어촌기본소득 주무부처 선정 과정 관련 질의	신정훈	10. 14.(화) 행정안전부
강동석	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3시간 이내 복구 가능 발언 관련 질의		
차병준	(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장	옥외광고 수입 부실관리 및 예산 부당 사용		
이현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계약관리 부정		
김희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국장	2024년 4월 '1·2등급 정보 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 마련에 대한 경위 확인	위성곤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요구 위원	출석요구 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이정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정보화기반과 경감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에 따라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요청을 포기한 사유와 과정을 검증		
권준영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장	용산 관저 집무실 이전 관련	윤건영	
김태영	21GRAM 대표			
조우연	21GRAM 감사			
윤영준	前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박세진	현대건설(주) 상무			
이재용	현대차그룹 사업관리팀장			
이한우	현대건설(주) 대표			
박준규	현대건설(주) 책임	관저 공사 하도급법 위반 및 국회 위증 관련	이해식	
신종률	대통령경호처 계장			
조유목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315의거과장	3·15 조사보고서 관련	양부남	
김동명	(주)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발생 관련 우려 및 문제 진단	서범수 고동진 이달희 이성권	10. 14.(화) 행정안전부
현신균	(주)LG씨엔에스 대표이사		고동진 이성권	
배문찬	(주)이피코리아 대표이사	국정자원UPS 공급 업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및 대책	고동진 이성권	
강길화	(주)일성계전 대표이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달희 이성권	
박종환	대평엔지니어링(주)		박덕흠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요구 위원	출석요구 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미 상	(주)내일파워 대표이사		이달희	
박상신	DL이앤씨(주) 대표이사	허위 우수사례 홍보	박수민	
		건축물 관련 점검 미비 및 보수계획 등	이해식	
정종표	DB손해보험(주) 대표이사	풍수해보험	박덕흠	
		소방헬기 보험금 지연이자 관련	박정현	10. 15.(수) 소방청
구본욱	(주)케이비손해보험 대표이사	풍수해 보험	서범수 박덕흠	10. 14.(화) 행정안전부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주) 대표이사		박덕흠	
차호준	행정안전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원장	기관증인 (25일 의결 시 누락 기관증인)	-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	음성 국립소방병원 개원 관련	이광희	10. 15.(수) 소방청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119법 시행령 개정 관련	박정현	
조승호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前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선거관리	박덕흠	
남상덕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前 지도계장)			
유영상	SK텔레콤(주) 대표이사	AI업무 협약 관련	신정훈	10. 17.(금) 경찰청
조좌진	롯데카드(주) 대표이사	개인정보 유출	신정훈 박수민	
정상진	울산경찰청장		박정현	10. 17.(금) 경찰청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관련, 책임경영 관련		
배기환	울산북부경찰서장	이수기업 노동자 파업 관련		
안경원	前 울산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박승학	울산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윤태영	영주경찰서장	통일교 내사 관련	양부남	
김성훈	前 대통령경호처 차장	윤석열 前 대통령 체포영장	이상식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요구 위원	출석요구 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이광우	前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집행 방해		
김 신	前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			
이동석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경찰청 순찰차 부당계약 및 부실납품 문제 제기	신정훈	
안정일	현대자동차(주) 상무	경찰청 순찰차 부실납품		
박창지	경찰청 장비과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이사	중고거래 사기 방지대책 미비	박덕흠	
이진우	충청북도경찰청 수사과장	수사 공정성 질의		
조성명	강남구청장	양치승 씨 사례는 기부채납 관리의 사각지대로 민간의 불법 수익과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강남구청장의 행정적·도의적 책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위성곤	10. 23.(목) 서울특별시
조재홍	웹파킹개발(주)	웹파킹개발은 노현1호주차장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재산 운영의 적정성과 감독 실태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함		
박종태	한화이글스 대표	한화이글스 구장 장애인석 임의변경 관련	모경중	10. 24.(금) 대전광역시
김영섭	(주)케이티 대표이사	국가융합망	신정훈 서범수	10. 30.(목) 종합감사 (행정안전부)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	화재 원인 및 대응 과정,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신정훈	
백종원	(주)더본코리아 대표	지역축제 관련 의혹 및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한 질의	이해식	

참고인(16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요구 위원	출석요구 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주인수	현대엘리베이터노동조합 위원장	엘리베이터 작업환경 관리	박정현	10. 14.(화) 행정안전부
방규현	오티스엘리베이터노동 조합 위원장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요구 위원	출석요구 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이상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국가자원정보관리원 유지보수비 절감 방안	신정훈	
정종수	숭실대학교 교수	국가자원정보관리원 화재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김진아	GS Holdings 상무보	GS는 유통·에너지 등 현장에서 AI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경험을 갖춘 기업으로 공공부문 AI 확산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표 사례	위성곤	
황주호	(사)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에너지 정책의 비효율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한 의견 청취	고동진	
박지원	두산에너지빌리티(주) 대표이사			
정성욱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중수청 설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문제점 진단	이성권	10. 17.(금) 경찰청
권하은	-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폭력 피해 관련	박정현	
이원석	前 대검찰청 검찰총장	마약범죄의 심각성 및 검찰 폐지로 인한 경찰 수사 차질 우려	이성권	
이국성	안산상록경찰서 경위	저위험권총 등 경찰 장비 개발 관행의 문제	용혜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관련	고동진	10. 21.(화) 경기도
서수길	(주)숲 대표이사	BJ 활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상인 영업 피해	박수민	
손은진	동탄 교제살인사건 유족	동탄 교제살인사건 관련 경찰 부실 대응 현황	용혜인	
양치승	헬스트레이너	공공재산 관리 사각지대와 소상공인 피해 현실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	위성곤	10. 23.(목) 서울특별시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	영테크사업 구조적 문제 관련	용혜인	

○출석 위원(21인)

고동진 권칠승 김성희 모경중 박덕흠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신정훈 양부남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연희 이해식 정춘생 주호영
 채현일

○청가 위원(1인)

용혜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출석 공직후보자

위철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정책기획관 임철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 이재용
 소방청
 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장비기술국장 윤상기
 화재예방국장직무대리 송호영
 기획재정담당관 이진호

(주)LG에너지솔루션

전무검품질경영센터장 정재한
 대평엔지니어링(주)
 부사장 최병석
 감리단장 남기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옥미선
 기획국장 김인수
 선거1국장 이상능
 법제국장 도희락
 조사국장 조봉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박현도

임시회의록